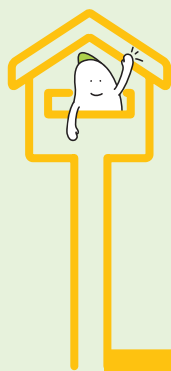


완벽한 자율학습서

완자

자습서 정답친해

중등국어 2-2



갈래 펼치기



소설

● 본문 006쪽

1 (1) ○ (2) × (3) ○ 2 전지적 작가 시점 3 ⑤

1 (1) 소설에서 보는 이란 특정 대상이나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는 존재를 말하며, 말하는 이란 이야기를 읽는 이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를 말한다. 소설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도 하는데, 이 서술자는 작품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존재할 수도 있다.

(2) 같은 대상이더라도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품의 세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3) 작품 속에서의 성격 변화에 따라 인물의 유형을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평면적 인물이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일관적인 성격을 보이는 인물을 말하며, 입체적 인물이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말한다.

2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입장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말한다. 이 시점에서 서술자는 사건의 정황이나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독자에게 모두 설명해 주기 때문에 독자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3 소설에서 보는 이와 말하는 이는 특정 대상이나 사건을 관찰하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의 역할을 한다.



완자뽕의 풀이

같은 대상을 보거나 말하더라도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품의 세계는 다르게 나타나. 따라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을 중심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하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어.



고전 소설

● 본문 007쪽

1 판소리계 소설 2 ③ 3 ④

1 「춘향전」, 「심청전」 등과 같이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한다.

2 일반적으로 현대 소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는 반면, 고전 소설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3 고전 소설은 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옛 소설로 현대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 주로 유교적 질서나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며, 작가의 삶이나 당대의 사회상을 이해하면서 감상해 볼 수 있다. 고전 소설은 옛 시대에 창작된 작품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감상하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완자뽕의 풀이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한다는 뜻이다. 고전 소설들은 대부분 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에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이 상대적으로 행동하며 선(善)이 승리하고 악이 벌을 받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지.



시

● 본문 008쪽

1 (1) ○ (2) × (3) ○ 2 (시의) 말하는 이 / 시적 화자 3 ②

1 (1)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서나 생각 또는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로, 함축적이고 감각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2) 시의 정서는 시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을 가리키는데, 이는 시의 시간적·공간적 배경, 시어, 심상이나 비유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3) 말하는 이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거나 관찰하고 시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체로,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시를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2 시의 말하는 이(시적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존재이다. 시의 말하는 이는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고 분위기를 형성하며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3 시의 말하는 이는 사람이나 사물일 수도 있고 시인 자신일 수도 있으며, 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이때 시에 등장하는 '나'는 시인과 독자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존재라는 점에서 '나'를 시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시의 말하는 이의 태도

예찬적 태도	시적 대상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태도
의지적 태도	시적 대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태도
달관적 태도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듯한 태도



매체

본문 009쪽

1 (1) 매체 (2) 흥미 (3) 출처 2 동영상 3 ④

1 (1) 매체란 발신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 및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 및 시청자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더 쉽게, 오래 기억하도록 해 준다.

(3) 매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매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매체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매체 자료 중 동영상은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보여 준다.

3 매체 자료를 활용한 담화를 들 때에는 매체 자료가 내용을 잘 뒷받침하는지, 적절한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장소와 시간, 듣는 이,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자료의 사용 윤리를 지켰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매체 자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료의 효과적인 제시와 거리가 멀다.



만화

본문 010쪽

1 (1) ○ (2) × (3) ○ 2 ③ 3 칸

1 (1) 만화는 문학과 시각 양식의 결합으로 그림과 글이 합쳐진 독자적인 갈래이며, 일정한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 만화에서는 그림이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 보완할 수 있으며,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2) 만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단순화와 과장의 방법을 활용한다.

(3) 만화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2 만화에서 그림은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간 등을 표현한다. 말풍선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표현하고, 그림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대화 내용을 보여 줄 때 사용된다. 그리고 줄글은 그림과 말풍선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된다.

참고 자료

만화의 종류

시사만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만화로, 사회 현실의 모순을 풍자하거나 비평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
명랑 만화	인물이나 사건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역사 만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 만화로, 꾸며 낸 인물이 등장하는 시대 만화라고도 함.
순정 만화	감성적인 대사와 아름다운 그림을 위주로 그린 만화를 가리킴.
기타	스포츠 만화, 공상 과학 만화, 학습 만화 등

3 만화는 '칸'이라는 틀 안에 여러 장면을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독자는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상상하며 감상할 수 있다.



대화

본문 011쪽

1 (1) 협력적 (2) 시작부 2 공감적 듣기 3 ④

1 (1) 대화란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가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2) 대화의 시작부는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 혹은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는 단계로, 상대의 이름을 부르거나 인사말을 건네기, 대화의 화제를 꺼내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이다.

참고 자료

공감적 대화에서 유의할 점

- 진실하게 공감하기: 말 속에 드러난 내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음미하고 느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감해야 함.
- 핵심을 파악하여 전달하기: 공감을 이끌어 내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전달한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쉽고 간단하게 전달해야 함.

3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므로, 상대의 잘잘못을 분석하며 듣는 것은 공감적 대화를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완자샘의 풀이

내가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해도 내 말을 듣는 친구의 반응이 소극적이라면 계속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즐겁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

(1)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확인 문제

● 018~045쪽

- 019쪽 | 1 ⑤ 2 ④ 3 ②
 021쪽 | 4 ③ 5 ① 6 '아저씨'가 북한 말투(북한식 사투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7 ④
 023쪽 | 8 ① 9 ⑤ 10 ②
 025쪽 | 11 ④ 12 ① 13 일가
 027쪽 | 14 ④ 15 ① 16 ④
 029쪽 | 17 ④ 18 ⑤ 19 ⑤
 031쪽 | 20 ⑤ 21 ② 22 ⑤ 23 ㉠: 최고, ㉡: 최악
 033쪽 | 24 ④ 25 갈취 26 ①
 035쪽 | 27 ③ 28 ② 29 ① 30 '아저씨'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037쪽 | 31 ① 32 ⑤ 33 '아저씨'를 더 이상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039쪽 | 34 ③ 35 ⑤ 36 ②
 041쪽 | 37 ④ 38 한숨 소리 39 ④
 043쪽 | 40 ⑤ 41 ① 42 ⑤
 045쪽 | 43 ① 44 ⑤ 45 ④

1 이 글은 '나'가 주인공이고,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는 '미옥'을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미옥'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미옥'의 동네에서 '아라'가 '나'를 부르는 말로 보아, '나'의 이름이 '한희창'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나이이며, '미옥'이라는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순수한 사춘기 소년임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미옥'과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2 '나'는 '아버지'께 '미옥'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이에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 보라고 조언하였고, '나'는 '미옥'에게 방학 동안의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3 '나'가 ㉠과 같이 '미옥'이 사는 동네 앞에서 자전거 페달을 느리게 굴린 것은 혹시라도 '미옥'을 우연히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4 '나'가 기다리던 '미옥'의 답장을 뜯어보지 않은 것은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부모님께 들일까 봐 걱정하고 있지 않다.

② '미옥'이 보낸 편지는 '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모른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누가 볼까 얼른 편지를 가방 안에 감추었지만,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두려워 편지를 뜯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⑤ '나'는 편지가 어떤 내용일지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있을 뿐, 편지의 내용이 불길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5 '나'는 '미옥'에게서 기다리던 답장을 받고 '설레는 기분'이 었다가, 과수원에서 나오는 낯선 남자인 '아저씨'가 말을 걸자, 그가 우리 과수원에서 불일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불쾌한 기분'이 된다.

6 서술형 ✎ '나'가 '아저씨'를 간첩으로 오해한 이유는 '아저씨'가 "야야, 너 어데로 갑네?"와 같은 북한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아저씨'의 말투 때문임을 정확하게 썼다.	☐

7 '나'는 ㉠을 싫어하는 '엄마'의 편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많은 인본에서 나는 냄새가 고약하고, 행여나 인본을 밟은 날은 견딜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가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엄마'는 ㉠에 대해 아주 신경질 난다고 하였다.
 ②, ③ '아버지'는 ㉠에 대해 사람들에게는 우리 과수원이 좋은 일 하는 거고 우리 과수원에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하였다.
 ⑤ '나'는 과수원에서 일할 때 발밑에서 뭔가 물컹덩 밟히더라도 하는 날이면 진짜 죽을 맛이 있다고 하였다.

8 '발단' 7~8은 '나'의 집에 '아저씨'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② 이 글에서 발단의 앞쪽 부분은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당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아저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스스럼없고 넉살좋은 성격이 드러난다.

④ 주인공인 '나'의 이야기를 '나'가 직접 서술하고 있으므로, 주인공의 심리가 자세하게 서술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낯선 인물인 '아저씨'가 '나'의 집에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엄마'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징그럽다고 하는 이유는 '나'가 변성기가 지난 청소년이라 본격적인 남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열여섯 살의 '나'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난다.

10 해당 부분에서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기로 되어 있던 손님인 것은 알 수 있지만, ‘아저씨’가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라는 설명은 없다. 또한 ‘아저씨’는 ‘나’의 일가이지,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아저씨’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 연변에서 왔다고 알고 있다고 하며, 자신은 라오닝성 다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 ‘엄마’는 ‘아저씨’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로 보아, ‘아저씨’는 ‘나’의 집에 오기로 되어 있던 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아저씨’는 과수원에서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이때 ‘나’는 ‘아저씨’가 간첩이라고 오해하였다.

⑤ ‘아저씨’는 ‘나’를 향해 눈을 찡긐하거나, ‘엄마’가 무안해하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스스로없이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

11 ‘나’는 ‘아저씨’가 ‘나’의 집에 방문한 것을 못마땅해하지만, 그가 자신의 일가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는 ‘아저씨’를 ‘형님’이라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② ‘엄마’는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교자상을 펴 ‘아저씨’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다.

③ ‘엄마’는 ‘아저씨’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펴면서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다. 이로 보아, ‘엄마’는 사실 ‘아저씨’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아버지’와 ‘아저씨’의 만남을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 줘야 하나?’와 같이 비교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저씨’의 등장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12 ‘아저씨’는 처음 만난 ‘나’에게 인사를 정식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로 보아 그는 혈연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서술형** 이 소설은 ‘나’의 가족이 일가인 ‘아저씨’를 맞이하며 겪는 사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나’와 ‘엄마’는 ‘아저씨’의 방문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소설은 이러한 모습과 작품의 제목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각박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4 ‘나’는 ‘아저씨’의 장황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미옥’이 보낸 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ㄴ) 또한 ‘아저씨’의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자 ‘아버지’는 소에게 먹이를 주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엄마’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나’는 ‘미옥’의 편지만 생각하고 있다. 즉 가족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저씨’의 이야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ㄹ)

오답인 이유 ㄱ. ‘엄마’는 ‘아저씨’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일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고 싶어 한다.

ㄴ. ‘아버지’는 사촌 형님인 ‘아저씨’와의 만남이 반갑기는 하지만, ‘아저씨’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소에게 먹이를 주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15 ‘나’가 서술한 내용 중,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인 것이다.’를 통해 ‘아저씨’가 한국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엄마’가 “과일이라도.”라고 말한 것은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과일이 먹고 싶거나 ‘아저씨’에게 좋은 음식을 좀 더 내오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리를 피하기 위한 핑계인 것이다.

완자쌤의 풀이

‘엄마’의 “과일이라도.”라는 말은 표면적 의미로만 보면 ‘엄마’가 과일을 더 내오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엄마’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엄마’가 ‘아저씨’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엄마’의 진심을 알 수 있어.

17 ‘아저씨’는 ‘나’의 집에 온 다음날부터 우사에 가서 소먹이를 주고, 바닥을 청소하고, 과수원에 거름을 내는 등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이는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 놓구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 달래지 않나.”라는 ‘엄마’의 말을 통해 ‘아저씨’가 ‘엄마’에게 술과 빨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⑤ ‘아저씨’는 ‘나’의 집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③ ‘아저씨’는 밥때가 되면, 마당을 들어서며 “제수씨 밥 안 줘네까? 뱃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가 붙었습네다.”라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친다고 하였다.

18 ‘엄마’는 엄연히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날마다 술을 달라거나 옷을 빨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몰상식’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마’가 ‘아저씨’에 대해 소개한다면 “지나치게 요구 사항이 많은 몰상식한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다.

19 ‘나’는 ‘아저씨’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게 못해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아저씨’가 예의범절을 따져서 신경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저씨’가 그를 무시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으며, ‘나’도 이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인 ‘나’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나’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나. 그러므로 ‘나’가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20 ‘나’는 ‘엄마’가 ‘미옥’이 보낸 편지를 압수한 이유가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 봐 겁나서’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가 편지를 압수한 진짜 이유를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엄마'는 건넌집 '순길'을 예로 들면서, 괜히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순식간이라고 하였다. 즉 '엄마'는 이성 교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엄마'는 '나'가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숨긴 편지를 찾아 사방을 뒤지자, "완전 미쳐 버렸구만."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③ '나'는 '엄마'가 편지를 압수한 이유를 눈치 채고 있지만, '엄마'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 악을 쓰고 만다.
 ④ '나'는 '엄마'가 편지를 압수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에는, 이럴 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용히 편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 보아, '나'는 '엄마'에게 어린애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제시된 부분에서는 '엄마'와 '나'의 갈등이 나타난다. 그 갈등의 원인은 '엄마'가 '나'의 책상 위에 있던 '미옥'이 보낸 편지를 압수했기 때문이다.

22 '엄마'가 '미옥'이 보낸 편지를 압수한 표면적 이유는 '나'가 그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의 본심은 '나'가 이성에게 빠져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편지를 압수한 것이다. 이는 "너 공부에 지장 있으니까 그렇다, 왜. 이제 3학년인데, 괜히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라는 엄마의 말에 잘 드러난다.

오답인 이유 ① '엄마'는 앞으로 '나'의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 이미 '나'의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② '엄마'가 '미옥'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엄마'는 '아버지'가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므로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압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가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마'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이다.

23 **서술형** '나'는 '위기-4'에서 자신의 기분이 '미옥'의 답장을 받은 날의 '최고'에서 아직 읽지도 못한 편지를 '엄마'에게 빼앗기고 나서의 '최악'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24 '나'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여기고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말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다.

오답인 이유 ① '아버지'는 '미옥'에게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전해 듣고, '나'에게 편지가 온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아버지'는 편지를 빼앗아 간 '엄마'를 야만인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미옥'이 보낸 편지를 '엄마'가 빼앗은 사건을 계기로 '나'와 '엄마'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부모님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⑤ '나'는 '엄마'가 '갈취했다'는 말에 그토록 분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5 **서술형** '엄마'는 '아버지'가 "여보, 당신 이제 보니 참 야만인이군그래.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라는 말에 "가, 갈취? 당신 지금 나보고 갈취했다고 했어요?"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을 심화시킨 '아버지'의 말을 2음절로 쓰면 '갈취'이다.

26 ㉠에서는 '나'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니 말려야 한다는 마음과,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소설의 갈등 양상

참고 자료

외적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	인물 사이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이나 제도로 인해 겪는 갈등
	개인과 자연의 갈등	인물이 자연재해를 겪거나 자연에 도전하면서 겪는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때문에 겪는 갈등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27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은 타협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달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곧 화해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다툼이 계속 되자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과수원으로 나간 후에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고 있는 엄마가 왠지 두렵다고 하였다.
 ②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갈취했다'라는 특정 단어이다.
 ④ '엄마'는 아들의 편지를 갈취했다는 점을, '아버지'는 '갈취'라는 말을 취소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⑤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 상황은 '아버지'가 '아저씨'를 대접할 매실주와 안주를 가지고 과수원으로 나가면서 일단락되었다.

28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에서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는 근본적 원인은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무르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나'는 '엄마'가 자존심 때문이라도 꼭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리를 피해 주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나'는 '엄마'와 '아버지'의 다툼이 끝나자마자 과수원으로 걸음마. 날 살려라. 하며 뺑소니를 쳐. '나'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엄마'가 혼자 있어야 참았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부분에서 '나'의 속 깊은 면모가 드러나.

30 **서술형**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아저씨'에 대한 말은 입 끝에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아저씨'가 바로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거름을 내는 척하면서 집 안의 상황에 낯낱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아저씨'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는 ㉠과 같이 행동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아저씨'가 '엄마'와 '아버지'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

31 '아버지'와의 갈등 후에 '엄마'는 '나'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하면서 '미옥'이 보낸 편지를 돌려주고 말없이 집을 나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 오답인 이유** ② '아저씨'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아버지'이지, '엄마'가 아니다.
 ③ '엄마'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나'에게 돌려주었고, '미옥'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
 ④ '아버지'가 '엄마'에게 질문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엄마'가 '아버지'에게 집안일을 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

32 '나'는 '엄마'를 슬프게 한 '아버지'에 대한 모종의 반항의 몸짓으로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아저씨'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지만, 이 때문에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한 것은 아니다.
 ② '나'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못 들은 척한 것이다.
 ③ '나'가 배나무의 가지를 친 것은 괜히 어색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이로 인해 바빠서 대답을 못한 것은 아니다.
 ④ '나'는 '엄마'가 울 것 같아서 과수원으로 자리를 비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33 **서술형** ㉠은 '아저씨'가 처음 방문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의 초라한 술상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는 '아저씨'가 더 이상 손님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족들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썼다.	☐
'아저씨'가 더 이상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썼다.	☐

34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하며 미안해하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아저씨'가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미안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아저씨'는 '나'의 집의 형편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⑤ '아저씨'는 조카인 '나'가 자신 때문에 눈치를 보며 지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5 '미옥'은 '나'에게 쓴 편지에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오늘 학교 끝나고 교회 뒤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러면 네 마음을 받아 줄게. 오늘도 안 나온다면 너완 이제 끝종이야.'라고 썼다. 그러나 '나'가 편지를 본 것은 '미옥'이 말한 '오늘'이 한참이나 지난 후로, '나'는 '미옥'이 편지에 적은 날에 교회 뒤 느티나무 밑으로 가지 못했다.

36 '나'는 모든 것은 '엄마'의 소원대로 되어 가는 셈이라고 하며, '엄마'가 집을 나가는 강수를 써야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중국 형님을 이제 그만 내보낼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내 편지를 '엄마'가 읽어 보고 이미 시효가 지난 편지임을 확인하고 돌려준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 생각하는 '엄마의 소원'은 ㄱ, '아저씨'가 집을 나가는 것, ㄴ, '나'와 '미옥'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7 '나'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외롭고 '엄마'가 그리운 마음과,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 버린 것이 아쉽고 막막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 '나'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께 죄송해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인 이유** ①, ② '나'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엄마' 없는 집 안이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다.'라고 하였다. 즉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엄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③ '나'는 '미옥'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 줄 여자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막막하기 짝이 없다고 하였다. 즉 '나'의 '눈물 한 줄기'에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막막한 심정이 담겨 있다.
 ⑤ '나'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며 '눈물 한 줄기'를 흘리고 있다.

38 **서술형** '나'는 '엄마'와 '미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고,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나'의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여 '나'의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여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이 소설에서 '한숨 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왜냐하면 '나'가 자신과 같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 때문이야. '나'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그를 이해하고, '아저씨'에게 연민을 갖게 돼.

39 [A]에서 「림해설원」은 과수원 가득히 하얀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밤 풍경의 아름다움을 '아저씨'가 영화 「림해설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곳에 무투팡자 한 채 짓고 평생 살고 싶다는 그의 말을 통해 '아저씨'가 낭만적인 공간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아저씨'와 '나'는 각자의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② 「림해설원」이 영화 제목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아저씨'가 많은 영화를 즐겨 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아저씨'가 고향인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공간을 꿈꾸는 것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아저씨'는 낭만적인 공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였을 뿐, 과거에 살았던 곳을 잊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40 '아저씨'는 '나'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답답하게 전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저씨'의 막내 이모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외삼촌은 집을 떠나는 등 그의 가족들이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저씨'가 한국에 오기 전은 복선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을 적인데, 단둥에서 기적처럼 외삼촌을 만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아저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생스럽게 살아왔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41 가족들이 '아저씨'의 “~도 차암.”이라는 독특한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저씨'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에게 익숙해졌다는 의미와도 같다.

오답인 이유 ② '나'의 가족들이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은 '아저씨'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나'의 가족들은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함으로써 그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④ '나'와 '엄마'는 처음에 '아저씨'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말투를 따라하는 행동을 보이며 그를 점점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⑤ '나'의 가족들이 '아저씨'에게 본받을 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아저씨'는 '엄마'가 '아버지'와 갈등 후에 집을 나가자, 자신 때문에 '엄마'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의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집을 떠난다.



완자쌤의 풀이

'아저씨'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이 불러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즉 부모님의 갈등은 일가인 '아저씨'를 더 이상 집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든 거야.

43 '나'는 일 년 전에는 '나'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현재는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나'는 부모님을 갈등하게 만든 '아저씨'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③ '나'는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④ '나'는 '아저씨' 때문에 '미옥'과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미옥'을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성장하였다.

⑤ '나'는 지금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아저씨')의 외로움이 이제서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이라 하였다. '아저씨'와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해 아쉬웠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

44 이 작품의 '나'는 일가인 '아저씨'가 집에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작품 안에서 보고, 말하는 입장이다. 특히 '나'는 아직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으로 어른들의 심리를 나름대로 추측하고는 있으나 인물들의 심리를 속속들이 헤아려 사건의 의미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아직 판단이 미숙한 열여섯 살의 청소년이다.

② '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나타낸다.

③ '나'는 성장하면서 '아저씨'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이 작품은 청소년인 '나'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일가 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 하고 있다.

45 '아버지'는 일가인 '아저씨'를 금방 잊고 무심하게 지내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056~061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①	07 편지 / 연애편지	08 ②	0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③	14 ①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눈물	21 ①			

01 이 글의 발단 부분에서는 '나'가 '미옥'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사건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서술되고 있다. 즉 (가)~(라)는 '봄 방학을 한 날('미옥'에게 답장을 받은 날) → 지난주 월요일('미옥'에게 편지를 보낸 날) → 봄 방학을 한 날('미옥'에게 답장을 받은 날)'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라)의 '우리 집은 따로 대문이 없다. 그냥 ~ 나온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③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일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독자들은 '나'의 내면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④ '미옥'과 결혼하고 싶은데 빨리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분하다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보아, '나'는 순수함을 간직한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설 구성의 유형

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구성하는 방식
역행적 구성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구성하지 않고 시간 순서를 바꾸어 구성하는 방식
액자식 구성	하나의 바깥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포함시켜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
삽화식 구성	전체 이야기에 짧은 토막 이야기를 끼워 넣는 방식

02 (나)에서 '나'는 겨울 방학 내내 미옥이만 생각했지만, 그런 말은 쪽 빼고 방학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3학년에 올라가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과 함께 편지 끝에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므로 ⑥는 적절하지 않다.



완자씨의 풀이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생각을 했어.'는 '나'가 '미옥'을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야. 그런데 이 글에서 '나'는 편지 끝에 슬쩍 혹시 나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다고 했어. 즉 '나'는 '미옥'을 좋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지.

03 '나'는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재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의 말투를 들은 후에는 '왠지 무서워졌다'고 하였다. 그의 옷차림이 자꾸 신경 쓰였다는 '나'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남자'가 뒤에 서서 킁킁 웃을 때 '나에게는 분명히 비웃는 것으로 들렸다.'라고 하였다.

③ '나'는 '남자'가 "야야, 너 어데로 갑네?"라고 말하자, 그를 간접으로 오해하여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④ '나'는 '남자'를 만나 오늘 특별히 좋았던 기분도 많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였다. '나'가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았던 것은 '미옥'에게 답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⑤ (라)에서 '나'는 '남자'를 보면서 '진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04 (가)에서 '아저씨'는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조선족'이 주 노동자라고 하였다. 즉 그가 한국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이며, 가족이 그리워 한국에 들어와 산 것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아저씨'가 중국 생활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중국에서 살다 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아저씨'는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라고 하였다.

④ (나)에서 '아저씨'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 소먹이를 주고 바닥을 청소하고, 과수원에 거름을 내는 등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엄마'에게 날마다 술을 달라거나 옷을 빨아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저씨'는 상대를 스스로없이 대하는 낙담스러운 면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아버지'는 소들에게 먹이를 주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즉 '아버지'도 '아저씨'와의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아저씨'는 온 식구가 끔찍 못하도록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이로 보아, '아저씨'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기분이 좋으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엄마'가 "과일이란다."라고 말한 것은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그만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④, ⑤ '나'는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옥'이 보낸 편지만 생각하고 있다.

06 이 작품의 제목은 '일가'인데, 이 글에서는 가족들이 일가인 '아저씨'를 진정한 일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불편해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즉 '일가'라는 제목에는 '일가'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7 서술형 (가)에서 '엄마'는 '나'에게 온 편지를 압수하고, 스무 살 이후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다. 반면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하냐고 하면서 '엄마'와 가치관 차이를 드러내고, 이는 결국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이 글의 소재 중 편지(연애편지)는 '엄마'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 주고, 두 사람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08 '엄마'와 '아버지'는 표면적으로는 '엄마'가 '나'의 편지를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버지'가 갈취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9 (나)에서 '나'는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 소설의 주인공은 갈등 속에서 자아를 탐색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는데, (나)에서의 '나' 역시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성장 소설의 특성을 드러낸다.

10 ㉠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아저씨'의 말을 보면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나'는 (가)에서 '아저씨'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고 있는데, 이때 '거, 아저씨도 차암.'이라며 '아저씨'의 말투를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다. 또한 '나'는 (가)를 통해 '아저씨'가 힘들게 살아왔음을 알게 되고, 뒷부분에서는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린다. 따라서 (가)에서 '아저씨'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나'가 '아저씨'를 이해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12 (나)에서 '아버지'는 '아저씨'에 대해 말하는 '나'에게 "누구?"라고 하며 '아저씨'를 잊은 듯이 말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냐는 질문에는 "위낙에 형님들이 많아서 말이지."라고 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13 ㉠에서 '나'가 '당숙'인 '아저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가 일 년 전과 다르게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나'의 정신

적 성장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아저씨'를 떠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저씨'와의 추억에 대한 후회나 반성의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의 눈물은 남의 외로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흘리는 것으로, 현대인들의 이기심과는 관련이 없다.
 ④ '나'의 눈물은 '미옥'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흘린 것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순수한 첫사랑의 기억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가 '아저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나'의 정신적 성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순수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4 ㉔는 '아저씨'의 이야기 중 언급되는 '아저씨'의 외삼촌을 지칭한다. 한편 ㉕는 외삼촌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를 지칭하고, ㉖의 '일가'와 ㉗의 '그 형님' 또한 예전에 '나'의 집에 머물다 갔던 '아저씨'이다. ㉘의 '어떤 한 사람'도 '나'가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문장에서 쓰인 것으로, '아저씨'를 지칭한다.

15 이 글을 서술하고 있는 '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 인물도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엄마'와 '아버지'이다.

- 오답인 이유** ①, ② (다)에서 '나'는 사건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가족 이기주의의 문제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③ '나'는 (다)에서 자아를 깊이 있게 탐색하며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나'는 '엄마'의 심리를 추측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16 (가)에서 '엄마'와 '아버지'는 '아버지'가 쓴 '갈취'라는 단어로 서로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죄책감을 느낀 '아저씨'가 '나'의 집을 떠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일가'에 대한 정이 사라지는 현대 사회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17 [A]는 '나'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고, <보기>는 [A]와 같은 사건을 '엄마'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즉 사건을 서술하는 주체가 '나'에서 '엄마'로 달라졌으므로, [A]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엄마'의 심리를 <보기>에서는 알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A]에서는 '엄마'가 돌아온 날의 '나'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어, <보기>는 [A]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돌아온 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엄마'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어,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가 바뀌면 알 수 없었던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 또한 달라지게 돼.

18 (가)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나'로 순수함을 간직한 청소년이다. '나'는 사건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세속적인 어른인 '나'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민지'를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모두 '나'로, 모두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다.
 ② (가)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특정 인물인 '나'로, 다수의 인물이 아닌 한 명이다.
 ③ (나)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민지'를 보면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간접적으로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순수한 '민지'의 말에 감동하여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을 뿐,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완자쌤의 풀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화자'라고도 해. 화자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이 전달하려는 생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대리인이자. 화자는 시 속에서 '나', '우리' 등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나)에는 '나'가 직접 드러나 있어. 즉 화자가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19 (가)에서 '나'는 중학교 시절을 지나 곧 고등학생이 된다. 중학교 삼 년을 돌아보던 '나'는 자신이 '미옥' 때문에 울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똑같이 '미옥'을 생각하는데도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학교 삼 년을 보내고 곧 고등학생이 되는 '나'는 '미옥' 대신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 서술형

(가)의 앞부분에서 '나'는 '미옥'과 헤어짐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난 후 '나'는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나'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소재는 '눈물'이다.

21 ㉠을 보고 말하는 이인 '나'는 잡초라고 생각하고, '민지'는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것도 아름답게 보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지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인 이유** ② 이 시의 '나'는 ㉠을 보잘것없는 잡초라고 생각하고 왜 물을 주냐고 물어보고 있다.
 ③ '민지'는 ㉠을 꽃이라고 표현하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④ 어른들은 잡초라고 생각하는 ㉠을 꽃이라고 부르는 '민지'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을 꽃이라고 표현하는 '민지'로 인해 때 묻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2) 공감하며 듣기

소단원 평가

073쪽

01 ⑤ 02 ④

03 • 소극적 들어 주기: ㉠, ㉡ • 적극적 들어 주기: ㉢, ㉣

01 (가)에서 ‘윤하’는 ‘민재’의 상황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으므로 ‘민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나)에서 ‘선생님’은 ‘민정’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적 듣기 방법을 활용하여 ‘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선생님’이 ‘민정’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민정’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바라보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선생님’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민정’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가)에서 ‘윤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못 봤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민재’에게 자신까지 기분이 우울해 진다는 답을 하며 면박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윤하’가 ‘민재’의 처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민재’는 ‘윤하’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네가 웅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서 속상한가 보구나.”와 같이 ‘민정’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리는 공감적 듣기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④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도현’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02 ‘선생님’은 ‘민정’의 속상한 마음과 고민에 공감하며 ‘민정’과 대화를 나누는 데 반해, ‘윤하’는 ‘도현’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이 ‘윤하’에게 상대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한편 ‘윤하’는 비속어를 쓰거나 근거 없이 주장을 내세워 ‘민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03 **서술형** ㉠(‘민정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나 ㉡ “응, 계속 이야기해 봐.”는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화 맥락을 조절해 주는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 “그러니까 네가 웅기 내서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현이가 반응이 없어 속상한가 보구나.”는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 “그런데 민정아, 혹시 도현이가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봤니?”는 말하는 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 ㉣은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 해당한다.

(3) 책 속 인물과 대화하기

소단원 평가

081쪽

01 ④

02 ②

03 ②

04 책을 훑어보면서 내

용 예측하기 05 ⑤

01 독서 일지는 책을 효과적으로 읽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므로, 한 번에 몰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읽은 부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은 책 읽기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친구와 함께 읽을 책 고르기’는 읽기 전 활동, ‘등장인물에 집중하여 책 읽기’는 읽는 중 활동, ‘책 읽기 경험 나누기’는 읽은 후 활동에 속한다.

②, ③ ‘친구와 함께 읽을 책 고르기’ 단계에서는 모두 구성원과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게 되므로,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작품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감명 깊게 읽은 작품도 고려하게 된다.

⑤ ‘책 읽기 경험 나누기’ 단계에서는 모두 구성원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상 경험을 나누게 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공감하거나, 자신과 다른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므로 감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02 친구와 함께 읽을 책을 고를 때에는 자신들의 배경지식이나 읽기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담은 작품을 고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독서 일지에는 ‘작품 제목, 회차, 읽은 날짜, 쪽수’와 같이 책의 정보에 관한 것이나 ‘등장인물의 상황, 등장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 중 인상 깊은 것, 등장인물을 보며 느낀 점,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와 같이 작품 감상에 관한 것을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집필 기간’은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며,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독서 일지의 항목으로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형** 책의 제목과 삽화(표지)를 훑어보며 책이 어떤 내용일지 예측하며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읽기 전 단계 중 ‘책을 훑어보면서 내용 예측하기’ 활동에 해당한다.

05 ‘경미’가 보낸 메시지에는 ‘나는 얼마 전에 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오래 전에 읽은 책의 내용을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주인공이 힘들어한 내용만 제시되었을 뿐, 이를 부조리한 사회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부족하다.

오답인 이유 ① 책 속 인물인 ‘천지’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라고 하였으므로 ‘경미’가 등장인물이 겪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도 많이 반성했어. 내가 가볍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이라고 하였으므로 '경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으로 나는 친구에게 늘 신중하게 말을 하려고 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모른척하지 않을게.'라고 하였으므로 '경미'가 행동의 변화를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경미'와 같이 책 속 인물에게 공감하는 태도로 책을 읽으면 등장인물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경미'는 자신이 읽은 책의 등장인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이는 책 속 인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것으로, 그 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대단원 평가



088~093쪽

01 ③	02 ⑤	03 그러면서 벌써 얼굴에 수심이 깔리고 있었다.	04 ⑤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멀치 한 주먹과 고추장 종지		13 ④	14 ①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①		
20 ④	21 ⑤	22 ⑤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여 주인공의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하는 것으로 주인공의 심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의 후반부에는 '나'가 부모님의 갈등 상황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사건을 객관적이지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02 '나'가 설레는 기분을 느낀 것은 '미옥'에게 답장을 받아 이를 읽을 생각에 들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 편지를 바로 뜯지 않고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려 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가)에서 '나'는 '미옥'에게 좋아한다는 말은 썩 빼고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편지 끝에 자신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옥'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미옥'과 결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03 **서술형** '엄마'는 친척인 '아저씨'를 손님으로 깎듯이 대접하지만 '아저씨'의 방문이 달갑지가 않다. 이는 '아저씨'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퍼면서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깔렸다는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04 '아버지'와 '아저씨'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사진이라도 찍어 줘야 하나며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모습에서 '나'가 '아버지'와 '아저씨'의 만남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나)에서 '아저씨'는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이주 노동자로, '나'의 가족들은 '아저씨'가 한국에 들어와 산 이야기를 듣느라 온 식구가 꼼짝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하였으므로 '아저씨'가 한국에 진작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아저씨'는 말하자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아저씨'가 자신에게는 사촌 형님이며 '나'에게는 당숙이라고 소개하였다.

④ (가)에서 '나'에게 절을 시킨 후 옆드려 절 받아먹기가 이런 것이라며 웃는 '아저씨'의 모습과 (라)에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치는 모습을 통해 '아저씨'가 넉살이 좋고 스스로없이 상대를 대하는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아저씨'가 조선 민족의 인사법을 말하며 '나'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아저씨'가 우리 민족의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06 (다)에서 '나'는 '아버지'가 소먹이를 주는 일을 시키자 냉큼 일어난다. 이는 불편한 '아저씨'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고, 소먹이를 주고 나면 '미옥'이 보낸 편지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일을 넘겨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반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아저씨'는 '엄마'가 내어 준다는 과일도 마다하고 '아버지'도 놓아주지 않은 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느라고 흥분해 있다.

② '아버지'는 우사에서 소가 밥 달라고 매어거리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③ '엄마'가 "과일이라도."하면서 일어나려 했던 것은 핑계를 대서라도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뜨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저씨'가 극구 만류하는 통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④ '나'는 적당한 때를 봐서 슬쩍 일어나서야지 생각하며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미옥'이 보낸 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뒤이어 소먹이만 주고 나면 내 방에 들어가 '미옥'이 보낸 편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07 '아저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 놓는 작업복을 입고서 소먹이를 주고 바닥을 청소하고 과수원에 거름을 내고 했던 것은 '나'의 집에 좀 더 머물 생각으로 어떤 일이트 찾아 하려 한 것이다.

- 오답인 이유** ① ‘아저씨’가 한 일은 ‘나’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⑤ 이 글에 ‘나’의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아버지’가 일손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아저씨’는 ‘나’의 집에 방문한 다음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엄마’가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08 (가)~(라)는 ‘과거’, (마)~(바)는 ‘현재’의 이야기이므로 과거에서 현재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오답인 이유** ① 이 작품은 인물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② 이 작품은 일가인 ‘아저씨’가 ‘나’의 집을 방문했다가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으로 집을 떠나는 사건을 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서술자를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어른들의 세계를 그려 내면서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은 ‘일가’라는 제목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다양한 표현 방법

반어법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하는 방법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듯이, ~처럼, ~같이’의 말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A는 B이다’의 방식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
설의법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점층법	어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의미나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표현 방법

09 ‘나’는 1년 전인 중학교 3학년 때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현재는 ‘나’의 당숙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아저씨’가 느꼈을 외로움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이성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아픔만 중요시하던 ‘나’가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아저씨’가 집 안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저씨’는 자신으로 인해 ‘엄마’와 ‘아버지’가 대립하고 있음을 짐작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저씨’가 ‘나’의 집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④ ‘아버지’는 ‘아저씨’와 함께 살며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익숙해졌기에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하게 된 것이다.
 ⑤ ‘아버지’가 ‘아저씨’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1년 후 ‘나’는 ‘아저씨’의 외로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려. 그리고 이 눈물은 ‘미옥’을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것임을 깨닫게 돼. 그러면서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지.

10 소설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는 모두 ‘나’로, 작품 안에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는 것이기에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완자쌤의 풀이

이 작품에서는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는 존재와 이야기를 읽는 이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는 ‘나’로 동일해. 그리고 이 ‘나’는 주인공으로 작품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줘. 하지만 독자는 ‘나’가 보고 느낀 것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전달된다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이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 보고 이러한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야.

11 ‘엄마’는 겉으로는 ‘갈취’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지만, 그 이면에는 ‘아저씨’를 빨리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느끼는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아저씨’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12 **서술형** (다)에서 ‘아저씨’가 온 첫날과 그다음 날 정도만 손님 대접을 받았다고 하였다. ‘너무 오래되어서 소금기가 버섯버섯 올라온 멀치 한 주먹과 밥풀이 섞여 있는 지저분한 고추장 종지’는 초라한 술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저씨’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13 이 시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

- 오답인 이유**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잡초도 ‘꽃’이라고 말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보면서, 세속적인 때가 묻어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 달령 집 한 채 짓고 살려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에서 이 시가 말하는 이의 일상적 체험을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이는 ‘풀, 잡초’라고 여기며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민지’는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⑤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원래 거기다 물을 주니? /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와 같이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14 말하는 이는 잡초도 ‘꽃’이라고 말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다. 말하는 이가 ‘민지’에게 “그건 잡초야.”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고,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15 (가)에서 '형'은 '동생'이 자신의 고민을 어렵게 이야기했는데도 고개도 들지 않고 탄짓을 하다가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을 한다. 이와 같이 '형'이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② (나)에서 첫 번째 사람은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야 할지를 묻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지내야 할지를 묻고 있다.

③ (나)에서 '황희 정승'은 제사를 지낼지 말지를 묻는 두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에게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답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답하고 있다.

④ (다)에서 '선생님'은 '민정'에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고, 머뭇거리는 '민정'에게 선생님이 도와 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민정'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⑤ (다)에서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도현'에게 돌아 있을 때 다시 말을 걸어 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따라서 '민정'이 '선생님'과 대화 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기분 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16 (가)의 '동생'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형'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형'이 이러한 '동생'의 마음이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태도로 답을 했기 때문에 둘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형'은 '동생'의 축구부 가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조언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은 '동생'의 축구부 가입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말에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동생'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 이긴 하지만, 듣고 싶은 답을 정해 놓고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다. '동생'은 '형'이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로 말을 했기에 '형'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⑤ '동생'은 '형'에게 자기의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고 있을 뿐, '형'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17 '황희 정승'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두 사람에게 다른 답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다른 답을 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 답을 한 것이므로 두 사람은 '황희 정승'에게 답을 얻은 후 만족스러워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④ 두 사람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상황에서 제사라는 예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 '황희 정승'에게 묻고 있다.

⑤ '황희 정승'의 부인은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 제사를 지낼지 말지를 고민하는 두 사람에게 다른 답변을 하는 '황희 정승'의 태도를 의아해하고 있다.

18 (다)에서 '선생님'은 고민이 있어 보이는 '민정'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민정'이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선생님'은 "민정이가 도현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라고 말하며 '민정'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19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말에 감춰진 속내를 고려해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지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법보다 각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임을 알 수 있다.



완자뱀의 풀이

두 사람의 고민 내용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의 질문을 볼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첫 번째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겠지요?"라고 묻고 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라고 묻고 있지. 이 점에 주목하면 '황희 정승'이 다른 답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20 ㉠은 말하는 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챌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을 통해 '민정'은 '도현'이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 것을 떠올리고 자신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완자뱀의 풀이

대화의 원리 중 '순서 교대의 원리'는 의사소통의 상황에 맞게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역할이 원활하게 교대하는 것을 말해, 즉 상대의 말을 가로채는 경우,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어. 이 경우는 '민정'이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에 해당하므로 '민정'의 말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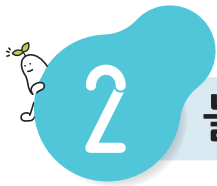
참고 자료

정보 전달을 위한 표현

언어적 표현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
준언어적 표현	말하는 속도, 어조, 억양 등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비언어적 표현	표정, 손짓, 시선 등 언어 외의 수단을 통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21 노래 대회에서 탈락한 친구에게 좀 더 연습해서 다음번에는 실력을 발휘하자고 말하는 것은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보기>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한 것으로, 등장인물인 '완'의 상황과 감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에 공감하며 작품을 감상하면 다른 이의 삶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1) 한글의 창제 원리

학인 문제

● 100~108쪽

- 100쪽 | 1 한글 2 ①
101쪽 | 3 ②
102쪽 | 4 ④ 5 ①
103쪽 | 6 ㉠: 하늘, ㉡: 땅, ㉢: 사람 7 ③
104쪽 | 8 ⑤ 9 ②
105쪽 | 10 ④ 11 △, ○, ◌, ◌
106쪽 | 12 ⑤
107쪽 | 13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14 ④
108쪽 | 15 ㉠: 음소, ㉡: 음절 16 ③

1 **서술형** 제시된 글에서 학생들은 과거의 '세종 대왕'을 만나 한글이 만들어지고 600년 정도 후의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서, 한 나라의 군주인 '세종 대왕'이 직접 글자를 만든 것에 대해 묻고 있다.

2 '세종 대왕'의 말에 따르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②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하였다.

③ 우리 고유의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 대왕'이고, 그 이전에 양반들은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썼다.

④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⑤ 대부분의 백성이 글을 읽지 못했고,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글자를 배울 필요는 있지만 배우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글 창제 과정 중 일부 신화가 한글 창제로 인한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글은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제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한글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로, 다른 글자를 모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낸 글자이다.

5 'ㄱ'은 어금닛소리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6 **서술형** 한글 모음의 기본자는 자음과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아래아)', 'ㅡ', 'ㅣ'가 만들어졌다.

7 가획자는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로,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세지는 특성이 있다. 제시된 자음자 중, 'ㄹ'은 가획자가 아니라 기본자에 해당한다.

8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를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다.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초출자 'ㄱ, ㅋ, ㆁ, ㆁ', 재출자 'ㆁ, ㅅ, ㅈ, ㅊ'를 만들 수 있을 뿐이므로 엄청나게 많은 재출자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초출자와 재출자 외에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쓰는 방법을 사용해 '나, ㄴ, ㄷ, ㄹ, ㄷ, ㅈ, ㅊ, ㅈ, ㅊ, ㅈ, ㅈ, ㅈ, ㅈ, ㅈ, ㅈ' 등과 같은 글자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9 모음자 'ㅏ'는 초출자에 '·'를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 'ㅏ'에 다시 'ㅣ'를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10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한 덩어리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담고자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이다.

11 **서술형** 현재 사용되는 한글의 자모는 24개로, 자음자 14개('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와 모음자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세종 대왕'이 창제한 자모 중에서 '△(반치음)', '○(여린히움)', '◌(옛이음)', '◌(아래아)'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12 모음자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기본자 '·'와 'ㅡ'의 합성으로 'ㄱ, ㅋ'를, '·'와 'ㅣ'의 합성으로 'ㅏ, ㅑ'를 만들었다. 초출자 'ㄱ, ㅋ, ㆁ, ㆁ'에 '·'를 합성하여 'ㅅ, ㅈ, ㅊ, ㅊ'를 만들었는데, 이는 두 번 합성하여 거듭 생겨난 것이라 하여 재출자라 하였다. 따라서 초출자는 기본자를 두 개 사용한 것이고, 재출자는 기본자를 세 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서술형** 'ㄹ, ㅍ, ㅍ, ㅍ'는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14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에는 '나, ㄴ, ㄷ, ㄹ, ㄷ, ㅈ, ㅊ, ㅈ, ㅊ, ㅈ, ㅈ, ㅈ, ㅈ, ㅈ, ㅈ'가 있다. 모음 'ㅏ'는 초출자 'ㅏ'에 '·'를 다시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15 **서술형** 한글의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음소 단위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한 덩어리로 소리 나므로 이를 적을 때에는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게 하였다.

16 한글은 한 나라의 군주인 '세종 대왕'이 직접 창제한 글자로, 백성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

116~119쪽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② | 04 백성을 가르치는 바 |
| 른 소리 | 05 ④ | 06 ④ | 07 ④ 08 ① |
| 09 ③ | 10 ② | 11 ② | 12 ⑤ 13 ④ |
| 14 ④ | 15 ④ | | |

01 (나)에서 ‘나뿐만 아니라 정인지, 최항, 신숙주 등을 비롯한 훌륭한 학자들이 함께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백성에게 반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한글은 ‘세종 대왕’ 혼자서 창제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2 기회가 없어 수만 자에 이르는 한자를 익히기 어려웠던 것은 양반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이다.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낼 수 없어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03 일부 신하들은 백성이 글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글 창제를 반대하였다고 하였다. ‘세종 대왕’이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백성을 통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세종 대왕’은 백성이 글을 배워 책을 읽고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기를 바랐다. 이를 통해 ‘세종 대왕’이 나라의 근간인 유교적 이념을 토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 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을 말한다.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운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참고 자료

05 자음의 기본자 중에서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이에 닿는 혀끝의 모양과는 관련이 없다.

06 ‘_’는 허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얇지도 않게 나는 소리이다.

07 ‘ㅈ(여린히읃)’은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것으로,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ㅇ(옛이읃)’, ‘ㄹ’, ‘ㄷ(반치읃)’이 각각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이지만 소리가 세지는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체자’로 분류되는 글자들이다.

08 모음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인 ‘·(아래아)’, ‘ㅡ’, ‘ㅣ’를 만들고, 기본자 ‘·’와 ‘ㅡ’를 합성하여 ‘ㅏ, ㅑ’를, ‘·’와 ‘ㅣ’를 합성하여 ‘ㅓ, ㅕ’를 만들었다. 이때 ‘ㅓ, ㅓ, ㅑ, ㅕ’를 초출자라고 한다. ‘ㅡ’는 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음의 기본자이다.

09 한글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인 글자로 평가받는다. 즉, 글자를 만든 방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10 (나)에 따르면, ‘ㄱ’은 ‘ㄱ’과 ‘ㄴ’을 더하여 ‘ㄲ’을 만들고, ‘ㄲ’에 다시 ‘ㄴ’을 더하여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과’는 ‘丩’와 ‘ナ’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③, ⑤ ‘ㅅ’은 자음자 둘을, ‘ㅆ’은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④ ‘봉’은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illegible]

12 한글은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문자이므로, 모든 종류의 언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문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과서 연구 ① (가)에서 '세종 대왕'이 앞으로는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면서, 한글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고 한글의 가치를 알고 이를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가)에서 '세종 대왕'이 한글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으므로 한글이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컴퓨터나 휴대 전화에서 한글 자판의 입력 속도가 빠르며,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하다고 하였으므로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 그 쓰임이 더욱 빛남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학생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사용하고,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글이 배우기 쉬운 글자로,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3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기 편한 글자라는 데서 실용적이며,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분명하여 새롭게 만들어 낸 글자라는 데서 독창적이다. 특히 (가)에서 ‘세종 대왕’은 중국 문자에 기대어 살았던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글의 자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글이 한자의 형태를 변형한 것은 아니다.

14 (나)에서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위

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 타자 속도가 알파벳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적은 조작 단추 수로 휴대 전화 입력이 빠르다는 점,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한글 정보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15 표에서 로마자의 'a'는 모두 다르게 발음되는 데 반해 'ㅏ'의 발음은 모두 같아 한글 모음은 거의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올바른 발음과 표기

확인 문제

● 121~128쪽

- 121쪽 | 1 ③
122쪽 | 2 ④ 3 ㉠: 올, ㉡: 닥따, ㉢: 나무숲
123쪽 | 4 ②
124쪽 | 5 ⑤ 6 무니
125쪽 | 7 ③
126쪽 | 8 ① 9 ②
127쪽 | 10 반드시 → 반듯이
128쪽 | 11 ㉠: 안, ㉡: 돼

1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밭에'는 [바테]로 발음해야 한다.

2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따라서 받침 'ㅅ'은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발음해야 한다.

3 **서술형** '웃'의 받침 'ㅅ'은 'ㄷ'으로 바꾸어서 [웁]으로 발음하고, '닭다'의 받침 'ㅈ'은 'ㄱ'으로 바꾸어서 [닥따]로 발음한다. 마지막으로 '나무숲'의 받침 'ㅍ'은 'ㅂ'으로 바꾸어서 [나무습]으로 발음한다.

4 받침 'ㅍ'은 두 번째 대표음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훑'의 올바른 발음은 [훑]이다.

5 이중 모음 'ㅏ'는 [ㅏ]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ㅏ'는 [ㅏ]로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ㅛ]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으나, '의의'의 첫음절인 '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⑤ [민주주의에 이이]는 올바른 발음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ㅏ'는 [ㅏ]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주주의의 의의]로 발음할 수 있다.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의 이이]로 발음할 수 있다.

③ 조사 '의'는 [ㅛ]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에 의의]로 발음할 수 있다.

④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의 의의]로 발음할 수 있다.

6 **서술형**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ㅏ'는 [ㅏ]로 발음해야 하므로 '무늬'의 올바른 발음은 [무니]이다.

7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어떤 단어인지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독서의 능력이 떨어지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표기하더라도 발음의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천천히 말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8 이 대화에서는 '선호'가 '단혀서'라고 표기해야 하는 상황에 '다쳐서'라고 잘못 표기하여 '윤하'의 오해가 생겼다. 따라서 '선호'가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9 '다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이고, '닫히다'의 사전적 의미는 '닫다[閉]의 피동사이다. 따라서 ②에서와 같이 '닫혔던 손가락'이라고 하면 문맥상 의미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다쳤던 손가락'으로 고쳐 써야 한다.

10 **서술형** '반드시'의 사전적 의미는 '꼭, 틀림없이'이고, '반듯이'의 사전적 의미는 '비틀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이다. 따라서 동생이 침대에 몸을 누이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는 '반드시'가 아니라 '반듯이'가 적절하다.

11 **서술형** ㉠에 '아니'와 '아니하-'를 넣어 보면 어떤 표기가 옳은지 알 수 있다. '나는 점심을 아니 먹을래.'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고, '아니하 먹을래.'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에는 '안'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되어'를 넣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에는 '되어'의 준말인 '돼'가 들어가야 한다.

소단원 평가

136~137쪽

- 01 ㉠: 실제 발음, ㉡: 합리성, ㉢: 서울말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불이 → 부치지 11 ②
12 ⑤ 13 ④

01 **서술형**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때 표준어의

실제 발음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가리킨다.

평가 기준	확인 ☒
㉓에 '실제 발음'이라고 정확히 썼다.	☐
㉔에 '합리성'이라고 정확히 썼다.	☐
㉕에 '서울말'이라고 정확히 썼다.	☐

02 제시된 상황은 남학생이 표준 발음법에 따라 '빛을'은 [비출]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이를 [비슬]이라고 잘못 발음하여 여학생은 이를 '빛을'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발음을 잘 못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발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완자맨의 풀이

여학생이 남학생의 말을 오해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 발음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을 발전시켜 보자.

03 <보기>는 받침을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웃이'의 'ㅅ' 받침은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지므로, [오시]로 발음해야 한다.

04 '겉'은 받침소리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겉]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⑤의 '겉으로만'의 '겉'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으로만'과 결합되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거트로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겉'의 받침소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⑤이다.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05 겹받침 'ㄹ'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음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외곶'의 올바른 발음은 [외골/웨골]이다.



완자맨의 풀이

표준 발음법 제3항에 의하면 단모음 'ㄴ'은 이중 모음인 '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외골/웨골]과 같이 발음하는 거야.

06 ㉓ '흙장난을'의 '흙'에서 겹받침 'ㄹ'은 대표음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흙장난을'의 올바른 발음은 [흑장나닐]이다. ㉔ '옹조릴'의 '옹'에서 겹받침 'ㅍ'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옹조릴'의 올바른 발음은 [옹조릴]이다. ㉕ '젊고'의 '젊'에서 겹받침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젊고'의 올바른 발음은 [젊:꼬]이다.

07 제시된 글에서는 이중 모음 'ㄴ'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의 '의리'는 자음을 첫소리로 하지 않으므로 [이:리]가 아니라, [의:리]라고 발음해야 한다.

① '사랑의'의 '의'는 조사이므로 [사랑에]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② '희망의'의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희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③ '떠어쓰기'의 '떠'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떠어쓰기/떠어쓰기]라고 발음해야 한다.

⑤ '협정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의'를 [의]로 발음하여 [협비]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08 '선호'는 문구점이 '하루의 영업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닫히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의미의 '다치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로 인해 '윤하'는 부상을 입은 '선호'가 병원에 다녀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닫히다'와 '다치다'는 뜻과 표기가 다른데 발음이 같은 단어이고, 이로 인해 '선호'와 '윤하'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09 '맞히다'는 '표적에 맞게 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 '눈·비·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와 같은 뜻의 단어이다. 그러나 ②의 밑줄 친 단어는 문맥상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맞히고'가 아닌 '마치고'가 적절하다.

① '눈·비·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③ '맞는 답을 내놓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④ '표적에 맞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0 **서술형** '붙이다'는 '붙게 하다.', '서로 맞닿게 하다.', '붙이어서 타게 하다.'와 같은 뜻의 단어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택배로 붙이지 않고'라고 하였으므로, 이때는 '붙이다'가 아닌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라는 의미의 '부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틀리게 쓴 단어인 '붙이지'를 찾아 썼다.	☐
'붙이지'를 '부치지'로 올바르게 고쳐 썼다.	☐

11 ㉓은 할머니께 드릴 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약재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또는 약제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라는 의미의 '달이다'가 적절하다. ㉔은 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비춘다고 하였으므로,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흩

어저 없어지다.'라는 의미의 '견다'의 피동사 '견히다'가 적절하다. ㉔은 축제에 모두가 흥미로워하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였으므로, '꼭, 틀림없이'라는 의미의 '반드시'가 적절하다.

12 '되'와 '돼'의 표기는, 그 자리에 '되어'를 쓸 수 있으면 '돼'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적는다. '안'과 '않'의 표기는, '안' 자리에 '아니'를, '않' 자리에 '아니하-'를 넣어 보면 어떤 표기가 옳은지 알 수 있다. ㉔의 '않은 듯'은 '아니한 듯'이라고 해도 자연스러우므로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13 ㉔은 '아니 좋아하는데'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안 좋아하는데'라고 써야 한다.

㉔은 '되어 버린 것이다.'라고 쓸 수 있으므로 '돼 버린 것이다.'라고 써야 한다.

㉔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않았다.'라고 써야 한다.

㉔은 '되어다며'라고 쓸 수 없으므로, '된다며'라고 써야 한다.

13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므로 '어떻해'가 아니라 '어떡해'라고 써야 한다.

대단원 평가



144~149쪽

- | | | | |
|------------------|--|----------------------------------|-------------|
| 01 ㉔ | 02 ㉔ | 03 애민 정신 | 04 ㉔ |
| 05 ㉔ | 06 ㉔ | 07 ㉔ | 08 ㉔ |
| 09 ㉔ | 10 나는 학교에 일찍 왔다. / 모아쓰기로 쓰면 단어나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장을 읽기가 편하다. 등 | 11 ㉔ | |
| 12 빛을[비출] | 13 ㉔ | 14 ㉔ | 15 ㉔ |
| 16 ㉔ | 17 ㉔, ㉔, ㉔ | 18 ㉔ | 19 ㉔ |
| 20 ㉔ | 21 ㉔ | 22 ㉔ | 23 ㉔ |
| 24 ㉔ | 25 ㉔ | 26 ㉔: 안, ㉔: 않, ㉔: 돼, ㉔: 되 | 27 ㉔ |
| 28 ㉔ | | | |

01 '학생 1'의 말에 따르면, 한글은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만든 글자이다(㉔). 또한 '세종 대왕'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로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였다(㉔).

02 제시된 그림에서는 백성이 한자를 몰라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한글 창제 이전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완자샘의 풀이

그림의 내용을 살펴볼까?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팻말에 적힌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나무를 베어 포졸에게 쫓기고 있어. 만약 백성이 한자를 알았다면 금지된 나무를 베는 죄를 짓지 않았겠지? 이처럼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는 한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단다.

03 **서술형**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 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 대왕의 마음, 즉 애민 정신이 담겨 있다.

04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ㄱ, ㄴ, ㄷ, ㄱ, ㅇ'를 만들었고, 이들 5개의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다른 글자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때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하다. 그러나 모음자의 경우 같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설명은 (가)~(다)에 제시되지 않았다.

05 (다)에 따르면 'ㅈ'은 'ㅅ'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이때 'ㅅ'은 혀의 바닥 모양이 아니라,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06 (다)에 따르면 '이체자'는 'ㅇ', 'ㄴ', 'ㅅ'에 각각 획을 더하여 만든 'ㅇ(옛이음)', 'ㄴ', 'ㅅ(반치음)'을 말한다. 이들은 다른 가획자와 달리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고(㉔), 이 중 'ㅇ(옛이음)'과 'ㅅ(반치음)'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㉔).

07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어금닛소리(㉔) 'ㄱ',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혀소리(㉔) 'ㄴ', 입의 모양을 본뜬 입술소리(㉔) 'ㄷ', 이의 모양을 본뜬 잇소리(㉔) 'ㅅ',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목구멍소리(㉔) 'ㅇ'이 자음자의 기본자이다. 즉, ㉔에는 '입소리'가 아닌 '입술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08 (나)를 통해 'ㅃ, ㅆ'은 자음자 둘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는 방식으로도 만들고, 자음자는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도 이용하여 만들었다. 한글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글자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문자이다.

참고 자료

한글의 특성

독창성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새롭게 만든 글자임.
과학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지님.
개방성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음.
효용성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음절을 표기할 수 있음.

09 (가)에 따르면, 기본자 'ㅇ'와 'ㄴ'의 합성으로 초출자 'ㄴ', 'ㄴ'을 만들었고, 여기에 'ㅇ'를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 'ㄴ', 'ㄴ'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10 **서술형** 제시된 문장은 풀어쓰기 방식으로 쓴 것이다. 이를 모아쓰기로 바꾸면 '나는 학교에 일찍 왔다.'이다. 이를

통해 소리를 내는 단위인 모아쓰기 방식으로 쓴 문장을 읽는 것이 더 편하고, 그 의미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모아쓰기 방식으로 '나는 학교에 일찍 왔다.'라는 문장을 썼다.	☐
문장을 읽기 쉽거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내용을 썼다.	☐

모아쓰기의 장점

초성, 중성, 종성을 늘어놓지 않고 자모를 가로세로로 묶어 쓰면 음소를 분석하지 않아도 음절 단위로 의미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1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면,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서로 비슷하여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반면 로마자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분리하지 않고 배치하였다. 따라서 한글 자판은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타자를 치는 속도가 로마자 자판보다 훨씬 빠르다.

12 **서술형** 표준 발음법 규정에 따르면,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 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빛을'은 [비슬]이 아닌 [비출]로 발음해야 한다. [비슬]은 '빛을'의 올바른 발음이다.

13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 표준어를 적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규범은 한글 맞춤법이다.

14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닭을'은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15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이다. '짚어서'는 흘받침 'ㅌ'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서'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규정에 따라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지퍼서]로 발음해야 한다.

16 ㄱ의 '곧'은 [곧]으로 발음되고, ㄹ의 '마음'은 [마음]으로 발음되므로, 밑줄 친 부분의 표기와 소리가 일치한다.

오답인 이유 ㄴ. '뭇'의 받침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뭇]으로 발음된다.

ㄷ. '빛고'의 받침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빈고]로 발음된다.

17 **서술형** 한글 종성에는 다양한 자음이 쓰이지만, 표준 발음법에 따라 그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만 발음한다. 받침 'ㄱ'은 대표음 'ㄱ'으로, 'ㅌ,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발음된다.

18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⑤의 '옴조리다'는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로, 'ㅍ'의 대표음인 'ㅂ'으로 바꾸어 [옴조리다]로 발음해야 한다.

19 겹받침 'ㄹ'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 'ㄹ'로 발음하지만, '넙-'은 '넙죽하다'와 '넙둥글다'의 경우 [넙]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⑤는 [넙쭈개서]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겹받침 중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 째개[째개], ② 앞지만[알:찌만], ③ 열개[열:개], ④ 넙지[넙찌]로 발음한다.

받침 'ㄹ'의 발음

받침 'ㄹ'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여 일반적으로 'ㄹ'로 발음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넙-'은 자음 앞에서 [넙]으로 발음하고, '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밭대[밭:따], 밭식[밭:쏘], 밭지[밭:찌], 밭는[밭:는 → 밭:는], 밭개[밭:개], 밭고[밭:꼬]
- 넙-죽하다[넙쭈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참고 자료

20 제시된 규정의 네 번째 항목에 따르면, 'ㄹ'을 받침으로 하는 용언의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 받침 'ㄹ'은 대표음 'ㄹ'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③의 '읽고'는 [일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첫 번째 항목의 설명에 따라 'ㄱ'을 대표음으로 발음하여 '닭과'는 [닥파]로, '맘지'는 [막찌]로 발음해야 한다.

② 두 번째 항목의 설명에 따라 'ㄹ'과 'ㄱ'을 모두 발음하되, 'ㄱ'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⑤ 세 번째 항목의 설명에 따라 'ㄹ'을 대표음 'ㄱ'으로 바꾼 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흐귀]로 발음해야 한다.

21 ④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리'는 이중 모음 'ㄴ'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이 규정의 예로는 '넙리리[넙리리]', '무늬[무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2 ㉡의 '담임'은 첫 번째 받침의 'ㅁ'을 연음시켜 [다님]이 아닌 [다뎌]로 발음해야 한다.

23 제시된 문장을 발음해 보면, 밑줄 친 부분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음과 어법을 모두 고려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쓴 것이다. 즉 밑줄

친 부분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쓴 것이 아니다.

24 ‘부치다’와 ‘붙이다’는 발음은 같은데 표기와 뜻이 다른 단어이다. ‘부치다’는 ‘힘이 미치지 못하다.’,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등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와 같은 뜻이 있고, ‘붙이다’는 ‘붙게 하다.’, ‘서로 맞닿게 하다.’, ‘붙이 옮겨서 타게 하다.’와 같은 뜻이 있다. ㉔에는 문맥상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등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의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붙이고’가 아니라 ‘부치고’가 알맞다.

오답인 이유 ① 문맥상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부치기’가 알맞다.

② 문맥상 ‘붙이 옮겨서 타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붙이니’가 알맞다.

③ 문맥상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부치기’가 알맞다.

④ 문맥상 ‘붙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붙이고’가 알맞다.

25 ‘거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라는 의미로, 유럽을 지나거나 들러 아프리카까지 돌아보고 여행을 끝냈다는 ㉔의 문맥에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문맥상 ‘닫다[關]’의 피동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닫혀’가 알맞다.

② 문맥상 ‘꼭, 틀림없이’의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가 알맞다.

③ 문맥상 ‘맞는 답을 내놓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맞혔다’가 알맞다.

⑤ 문맥상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겉잡아도’가 알맞다.

26 **서술형** ‘아니’가 줄어든 말은 ‘안’(㉑)이고, ‘아니하-’가 줄어든 말은 ‘않’(㉒)이다. 또한 ‘되어’가 줄어든 말은 ‘돼’(㉓)이고, ‘돼’를 쓸 수 없을 때는 ‘되’(㉔)로 적는다.

27 ㉒의 ‘되지만’은 ‘되어지만’으로 바꾸어 쓸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 ‘되지만’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8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이다. ‘웬지’는 잘못된 표기이므로, ⑤의 ‘웬지’는 ‘웬지’로 고쳐 써야 한다. ‘웬일’은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웬지’와 구분하여 올바르게 표기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안 될 일’은 ‘아니 될 일’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알맞다.

② ‘일어날게’의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알맞다.

③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알맞다.

④ ‘안 돼’는 ‘안 되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알맞다.

중간고사 1회



150~15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①	05 ②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④	13 ④	14 ①	15 ④
16 ④	17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ㄱ, ㅌ, ㅊ, ㅋ’가 있다. 재출자는 초출자에 ‘ㄹ’을 다시 합성하여 만든 글자로, ‘ㄲ, ㅈ, ㅊ, ㅋ’가 있다.			
18 ②	19 ①	20 ②	21 ③	22 ④
23 ①	24 ㉑: 반드시, ㉒: 반듯이	25 ①		

01 (다)에서 ‘아저씨’는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하였으므로, ‘아저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까닭이 자신 때문임을 짐작하고 있으며 이를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라)에서 ‘아저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자신 때문이라 여기고 새벽차를 타야 한다고 하며 아침도 먹지 않고 떠난다.

② (마)에서 ‘나’는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서 내게로 전해져 왔다’고 하며 ‘아저씨’의 외로운 감정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④ (가)에서 ‘아저씨’는 처음 보는 ‘아버지’를 반가워하며 ‘아버지’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에서 ‘엄마’와 ‘나’는 ‘아저씨’가 언제 집에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다.

02 이 글은 청소년인 ‘나’의 집에 일가인 ‘아저씨’가 찾아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나’의 좌절과 반성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은 청소년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 일가인 ‘아저씨’가 집에 찾아오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나’는 ‘아저씨’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작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소년인 ‘나’가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이 글은 일가인 ‘아저씨’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와 ‘엄마’의 모습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03 ㉔에서 ‘나’는 ‘아저씨’의 감정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는 안도감과 거리가 멀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된 ‘나’의 성장을 의미한다.

04 <보기>는 ㉔의 보거나 말하는 이를 ‘엄마’로 바꾸어 서술한 글이다. ㉔에서 ‘엄마’가 말한 내용만 드러났던 것과 달리, <보기>에서는 ‘나 때문에 떠나는 것 같아 잠깐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시원한 마음이 더욱 컸다.’라는 부분에서 ‘엄마’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5 (가)~(라)에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소재로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다가 ‘엄마’가 집을 며칠 동안 나가는 내용이 나타난다. 극적 반전이나 이를 통한 주제 전달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나’의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것을 두고 ‘엄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은 사춘기 청소년인 ‘나’가 ‘아저씨’의 방문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⑤ (다)에서 ‘나’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를 생각하며 ‘엄마’의 심리를 나름대로 추측해 보고 있다.

06 (다)에는 ‘나’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엄마’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 ‘아저씨’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07 (나)에서 ‘아버지’는 ‘미옥’에게 편지를 받은 ‘나’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며, 이 편지를 ‘엄마’가 뺏어 갔다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화를 낸다. 즉 ‘아버지’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가져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08 (다)에서 ‘나’는 ‘엄마’가 가출한 현재의 상황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다시 분석해 보려 하고 있다.

09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잡초도 ‘꽃’이라고 말하는 ‘민지’를 보면서,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즉 ‘민지’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꽃’과 ‘잡초’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꽃’으로 여기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순수한 존재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말하는 이가 제자를 찾아갔다가 ‘민지’를 만났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②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에서 대화의 형식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질경이, 나심개, 토끼풀, 역새……’와 같은 풀을 ‘잡초’로 바라보는 말하는 이와 ‘꽃’으로 바라보는 ‘민지’의 대조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④ 말하는 이는 순수하게 자연과 소통하는 ‘민지’의 말에 감동하여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10 말하는 이는 ‘내 말은 때가 묻어 /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라고 하며 ‘민지’의 말에 감동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말하는 이의 입이 다물어진 이유는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1 공감하며 듣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윤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는 ‘민재’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④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아쉽겠다.’라고 하며 ‘민재’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제시된 대화에서 ‘민정’은 ‘도현’과 다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호의를 표현했는데도 ‘도현’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13 ‘선생님’은 ‘민정’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공감적 태도로 들어 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은 ‘민정’에게 ‘도현’의 평소 성격을 떠올리게 하며 ‘도현’이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로, ‘민정’이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말이다. ㉡을 들은 ‘민정’은 ‘도현’이 속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고민을 해결한다. 따라서 ㉢이 ‘민정’의 기분을 바꾸기 위해 대화의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세종 대왕’의 말에 따르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썼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 창제 이전에도 우리 고유의 말은 있었으나, 표기하는 우리 고유의 글자가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5 (나)에서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였다. ‘·(아래아)’가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 ‘ㄷ’가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 ‘ㅣ’가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얇게 나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혀의 모양을 본뜬 것은 아니다.

16 ‘ㄱ’에 획을 한 번 더하면 ‘ㅋ’, ‘ㄴ’에 획을 한 번 더하면 ‘ㄷ’이 된다. ‘ㅌ’은 ‘ㄷ’에 획을 더한 것이므로, ‘ㄴ’에 획을 두 번 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서술형** 초출자와 재출자는 각각 기본자를 합성한 횟수가 다르다.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한 것이 초출자, 초출자에 다시 ‘·’를 합성한 것이 재출자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초출자의 제자 원리와 구체적인 예를 알맞게 썼다.	☐
재출자의 제자 원리와 구체적인 예를 알맞게 썼다.	☐

18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늘어놓지 않고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의미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묶지 않고 음소 단위로 쓰는 것은 로마자에 해당한다.

19 한글 모음자의 경우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고,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하다.

오답인 이유 ②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해서 컴퓨터 자판의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타자 속도가 빠른 것이다.

③ 한글 모음자의 경우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고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점 때문에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의 한글 정보화에 유리한 것이다.

④, ⑤ 현대 전화 자판에서는 8개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12개의 조작 단추 안에 자모를 배열한다. 이와 같이 조작 단추가 적어 입력 속도가 빠른 것이다.

20 한글 중성에는 다양한 자음이 쓰이지만, 표준 발음법에 따라 그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 자음으로만 발음한다. 따라서 ② ‘쫓기던’의 받침 ‘ㄷ’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쫓끼던]으로 발음된다.

오답인 이유 ① ‘낮’은 [남]으로, ③ ‘무릎’은 [무릅]으로, ④ ‘밭’은 [반]으로, ⑤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된다.

21 겹받침 ‘ㄷ’은 대표음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따라서 ③의 ‘읽고’는 [일꼬]로 발음한다. ‘맑다’는 [막따], ‘흑과’는 [흑파], ‘닭도’는 [닥또], ‘밝지’는 [박찌]로 발음하므로, ③의 ‘읽고’를 제외한 나머지 ‘ㄷ’은 대표음 [ㄱ]으로 발음한다.

22 제시된 글은 이중 모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이다. <제5항> 규정에 따르면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만, ‘다만 4’의 항목에 따르면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함도 허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희망의’의 ‘의’는 [이]가 아닌 [의]로 발음하거나 [예]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다만 1’의 항목에 따라 용언의 활용형인 ‘쳐’를 [체]로 발음한다.

② ‘다만 2’의 항목에 따라 ‘예, 레’ 이외의 ‘ㄷ’인 ‘계’의 ‘ㄷ’을 [ㄹ]로도 발음한다.

③ ‘다만 3’의 항목에 따라 ‘닐’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므로 [닐]로 발음한다.

⑤ ‘다만 4’의 항목에 따라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인 ‘강의’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강:이에]로 발음할 수 있다.

23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한글의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이유는 단어의 뜻을 알기 쉽게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4 **서술형** ‘반드시’와 ‘반듯이’는 표기는 다른데 발음이 [반드시]로 같은 단어이다.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라는 뜻이고,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이다. 따라서 ㉠은 문맥상 그가 꼭, 틀림없이 온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가 들어가야 하고, ㉡은 문맥상 그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누워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듯이’가 들어가야 한다.

25 부사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어법에 맞는 말이다.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웬’은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뜻을 지닌 관형사로, ‘웬지’는 잘못된 표기이다.

중간고사 2회



156~161쪽

- 01** ④ **02** ④ **03** ④ **04** 물상식.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날마다 밥과 술을 달라고 하고, 옷을 빨아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05** ③ **06** ①
- 07** ⑤ **08** ③ **09** 가족들의 갈등을 보고 스스로 떠나게 된다. /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된다. 등 **10** ⑤ **11** ④ **12**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13** ④ **14** ⑤ **15** ③
- 16** ① **17** ㉠은 어금닛소리 ‘ㄱ’이고, ㉡은 잇소리 ‘ㅅ’이다. 이는 모두 상형의 원리에 따라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18** ③ **19** ③
- 20** 꽃[꼴], 꽃이[꼬치], 꽃만[꼴만]. 이렇게 표기하면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힘들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21** ③ **22** ⑤
- 23** ③ **24** ③ **25** ④

01 이 글은 청소년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일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자신의 내면 심리를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나 ‘아버지’, ‘아저씨’와 같은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행동을 관찰하며 심리를 추측하고 있을 뿐 그 내면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한다.

오답인 이유 ①, ② ‘나’는 이 글의 보거나 말하는 이이며, 작품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③ 청소년인 ‘나’의 관점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⑤ ‘나’는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머무르게 되면서 느끼는 기분과 생각을 꾸밈없이 전달하고 있다.

02 ‘아저씨’는 ‘나’의 집에 머무르면서 ‘엄마’에게 밥과 술을 달라고 하고 옷을 빨아 달라는 등의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아저씨’가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청소년인 ‘나’는 이 글의 보거나 말하는 이로, 어른들인 ‘아저씨’와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② ‘나’는 ‘아버지’와 ‘엄마’에게 ‘아저씨’가 언제 가냐고 묻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저씨’가 떠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엄마’는 ‘아저씨’에게 밥과 술을 주고 빨래까지 해 줘야 하므로, ‘아저씨’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 ‘나’보다 더 답답해하고 있다.

⑤ ‘아버지’는 “아버지, 아저씨 언제 가요?”라고 묻는 ‘나’의 질문에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잘 모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03 (가)에서 ‘아저씨’는 밥때가 되면, 마당에 들어서며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친다. 이를 통해 ‘아저씨’가 스스로 없고 넉살스러운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손님으로 온 ‘아저씨’는 ‘엄마’에게 날마다 밥과

술을 달라고 하고 옷을 빨아 달라고 하는 등 당당하게 다양한 요구를 한다. '엄마'는 그러한 '아저씨'를 '몰상식'하다고 평가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몰상식'이라고 한 '엄마'의 평가를 정확하게 썼다.	☐
'아저씨'를 평가한 이유로 '아저씨'가 '엄마'에게 밥과 술, 빨래를 요구했기 때문임을 썼다.	☐

05 손님으로 온 '아저씨'는 '나'의 집에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며 일꾼처럼 행동한다. 이는 '아저씨'가 '나'의 집에 오래 머물기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아저씨'가 '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나'는 '아저씨'가 분주하게 돌아치며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을 뿐, 그 모습을 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④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 상식과 예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⑤ '아저씨'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부탁을 성심껏 들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06 (가)에서 '엄마'가 '나'의 편지를 가져간 것을 계기로, '엄마'와 '아버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두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나'의 말버릇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인 이유 ② '아버지'는 '엄마'에게 어떻게 자식에게 온 편지를 '갈취'하냐고 하였고, '엄마'는 '갈취'라는 말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

③ '아버지'와 '엄마'가 갈등하는 근본 원인은 '아저씨'가 가지 않고 머무르는 상황과 관련 있다. 이 때문에 (나)에서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④ '엄마'가 '나'에게 온 편지를 가져간 상황에 대해 '아버지'가 '갈취'했다고 표현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⑤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가 온 것을 축하하고 있고, '엄마'는 열여섯 살짜리가 무슨 연애편지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엄마'와 '아버지'는 '나'의 편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07 (나)~(다)에서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이로 인해 '아저씨'가 쫓기듯 떠난 이야기를 어린 '나'의 눈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보다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반해 <보기>는 격의 없이 지내면서 일가의 정을 더 나누고 싶었지만 자신으로 인해 분란이 초래되는 것을 보고 떠나야겠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작품의 주제를 (나)~(다)보다 간접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08 '아저씨'가 떠난 날 '엄마'가 돌아온 것은 맞지만, '아저씨'가 떠날 것을 알고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버지'는 "가실 거면 정식으로 아침이라고 드시고 갈 일이지, 부득불 새벽차를 타야 한다고 하구서 결국 떠나셨잖나."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저씨'가 떠난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는 '그래도 엄마가 돌아왔으니, 행복한 아침인 것은 틀림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엄마'의 귀가로 인해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고 '나'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부엌에서 낮익은 소리가 났다. 똑같이 달그락거려도 어쩐지 부드러운 달그락거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리를 통해 '엄마'가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④ '아저씨'는 (나)에서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라고 한 뒤, (다)에서 새벽차를 타고 떠난다. 이를 통해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여 '엄마'가 없을 때 서둘러 집을 떠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아버지'는 "형님도 차암."이라고 하며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익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09 **서술형** 이 글은 '일가'인 '아저씨'가 '나'의 집에 찾아와서 지내다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는 내용을 청소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일가인 '아저씨'가 가족들에게 떠밀리듯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
20자 내외로 요약하여 썼다.	☐

10 (가)의 '나'는 순수함이 남아 있는 사춘기 청소년의 관점에서 일가인 '아저씨'가 '나'의 집에 왔다가 떠나는 사건을 바라보며 세속적인 현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게 되는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는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담아낸 것이다. 한편 (나)의 '민지'는 다섯 살 어린아이로, '나'가 잡초라고 여기는 풀들을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세속적인 때가 묻어 있는 어른인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순수한 관점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담아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나'는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를, (나)의 '민지'는 세속적인 때가 묻은 어른들의 시각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세속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아름답게 승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나'는 사건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미성숙한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나)의 '민지'는 관찰 대상이므로 '민지'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나', (나)의 '민지'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나)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민지'가 아니라 '나'이다.

11 ㉠의 눈물은 '미옥'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게 원동하여 흘린 눈물이다. ㉡의 눈물은 '아저씨'의 외로움이 '나'에게 전해져 오며 흘린 눈물이다. '나'는 1년 전에 흘린 눈물과

달리,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12 서술형 말하는 이는 ‘잡초’를 ‘꽃’이라고 말하는 ‘민지’에게 “그건 꽃이 아니라 잡초야.”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뒷부분을 보면, ‘내 말은 때가 묻어 /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데’라고 하고 있으므로, 말하는 이의 입이 다물어진 이유는 자신과 다른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고,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썼다.	☐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다는 내용을 썼다.	☐
각각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3 공감적 듣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에서는 ‘동생’이 ‘형’과 대화하기를 포기하고 ‘형’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공감적 듣기가 잘 이루어진 (나)에서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민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감적 듣기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며,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공감적 듣기는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공감적 듣기를 통해 상대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대화의 주제에 맞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여도 공감적으로 듣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화는 협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완자샘의 풀이

(가)와 (나)의 대화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둘 중에 공감적 듣기가 잘 이루어진 대화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면 공감적 듣기의 특성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거야.

14 (가)의 ‘형’은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태도로 말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반면 (나)의 ‘선생님’은 ‘민정’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하며 ‘민정’이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가)의 ‘형’ 또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도 ‘동생’의 심정과 처지를 고려하여 ‘동생’이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지만 하는 것은 올바른 대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15 (나)에서 ‘민정’은 ‘도현’에게 음료수를 건넬음에도 불구하고 ‘도현’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문제에 대해 ‘선생님’과 대

화를 나누고 있다. ‘선생님’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현’이 어떤 성격인지 생각해 보라고 유도하고 있고, 이에 ‘민정’은 ‘도현’의 성격이라면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 둘만 있을 때 말을 걸어 봐야겠다고 ㉠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선생님’은 공감적 듣기를 통해 ‘민정’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16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입술소리로,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 중 하나이다. 한편 ‘ㄷ’은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오답인 이유 ② ‘ㄴ’에 획을 한 번 더하면 ‘ㄷ’을, 획을 두 번 더하면 ‘ㅌ’을 만들 수 있다.

③ 어금닛소리 ‘ㄱ’과 ‘ㅋ’은 모두 혀의 뒤쪽이 여린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로,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④ ‘ㅂ’은 ‘ㅁ’의 가획자이며, ‘ㅎ’은 ‘ㅇ’의 가획자이므로 둘 다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⑤ ‘ㅅ’에 획을 하나 더하면 ‘ㅈ’을, 획을 하나 더 더하면 ‘ㅊ’을 만들 수 있다.

17 서술형 한글 자음자의 기본 다섯 글자인 ‘ㄱ, ㄴ, ㄴ, ㅁ, ㅅ, ㅇ’은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떴는데, ㉠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어금닛소리 ‘ㄱ’이고, ㉡은 이[齒]의 모양을 본뜬 잇소리 ‘ㅅ’이다. 이 두 글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은 자음자의 다섯 글자 중 ‘ㄱ’임을 썼다.	☐
㉡은 자음자의 다섯 글자 중 ‘ㅅ’임을 썼다.	☐
㉠과 ㉡이 상형의 원리에 따라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임을 썼다.	☐

18 자음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다섯 글자(ㄱ, ㄴ, ㄴ, ㅁ, ㅅ, ㅇ)에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를 가획의 원리라고 한다.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한데, 이를 통해 한글이 체계적인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기본자에 가획을 하더라도 조음 위치는 동일하다.

②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자음자 둘 이상을 나란히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그 외의 글자를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기도 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상형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⑤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것은 울림소리를 제외한 모든 자음에 해당하며, 이는 가획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19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만든 글자로, ‘·’와 ‘ㄴ’가 합성된 ‘ㄴ·’과, ‘·’와 ‘ㄴ’가 합성된 ‘ㄴ·’가 있다. 따라서 초출자는 ‘·’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아래아)’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丨’를 만들었다.

② ‘ㄴ’은 혀가 오그라들고 깊게 나는 소리, ‘ㄴ’은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깊지도 얕지도 않게 나는 소리, ‘ㄷ’은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얕게 나는 소리를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④ 재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한 초출자(ㄱ, ㅌ, ㅍ, ㅊ)에 ‘ㄴ’을 합성하여 만든 것(ㄴ, ㄷ, ㄹ, ㅌ, ㅍ, ㅊ)이다.

⑤ 기본자 외의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 재출자는 기본자를 두 번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20  ‘꽃’, ‘꽃이’, ‘꽃만’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각각 [꽃], [꼬치], [꼰만]이 된다. 이렇게 표기하면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어떤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꽃[꽃], 꽃이[꼬치], 꽃만[꼰만]’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썼다.	☐

21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엌’은 [부어쿨]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오답인 이유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해야 하므로 ① 빗이[비지], ② 낮이[나치], ④ 꽃으로[꼬츠로], ⑤ 낮이[넉씨]로 발음해야 한다.

22 <보기>의 규정에 따르면 ⑤는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의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가 아니므로 [민주주의의 이이]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오답인 이유 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③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ㅣ’이므로 [ㅣ]로 발음한다.
④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3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은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이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다.’는 의미로 ‘절다’의 사동 표현인 ‘절이다’를 사용해야 한다. ‘저리다’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는 의미이다.

오답인 이유 ① ‘서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의 ‘붙이다’가 알맞은 표현이다.

② ‘맞는 답을 내놓다.’의 ‘맞히다’가 알맞은 표현이다.

④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라는 의미의 ‘달이다’가 알맞은 표현이다.

⑤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의미의 ‘반듯이’가 알맞은 표현이다.

참고 자료

틀리기 쉬운 단어들

• 부치다 / 붙이다

부치다	① 힘이 미치지 못하다. ② 부채 같은 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③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낸다.
붙이다	① 붙게 하다. ② 서로 맞닿게 하다. ③ 붙이 옮겨서 타게 하다.

• 저리다 / 절이다

저리다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절이다	‘절다’의 사동사.

• 마치다 / 맞히다

마치다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맞히다	① 표적(標的)에 맞게 하다. ② 맞는 답을 내놓다. ③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 ④ 눈·비·서리 따위를 맞게 하다.

• 다리다 / 달이다

다리다	다리미로 문지르다.
달이다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약제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

• 반드시 / 반듯이

반드시	꼭, 틀림없이.
반듯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24 ‘웬지’와 ‘웬지’는 흔히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단어이다.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는 말이지만, ‘웬지’는 잘못된 표기이다.

25 <보기>의 규정에 따르면 ‘뵈-’은 자음 앞에서만 [뵈]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뵈’는 [여뵈]로, ‘뵈다’는 [뵈따]로 발음한다.

오답인 이유 ① ‘ㅛ’은 자음 앞에서 [ㅛ]으로 발음한다.

② ‘ㅛ’은 어말일 경우 [ㅛ]으로 발음한다.

③ ‘뵈죽하다, 뵈동글다’의 경우 [뵈]으로 발음하므로 [ㅛ]으로 발음한다.

⑤ ‘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ㅛ]으로 발음한다.



완자쌤의 풀이

발음을 할 때는 단어가 결합한 환경이 중요해. 어말, 자음 앞, 모음 앞 등 그 환경을 눈여겨보아야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어. <보기>의 규정에서도 어말, 자음 앞이라는 환경을 제시하고 있잖아. 따라서 발음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꼭 살피도록 해.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소단원 평가

180~183쪽

- 01 ① 02 이 광고문은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과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 이 광고문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등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7 ⑤ 08 이 글에 대한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며, 읽는 이가 자신의 눈 건강을 돌아보게 할 수 있다.
 09 ① 10 ② 11 ⑤ 12 ③ 13 ⑤

01 (가)는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라는 광고 문구의 내용을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는 광고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는 인쇄 매체인 광고문이기 때문에 청각 매체인 음 악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는 유명인의 얼굴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였다.

④ (가)는 여러 인물이 아닌 한 명의 인물만 등장시켰다.

⑤ (가)의 주제는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질료 형식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02 **서술형** 이 광고문은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고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광고문의 제작 의도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
'이 광고문은 ~ 경고하고 있다.'의 형식으로 썼다.	☐

03 (나)를 통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태도가 젊은 세대의 노안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노안이 나이가 들수록 심해진다는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

04 (나)의 그래프는 대상별 노안의 비율이 아니라,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의 그래프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노안의 개념을 '노화 현상의 하나로,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밝히고 있다.

② 첫 부분에 중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③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의 제목과, '젊은 노안?'이라는 소제목에서 글의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잘 보이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5 블로그는 매체의 특성상 댓글을 통해 글쓴이와 읽는 이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블로그에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므로 글을 편하게 연재할 수 있다.

②, ④ 블로그는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③ 이 글은 '스마트폰 노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스마트폰 노안의 환자 대부분은 젊은 세대이다. 블로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이 글의 예상 독자인 젊은 세대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한 것이다.

06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며,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만 고친다면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이 글을 통해 스마트폰 노안으로 인해 두통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③ (나)에서 다음 글의 주제가 스마트폰 노안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는 있으나, (나)에는 스마트폰 노안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글쓴이는 눈 건강에 소홀한 젊은 세대에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노안이 올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07 ㉠은 의학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그 원인을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이다. 그러므로 사진만을 활용해 정리한 시각 자료가 아니라, 문자, 영상, 소리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활용되었다.

08 **서술형** ㉠은 스마트폰 노안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검사 표이다. 글쓴이는 이를 제시하여 블로그 글을 읽는 이가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눈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읽는 이의 관심 유도(흥미 유발), 자신의 눈 건강에 대한 관심 및 반응 등과 관련된 내용을 썼다.	☐
위의 내용 중, 하나만 썼다.	☐

09 (가)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경고한 광고문이며, (나)~(라)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젊은 노안의 위험성을 설명한 블로그 글이다. 이처럼 (가)와 (나)~(라)는 공통적으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10 <보기>의 그래프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노안은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나)의 뒤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1 (나)~(라)의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고 했으므로,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라)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노안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다)를 통해 두통 및 만성 피로, 어지럼증은 스마트폰 노안의 합병증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나)~(라)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④ (라)에 스마트폰 노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 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검사해 보고 자신이 스마트폰 노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치료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12 (다)는 블로그에 실린 글로, 블로그에서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뿐 아니라 음악이나 음향 등의 청각 자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대구 형태의 인상 깊은 문구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② (나)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에 관한 문제를 다룬 카드 뉴스이다.

④ (가)는 인쇄 매체인 광고문, (나)는 카드 뉴스로, 둘 다 시각 자료와 간단한 글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카드 뉴스, (다)는 블로그로, 모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13 ㉔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는 현상이 아니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겪는 노안의 현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㉔은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는 광고문으로,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② ㉔은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그 아래 괴로워하는 사람을 표현한 그림으로,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㉔은 사진과 그림을 합성하여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자로 가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을 그 위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④ ㉔은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준 문장을 제시하여 읽는 이에게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 매체 자료의 효과

소단원 평가



- 01 ⑤ 02 ① 03 (나)에 제시된 자료는 지진의 발생 원인을 보여 주는 동영상으로, 이를 삽입하여 분위기를 환기하고 강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④ 09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낸 그림 / 지진 발생 지역을 표시해 놓은 지도 10 ③
11 ③ 12 ⑤ 13 ② 14 ②

01 (가)에서 딸과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는 했지만, 이는 듣는 이가 강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짐작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경험담 소개 자체가 강연의 목적이 아니다. (가)에서 주제가 '지진'임을 밝히고 있고, (나)에서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 강연의 목적이 지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연

개념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
유의점	- 청중의 나이, 성별,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준비해야 함. -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강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02 강연자는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갈라지는 장면을 담은 영화 포스터를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의 흥미를 유도하고, 지진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개될 강연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03 **서술형** 강연자는 (나)에서 지진의 발생 원인을 보여 주는 동영상을 제시하여, 분위기를 환기할 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의 종류와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밝혀 썼다.	☐
매체 자료의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완자쌤의 풀이

강연자가 사용한 매체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강연자의 입장에서 이 매체 자료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 매체 자료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매체 자료를 삽입하여 얻는 효과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04 (나)에서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살짝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수도·가스·통신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2015년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8,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뒤틀리면서 해일과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대부분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하였다.

05 제시된 사진에는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네팔의 마을, 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마을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지진 피해를 담은 사진을 통해서 지진의 개념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③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이 파괴된 모습을 담고 있으나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는 무관하다.

④ 지진 피해를 담은 사진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드러내긴 하나 이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⑤ 제시된 사진은 과거 일어났던 지진 피해를 담은 것으로, 현재의 여행 정보와는 무관하다.

06 (나)에 제시된 매체 자료는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언어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환태평양 조산대와 불의 고리 모양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진이나 그림은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데 적합한 매체 자료이다.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는 매체 자료는 동영상이다.

07 (가)에는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08 (나)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있다면, 강한 흔들림이 멈춘 후 밖으로 나가고, 이동할 때에는 승강기를 타지 말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실내에 있다면 일단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하고 방석,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③ 강한 흔들림이 멈추면 gas와 전기 등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⑤ 대피한 다음에는 전신주나 자판기 등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물 근처에 서 있지 않아야 한다.

09 **서술형** ①에서는 강연자가 그림을 가리키며 '환태평양 조산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에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낸 그림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에 사용된 매체 자료의 형태는 표이다. 표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달리 <보기>는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 적절한 매체 자료인 그림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은 표, <보기>는 그림으로 서로 다른 매체 자료이지만, 모두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다루고 있다.

②, ④ ㉠은 표 안의 글을 통해 지진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법을 건물 안과 건물 밖으로 나누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⑤ <보기>는 그림으로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때 유용한 매체 자료이다.

11 (가)에서는 '불의 고리'를 소개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남미 에콰도르에서 최근에도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두 지역은 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곳의 명소 그림보다는 피해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그림, 불의 고리 지역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위치를 표시한 그림 등을 매체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⑤ (가)~(나)에서 다루고 있는 지진의 현황과 피해, 대처 방안 등과 관련한 매체 자료이므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매체 자료이다.

12 매체 자료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자료의 내용이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 사용해야 한다. 자료는 단순히 청중의 관심을 끄는 내용보다는, 강연의 내용과 관련 깊은 내용이어야 한다. 매체 자료는 그 효과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그림 형태의 자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가)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및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0년부터 2035년까지 1인 가구 수는 2인 이상 가구 수보다 적다. 다만,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수가 2인 가구 이상 가구 수보다 많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자샘의 풀이

사회 현상을 분석한 그래프를 다룰 때에는 우선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 수치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어떤 매체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

14 (나)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등 사람들의 물지각한 행동으로 산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다)는 이웃 간에 벌어지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나타낸 그림이다.



- 01 ③ 02 비슷한 두 문장을 나열하며, 질문 방식을 사용하였다. 03 ③ 04 ① 05 '스마트폰 노안'은 청소년들도 위협하고 있음. 06 ⑤ 07 ⑤ 08 ③
09 ⑤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5 ② 16 ④ 17 ④ 18 ④ 19 ⑤
20 ③ 21 ⑤

01 (가)의 광고문은 강한 인상을 주는 사진과 광고 문구로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02 **서술형** (가)의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는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나열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는 문구이다. 아울러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으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표현 방법으로 '비슷한 두 문장의 나열(대구법)'을 제시하였다.	☐
표현 방법으로 '질문(의문문)'을 제시하였다.	☐

03 (나)~(다)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노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나)의 처음 부분에서 노안에 대한 중학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④ (나)에서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그래프를 제시하여 '스마트폰 노안'이 청소년들도 위협하고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⑤ (다)에서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을 인과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04 (나)에서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종 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각 단락의 소재목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①이다.

05 **서술형** (나)에서 글쓴이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노안'은 청소년들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06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스마트폰 노안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주로 겪는 증상이므로, 노인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신종 노안'을 겪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노안 환자의 세대별 비율을 연도별로 분석

한 그래프를 제시하면 이러한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가)의 첫 부분에서 노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그림을 삽입한다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③ (나)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가와 면담 내용이 담긴 동영상 사용하면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스마트폰 노안으로 인한 합병증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내용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07 블로그는 스크롤바를 활용할 수 있어 사진뿐만 아니라, 장문의 글로도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가)~(다)는 글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사진으로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8 (다)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질환이며, 스마트폰 노안을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를 통해 중학생도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노안이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를 통해 스마트폰 노안은 거북목 증후군, 두통, 만성 피로, 어지럼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스마트폰 노안의 환자 대부분이 한창나이라는 건강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를 통해 스마트폰 노안 역시 일반 노안처럼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9 (가)~(마)의 강연자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사례와 지진 피해 사례를 들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지진 피해 구조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지진 피해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 주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③ (가)에서 지진과 관련된 영화인 「센 안드레아스」를 소개하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라)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10 (나)에서 화산 활동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지진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지진이 대륙의 이동이나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등에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③, ④, ⑤ (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의 붕괴, 해일과 산사태의 발생, 인명 피해,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11 (라)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을 설명하고 있고, (마)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청중에게 묻고 있다. 이와 같은 강연 내용으로 보아 (라)에서는 국내 지진의 실태를 통해 청중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자료를, (마)에서는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알려 주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우리나라가 ‘불의 고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음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하지만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대부분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경주의 지진을 근거로 불의 고리와 지진이 아예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지진의 여파로 에베레스트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8,4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불의 고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13 (가)~(라)의 강연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진을 종류별로 설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라)에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여 청중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의 네팔의 사례, (다)의 경주의 사례 등 실제 사례를 들어 지진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다.

⑤ (나)에서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낸 지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청중의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14 **서술형** (나)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며, ㉠은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은 언어로 표현하기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매체 자료이므로, ㉠을 활용하면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여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5 (라)를 통해 지진으로 인해 강한 흔들림이 느껴질 때는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긴 후, 강한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 등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6 (가)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문제를 다룬 카드 뉴스이다. (가)에서는 실제 인물인 ‘키아라 나스티’의 사례를 설명과, 인물의 실제 사진을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7 카드 뉴스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뉴스이다. (나)~(다)에 제시된 내용을 (가)와 같은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할 때에는 긴 글의 핵심만 추려, 중심 내용을 간략한 사진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카드 뉴스의 형태로 바뀐다고 해서 예상 독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다)의 예상 독자층은 젊은 세대이며, 카드 뉴스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젊은층을 예상 독자로 한다.

② 카드 뉴스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사용된다.

③ 독자가 스크롤바를 내려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블로그의 특징이며, 카드 뉴스는 독자가 옆으로 화면을 넘기며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카드 뉴스에서 독자는 글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마음대로 글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18 (나)~(다)를 통해 글쓰이는 읽는 이에게 스마트폰 노안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 노안에 적절히 대처(예방,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 (가)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예로 해일과 눈사태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꾸로 이해한 ⑤는 (가)~(나)를 읽고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8,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알아 두면 유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스와 전기 등을 차단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지진 발생 시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해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완자샘의 풀이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할 때에는 글 밖의 배경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글 자체에 집중하여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해.

20 (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매체 자료는 지진 피해 사례를 보여 주는 사진인 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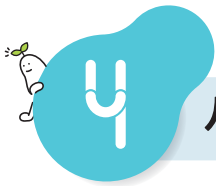
21 ㉠의 그래프는 1인 가구의 증가 실태를, ㉡의 그림은 층간 소음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층간 소음이 이웃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삼기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과 ㉡을 인과관계로 묶어 강연 내용의 타당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은 모두 사회 현상을 표현한 매체 자료이다. 따라서 강연을 시작하는 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에게 각 매체 자료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짐작해 보게 할 수 있다.

② 출처가 뚜렷하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는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③ ㉣의 사진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환경 오염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통계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은 이웃 간의 층간 소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림이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새롭게 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확인 문제

● 224~235쪽

225쪽	1 ④	2 ②	3 ⑤
227쪽	4 ③	5 ⑤	
229쪽	6 “암행어사 출두야”	7 ②	8 ②
231쪽	9 ②	10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11 ⑤
	12 ①		
233쪽	13 ①	14 ④	15 ③
	16 ‘춘향’에 게 닮친 시련(고통)		
235쪽	17 ③	18 ④	19 ②

1 사령들은 ‘어사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걸인이라고 생각하여 ‘어사또’를 잔치에서 쫓아내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사령들은 ‘어사또’의 신분을 눈치채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절정 ②’에서 ‘삼현 육각 음악 소리 공중에 떠’ 있다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절정 ①’에서 운봉, 구례, 곡성, 순창 등의 원님들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잔치 마당으로 들어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③ ‘사령’이 ‘어사또’에게 “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 말도 내지 말고 나가시오.”라고 말한 것에서 ‘어사또’가 초라한 모습으로 잔치에 갔음을 알 수 있다.

⑤ ‘절정 ①’에서 ‘본관 사또’가 하인을 불러 이것저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글의 서술자는 요란하고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본관 사또’와 관리들의 모습에 ‘어사또’의 마음이 심란하다고 말하면서, ‘어사또’가 화를 누르고 잔치판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

3 ㉠은 ‘본관 사또’가 거지는 들이지 말라고 했다는 ‘사령’의 말로, 행색이 초라한 ‘몽룡’을 문전 박대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본관 사또’는 이웃 읍 수령들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은 환대하면서도 신분이 낮거나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은 문전 박대하는 이중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 ‘어사또’가 지은 시를 통해 탐관오리의 전형인 ‘본관 사또’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역설적 표현이 활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절정 ④’에서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의 말소리가 같은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② ‘절정 ④’에서 서술자는 “어찌 아니 통분하랴.”라고 논평함으로써,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화가 난 ‘어사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⑤ ‘어사또’가 지은 시는 ‘금준미주’와 ‘천인혈’, ‘옥반가호’와 ‘만성고’, ‘촉루낙시’와 ‘민루락’, ‘가성고처’와 ‘원성고’를 각각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술’을 ‘수많은 사람의 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강조하고 있다.

5 ‘어사또’가 지은 시는 백성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고 있는 탐관오리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흥겨운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분위기를 전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6 **서술형**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는 함성을 외치자, 흥겹던 잔치 장소가 일순간 탐관오리를 벌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 즉, 극적 반전과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7 ㉠은 ‘마패’를 ‘햇빛’과 ‘달’에 비유한 것이다. ‘달’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존재라는 점, ‘햇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패’는 탐관오리의 폭정과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또한 ‘춘향’이 광명을 찾을 것을 예고한다.

8 이 글의 서술자가 ‘운봉(㉡)’과 달리 ‘변 사또(㉠)’는 술에 취해 ‘어사또’가 지은 시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 사또’가 ‘어사또’가 지은 시의 뜻을 모른 채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③ ‘운봉’은 ‘어사또’의 시를 듣자마자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고는, 주변을 분주하게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변 사또’는 술주정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춘향’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변 사또’는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어사또’의 시를 들은 ‘운봉’은 ‘어사또’가 단순한 걸인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관아의 구실아치들을 불러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운봉’은 어사출두가 있을 것임을 예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운봉’이 ‘어사또’의 시를 듣자마자 주변을 수습하기 시작한 것에서 눈치가 빠르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9 ‘절정 ③~⑤’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관리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장면과, ‘어사또’가 ‘본관 사또’를 징벌하는 장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절정 ③~⑤’는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 인물들의 말을 중심으로 상황을 전달(ㄱ)하는 한편, 주로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어사출두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ㄷ)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ㄴ.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허둥거리는 관리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을 뿐 인물들의 잘못을 열거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한 것도 아니다.

ㄹ. ‘절정 ③~⑤’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 있지 않다.

10 서술형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라는 구절은 ‘문’과 ‘바람’, ‘물’과 ‘목’의 위치를 바꾸어 말한 언어유희적 표현으로, 암행어사 출두로 혼비백산한 ‘본관 사또’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처럼 언어유희적 표현을 통해 ‘본관 사또’로 대표되는 탐관오리들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완자쌤의 풀이

조선 시대의 양반들은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닦는 데에 힘을 쓰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즉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언제나 언행이나 행동거지에 신경을 썼단다. 그런 양반들이 혼비백산하여 허둥거리거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 양반들이 평소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모두 가식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야. 이처럼 ‘본관 사또’의 말은 단순히 언어유희적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에 감추어 놓았던 본질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11 ㉠에서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희화화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2 처음에 ㉠은 ‘변학도’가 이웃 읍의 수령들을 불러 자신의 생일잔치를 벌이던 공간이었지만, 암행어사가 출두한 이후에는 ‘변학도’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이 벌을 받는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절정 ③’에서 ㉠은 사건 전개상 탐관오리를 벌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13 ‘춘향’이 옥에 갇힌 이유는 ‘본관 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한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관 사또’를 파직시킨 암행어사가 다시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자, 암행어사를 비꼬기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춘향’이 당차고 의지가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4 ‘어사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 것을 요구하자, ‘춘향’은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라고 말한다. ‘춘향’이 ‘어사또’에게 ‘명관’이라고 한 것은, ‘어사또’ 또한 ‘변학도’ 못지않은 부정한 관리라고 비꼰 것이지 그를 칭송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탐관오리인 ‘변학도’를 본관 사또 자리에서 봉고파직한 것에서 탐관오리들을 단호하게 숙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몽룡’은 ‘춘향’에게 “너만 한 년이 수절한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였으니 살기를 바랄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짐짓 ‘춘향’을 모른 체하고 있다. 이는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떠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이다.

③ ‘몽룡’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불러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 없는 자를 풀어 준 것에서, 역물하게 옥살이를 한 백성들을 구제하여 ‘변학도’의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형리’가 ‘몽룡’에게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 다면서 사또 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로소이다.”라고 한 것에서, ‘춘향’이 옥에 갇힌 이유를 알 수 있다.

15 ‘몽룡’은 ‘춘향’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한다. 이는 ‘춘향’이 지금까지 절개를 지킨 것이 진심이었는지, ‘변학도’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을 때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짐짓 ‘춘향’의 마음을 떠본 것이다. 이는 ‘춘향’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16 서술형 ㉠은 ‘높은 절벽’과 ‘높은 바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이며, ㉡는 ‘푸른 술’과 ‘푸른 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이다. ‘절벽’과 ‘바위’, ‘술’과 ‘대’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과 ㉡는 모두 ‘춘향’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의 공통적인 의미를 썼다.	☐
3어절로 의미를 정확하게 썼다.	☐

17 ‘결말 ③’에서 ‘몽룡’은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다 지내고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④ ‘결말 ②’에서 임금과 신하들에게 공을 인정받아 벼슬을 하사받은 ‘몽룡’의 모습과 절개를 인정받아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결말 ①’에서 ‘몽룡’과 함께 남원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된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결말 ③’에서 술하에 세 아들과 세 딸을 두고 백년해로하는 ‘몽룡’과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이 글의 서술자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신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한 ‘춘향’과 ‘몽룡’을 칭찬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의 서술자는 당시의 신분 제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⑤ 이 글의 서술자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절개를 곳곳하게 지킨 ‘춘향’과 탐관오리를 현명하게 처벌하고 돌아가는 ‘몽룡’을 칭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물이 신분의 제약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칭송함으로써,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19 이 글은 ‘춘향’과 ‘몽룡’이 혼인하여, 백년해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행복한 결말 구조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전라남도 남원읍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③ ‘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이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④ ‘몽룡’은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에 암행어사 출두를 감행하고 처벌하므로, 이들의 갈등 전개나 해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춘향’은 시종일관 ‘몽룡’에 대한 절개와 믿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

고전 소설의 일대기 구조

고전 소설에서 일대기 구조는 대부분 영웅 소설에서 많이 나타난다. 영웅 소설이란 주인공의 영웅적인 일생을 그린 소설로 건국신화, 서사무가 등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고귀한 혈통 - 비정상적 출생 - 버림받음 - 비범한 능력 - 성장 후 시련 - 시련을 극복함 - 위업 달성'의 영웅 일대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확인 문제

● 236~241쪽

- 236쪽 | 1 ⑤
- 237쪽 | 2 ③
- 238쪽 | 3 ④
- 239쪽 | 4 ⑤
- 240쪽 | 5 ⑤
- 241쪽 | 6 ⑤ 7 ④ 8 ④

1 이 만화는 소설 「춘향전」을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이 아니며, 인물들의 모습 역시 실존 인물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만화는 원작에 제시된 '변학도'의 생일잔치를 배경으로 일어난 암행어사 출두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② "멈추시오!"라는 대사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으로 나타냄으로써, 큰 소리로 외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아무런 대사 없이 느낌표만 있는 말풍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몽룡'이 지은 시를 듣고 놀란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④ '쑹, 퍽, 벌떡, 짹'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정지된 장면 속에서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2 이 장면과 마찬가지로, 원작에서도 술에 취한 '변학도'가 '춘향'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①, ② 원작에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윤봉'이 주변을 단속하는 장면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 만화에서는 해당 장면에서 '윤봉'을 삭제하고 잔치에 참석한 다른 관리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대체하였다.

④ 원작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변학도'가 '몽룡'이 지은 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였지만, 이 장면에서는 '변학도'의 말을 추가하여 '몽룡'의 시를 이해하지 못한 '변학도'의 아둔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원작에서는 역졸들이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장면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몽룡'이 직접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모습으로 대체하였다.

3 이 장면에서는 역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함성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변학도'가 역졸들에게 들켜 매질을 당해 아파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을 활용한 것일 뿐, 인물의 속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①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글씨의 크기를 키워, 역졸들이 관아를 덮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말을 거꾸로 타고 있는 관리, 탕건 대신 용수를 쓰고 있는 관리, 나무에 매달려 매미 소리를 내고 있는 관리 등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③ '와장창'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부패한 관리를 잡아들이는 서리·역졸들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⑤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면서 관아로 휘몰아치는 역졸들의 모습을 양쪽에 걸쳐 크게 그림으로써, 해당 장면을 강조하고 있다.

4 ①은 '춘향'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몽룡'의 부당한 요구에 어이없어하는 '춘향'의 심리를 강한 색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 그리고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장면은 이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줄거리나 대사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5 이 장면은 기본 배경을 화려한 색으로 처리하고, 색이 퍼지는 듯한 효과를 주어 두 인물의 감격스러운 재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장면에 꿈속 공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몽룡'을 보고 놀란 '춘향'의 모습이 담긴 칸을 다른 칸보다 확대하여 그림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② 원작에서처럼 '춘향'이 대사를 길게 말하지 않고, 짧은 감탄사와 말줄임표만 제시하여 '춘향'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몽룡'과 '춘향'의 극적인 재회 후에 일어난 사건, 즉 '몽룡'이 남원에서 일을 마치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간 사건을 글 상자를 이용하여 줄거리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몽룡'을 향한 '춘향'의 그리움과 애뜻함을 부각하기 위해 '몽룡'을 향해 뻗는 '춘향'의 손을 확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6 결말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면은 칸을 세분하여 구분하지 않고, 행복한 결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림을 삽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뒷이야기는 줄거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7 고전 소설인 「춘향전」은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과 그러한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ㄷ), 당시 사회의 신분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ㄴ), 시대를 넘어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여(ㄱ)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② 이 작품 속에서 '춘향'이 지키고자 한 절개는 당시 조선 시대에 내세웠던 덕목으로,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이념보다는 개인의 실리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춘향'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인물들의 행동이 재해석되거나, 변형되기도 하며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8 ①은 이 작품의 행복한 결말을 드러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뒷이야기를 줄거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만화의 '줄거리'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거나 등장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인다.

- 01 ㉔ 02 ㉔ 03 ㉔ 04 ㉔: 언어유희, ㉔: 반
어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판이로구나!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몽룡'의
시를 듣고 놀란 사람들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16 ㉔ 17 ㉔ 18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19 ㉔
20 ㉔ 21 ㉔

01 「춘향전」에는 고전 소설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을 뿐 전기적이면서 환상적인 요소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운봉'이 행색이 초라한 '어사또'를 안으로 들인 것은, '어사또'의 거동이 예사롭지 않아 그를 지켜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즉, '어사또'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3 '어사또'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의 다과상과 달리 자신의 상은 초라한 것에 화가 나 상을 발로 차 버리고 만다. 이에 대해 서술자는 그러한 홀대에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느냐며 논평하고 있다.

04 **서술형** ㉔은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인 '갈비'의 말소리가 비슷한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적 표현이다. ㉔은 자신을 홀대한 것에 대하여 본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반어 표현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정확히 썼다.	☐
㉔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정확히 썼다.	☐

05 '변 사또'는 술주정을 하다가 느닷없이 '춘향'을 불러올리라며 명령하는데, 이는 자신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을 벌하기 위한 것이지 '춘향'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어사또'의 시를 들은 '운봉'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주변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어사또'의 정체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운봉'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술에 취한 '변 사또'는 '어사또'의 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⑤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자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다.

06 ㉔은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질 정도라고 과장하여 역졸들의 위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 역졸들의 함성을 시각화한 것은 아니다.

07 '운봉'은 '어사또'의 시를 듣자마자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하고는 주변을 단속하기 시작한다. 이로 볼 때, '운봉'은

'변 사또'와 달리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운봉'이 '어사또'에게 호감을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의 앞부분에서 '운봉'이 '어사또'를 잔치 자리에 불러들인 것은, '어사또'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어사또'의 행색이나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운봉'과 달리 '변 사또'는 '어사또'가 지은 시의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운봉'보다 '변 사또'가 총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어사또'가 지은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변 사또'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변 사또'가 백성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챈 '운봉'이 주변을 단속하는 것이나, 암행어사 출두에 놀라서 명석에 숨은 '변 사또'의 모습을 고려할 때, 두 사람 모두 암행어사가 고을에 온 것을 반긴다고 보기 어렵다.

08 '신하들'이 '몽룡'이 큰 공을 세웠으며 칭찬을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몽룡'을 대사성 자리에 임명하라고 건의하였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몽룡'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짐짓 '춘향'을 모른 체하며 '춘향'을 '너만 한 년'이라고 낮잡아 부르고 있다.

② '정렬부인'은 절개를 지킨 부인에게 내리는 명예로운 호칭이다. 이러한 호칭을 '춘향'에게 내린 것은 시련 속에서도 절개를 꺾지 않은 '춘향'의 굳은 의지를 '임금'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몽룡'이 여사가 되어 '춘향'을 위기에서 구출하자, 뒤늦게 달려온 '춘향' 모도 신이 나 웃으면서 어깨춤을 추었다.

④ '춘향'은 '어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부당하게 요구하자,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자신의 절개를 절대로 꺾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09 **서술형** '춘향'은 '어사또'가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며 부당하게 요구하자,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판이로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어사또'가 진실로 '명판'이라고 생각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사또'가 '변 사또'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관리에 지나지 않음을 비꼬기 위해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10 (다)는 '몽룡'이 '춘향'을 구한 뒤에 벌어진 일을 서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술자는 '몽룡'과 '춘향'이 함께 서울로 올라간 이후의 일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11 '춘향'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변 사또'의 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다. 이에 '몽룡'은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 짐짓 '춘향'을 모른 체하면서,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요구한다.

12 ㉔은 '높은 절벽'과 '높은 바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를, ㉔은 '푸른 술'과 '푸른 대'를 변하게 하려는 존재를 의미한다. 즉, '춘향'의 절개를 꺾으려고 괴롭히는 존재로 고통과 시련을 상징한다. 또한 ㉔은 낙엽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춘향'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간 고통과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인 이유 ㉔는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의지를, ㉔는 '춘향'을 위기에서 구한 '몽룡'을 의미한다.

13 만화에서 칸은 장면과 장면을 구분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칸'의 개념과 특징

참고 자료 •

개념	만화는 이야기가 있고, 의도된 순서로 나란히 놓은 그림과 글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칸은 이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임.
특징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14 ㉑에 쓰인 '초라'는 '몽룡'의 상황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콩나물, 부침개, 깍두기'는 그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㉑에 쓰인 '살금살금'이라는 음성 상징어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15 **서술형** ㉔는 문장 기호 중 하나인 느낌표를 활용하여, '몽룡'의 시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즉, '몽룡'의 시를 듣고 놀란 사람들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6 (다)에서 명석에 숨어 있는 '본관 사또'의 모습을 그린 것은, 원작에서 '본관 사또'가 명석 구멍에 생쥐 눈 뜨듯 하면서 관아 깊숙한 안채로 들어갔다고 서술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즉, 새롭게 추가한 장면이 아니라 만화의 형식에 맞게 변화를 주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을 활용하여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역졸들의 함성 소리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② (나)에서 관아를 덮치는 역졸들의 모습을 큰 칸에 그림으로써, '암행어사 출두' 장면의 위세를 극대화하고 있다.

③ (다)에서 원작의 '좌수·별감은 냇을 잃고, …… 깨지나니 북·장고라.' 부분을 한 칸으로 압축하여 그려 넣었다.

④ 원작에서는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장면으로만 서술하고 있지만, 이 만화에서는 (가)와 같이 '몽룡'이 직접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장면을 새로 넣었다. 이와 같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극적 반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17 (가)와 (나)에서는 둥근 모양의 말풍선에 사용된 글자체와 다르게 굵은 느낌이 나는 글자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체는 다른 글자체에 비해 시각적으로 강조된 느낌을 주는데, (가)와 (나)에서는 이러한 글자체를 활용하여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완자쌍의 풀이

최근에 인터넷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이라고 불리는 만화에서는 음악이나 음향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화는 시각 매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림이 중심이 되는 만화에서는 말풍선이나 글자 역시 하나의 이미지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야.

18 **서술형** ㉑은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㉑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 썼다.	☐
㉑의 역할을 한 가지 이상 썼다.	☐

19 (가)의 '춘향'은 '어사또'가 수청을 요구하자 이를 강하게 거절하였지만, (나)의 '춘향'은 '변 사또'의 기력이나 권세가 흠잡을 곳이 없다며 팔자를 고치면 남은 인생 부귀영화 누릴 듯 하니 수청 요구를 받아들여려고 한다. 이로 보아 (나)의 '춘향'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나)의 '춘향'은 '몽룡'이 상결인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어사또 신분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② (가)의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절개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나)의 '춘향'은 절개를 꺾어 팔자를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가)의 '춘향'은 '몽룡'의 정체를 모를 때에도 '몽룡'을 향한 절개를 굳게 지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몽룡'의 신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에서는 '춘향'의 효심이 드러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나)의 '춘향'은 '열녀 춘향'보다 '효녀 춘향'이 낮겠다며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20 (나)의 '춘향'은 원작과 다르게 상결인인 '몽룡'을 버리고 '변 사또'를 택하여 신분을 상승시키겠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몽룡'과의 연을 맺었던 까닭도 팔자를 고치기 위함이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춘향'은 절개라는 정신적 가치보다 부귀영화와 같은 실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적 가치보다 실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을 뜻하는 말로,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뜻하는 '학수고대(鶴首苦待)'와 뜻이 비슷하다.

오답인 이유 ① 개과천선(改過遷善):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②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④ 일취월장(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소단원 평가

274~277쪽

- 01 ② 02 ③ 03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은 앞
 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뜻하는 반면에, ㉡는 가야
 하는 길이 멀다는 것을 뜻한다. 09 ② 10 ④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③
 16 ② 17 아까다 똥 될지라도 18 ②

01 이 글의 글쓴이는 속담에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터득해 온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살아 있어 진짜 우리말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02 ㉠은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야 허겁지겁 숙제를 하려는 학생에게 핀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인 말이다. 그러므로 ㉠에는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고 하거나, 능력도 없으면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음을 빈정대어 이르는 말인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라는 속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방귀 편 놈이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뀌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교는 말이다.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④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말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3 **서술형** <보기 1>의 대화 상황에서 ‘딸’은 바로 앞 책상 위에 휴대 전화를 두고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빠’의 말을 듣고서야 휴대 전화를 찾을 수 있었다. <보기 2>에서는 속담의 개념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보기 1>에서 밑줄 친 ‘딸’의 말을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딸’의 상황에 맞는 속담은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인 ‘등잔 밑이 어둡다’이다. 그러므로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상황에 맞는 속담을 포함하여 표현하였다.	☐

04 (가)는 한 학생이 이미 알고 있던 길이라고 생각하여 약도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길을 헤매는 상황이므로,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나)는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오답인 이유 ㄱ.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다)의 ‘선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을 축하하는 ‘기자’의 말에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겸손하게 말하는 ‘선수’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속담은,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이다.

오답인 이유 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②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이다.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06 (라)에서 ‘딸’은 어제 토마토를 심고 그다음 날 열매가 열리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묻고 있다. 즉, ‘딸’은 일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결실을 바라본 것이다. 이와 같은 ‘딸’의 말은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우물에 가 송냥을 찾는다’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밀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밀전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평소애 흔하던 것도 막상 긴하게 쓰려고 구하면 없다는 말이다.

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07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축제 준비로 지친 ‘남학생’의 상황처럼 몹시 지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오답인 이유 ①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은 ‘머리(를) 식히다’이다.

③ ‘먹은 것이 없어서 배가 훌쩍하고 몹시 허기지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은 ‘배가 등에 붙다’이다.

④ ‘어떤 일이나 말 따위가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은 ‘입이 쓰다’이다.

⑤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은 ‘발(이) 묶이다’이다.

08 **서술형**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쓰인 ㉠처럼 낱말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는 낱말 그대로 ‘가야 하는 길이 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관용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의 뜻을 대조하여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썼다.	☐

09 관용 표현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관용 표현은 하나의 낱말처럼 쓰이기 때문에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없다.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간결하게 나타낸 말은 격언이다.

10 학급에서 함께 지킬 수 있는 다짐을 만들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학생 1’은 서로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생 2’는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서로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청하자는 뜻을 지닌 말로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는 다짐’을 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귀를 기울이다’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므로, ㉠에 적합한 표현이다.

오답인 이유 ① ‘귀를 세우다’는 ‘듣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눈(을) 맞추다’는 ‘서로 눈을 마주 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머리(를) 맞대다’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⑤ ‘눈길(을) 모으다’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완자쟁이의 풀이

관용 표현은 낱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뜻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그렇다고 낱말의 본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야. 따라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낱말의 본뜻에서 그 표현의 의미를 추측해 보렴.

11 〈보기〉의 ‘여학생’은 ‘매우 안타깝고 다급해하다.’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인 ‘발을 구르다’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반면 ‘남학생’은 같은 상황에 대해 관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말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상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용 표현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2 ‘발을 뺀다’는 ‘걱정되거나 애쓰던 일이 끝나 마음을 놓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으로,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뒤 교육계로 진출한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어울리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에는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라는 뜻을 지닌 ‘발을 디디다’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손(을) 끊다’는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눈(에) 띄다’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뜻이나 ‘수단이 좋고 많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④ ‘입(을) 막다’는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13 명언이나 격언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다.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만 쓰이는 말은 관용 표현이다.

참고 자료

격언과 명언의 개념 및 특성

구분	격언	명언
개념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특성	• 삶의 올바른 이치, 도덕률, 행동 규범 등을 강조함. •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을 줌.	

14 〈보기〉의 명언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하는 동생에게 이 명언을 인용하여 충고해 준다면, 동생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② 결혼을 앞둔 누나에게 축하해 주는 상황이므로, 사랑이나 결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명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친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명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짓기 대회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해 낙심한 친구에게 조언하는 상황이므로,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데일 카네기).”와 같은 말을 해 줄 수 있다.

⑤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는 친구에게 충고해 주는 상황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와 같다(이항).”와 같은 말을 해 줄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명언이나 격언은 그 말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말을 인용한다면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단다. 물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겠지?

15 만화 속 ‘여우’는 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높아 안 닿는다며 포도를 먹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따라서 포도를 따기까지의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지닌 ‘처칠’의 명언을 활용하여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6 이 글의 글쓴이는 요즘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귀중함을 모른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끼다’ 통될지라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7 **서술형** 이 글의 (라)에 제시된 ‘아끼다 통 될지라도’는 ‘아끼다 통 된다’라는 속담을 재구성한 것이다. ‘아끼다 통 된다’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 글쓴이는 이 속담을 재구성하여 아끼다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18 ㉠은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관용 표현이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차려진 진수 성찬을 몹시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낸 ㉡의 ‘침을 삼켰다.’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③ 밑줄 친 표현은 낱말 그대로 침을 목구멍으로 삼킨 행위를 나타낸다.

④, ⑤ 밑줄 친 표현은 ㉠과 같은 관용 표현이지만, ‘자기 소유로 하고자 몹시 탐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과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자쌤의 풀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관용 표현은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외우는 것은 어려워. 따라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알아내거나, 그 표현이 관용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해. 낱말의 뜻 그대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그 표현이 어떤 문맥 안에서 쓰였는지 판단해 보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대단원 평가



286~291쪽

- 01** ⑤ **02** ③ **03** ① **04** ⑤ **05** ④
06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화함으로써 장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07** ⑤ **08** ④ **09**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재미를 줄 수 있다.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등 **10** ④ **11** ④
12 ④ **13** ② **14**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15 ② **16** ② **17** ④ **18** ㉠: 배꼽을 쥐다, ㉡: 시간 가는 줄 모르다 **19** ① **20** ④ **21** ②
22 ③

01 (가)의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는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논평한 것으로,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분노한 ‘어사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 삽입된 시는 ‘어사또’가 지은 것으로, 탐관오리인 ‘변 사또’의 폭정과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다. ‘어사또’가 시를 지은 것을 계기로 즐거웠던 잔치 분위기가 바뀌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변 사또’의 생일잔치가 열린 남원의 관아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잦은 공간 이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은 ‘어사또’와 ‘변 사또’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편집자적 논평

개념	소설에서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등에 대하여, 서술자가 직접 그 내용에 개입하여 논하고 비평하는 것을 말함.
특징	•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감. •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현대 소설보다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남.

02 ‘운봉’이 시를 지어 보자고 한 것은, 잔치에 풍류를 더하기 위한 것일 뿐, ‘어사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라)에서 ‘변 사또’는 낱말의 순서를 바꾸어 말하는 것과 같이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 사또’가 이처럼 정신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어사출두에 놀라 혼비백산하였기 때문이다.

② (마)에서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다)에서 ‘어사또’가 눈길을 주자 ‘역졸들’이 서로 신호를 전하면서 어사출두를 준비하였다.

⑤ (마)에서 ‘어사또’는 자신에 대한 ‘춘향’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수청을 들라며 ‘춘향’의 마음을 떠보고 있다.

03 ㉠은 음식인 갈비와 신체 부위인 갈비의 말소리가 같은 것에 착안한 언어유희 표현이며, ㉡은 낱말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어색한 표현이 되도록 한 언어유희 표현이다.

언어유희

참고 자료

개념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 방법으로,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유희를 뜻함.
방법	- 동음이의어나 발음이 유사한 말을 활용하는 방법 - 비슷한 음운을 활용하는 방법 - 말(낱말)의 배치를 바꿔서 활용하는 방법

04 ㉠은 ‘어사또’가 지은 시로, 탐관오리인 ‘변 사또’의 폭정과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시는 즐거웠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편 ‘어사또’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05 (라)에서는 말풍선 속의 대사만을 전달하고 있을 뿐, 줄글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변학도’의 표정과 생김새를 통해 ‘변학도’의 인색하고 웅졸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② 문장 기호인 ‘느낌표’를 활용하여 ‘몽룡’의 시를 듣고 놀란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③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몽룡’의 얼굴을 확대하여 그림으로써,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어사또’의 부당한 요구를 듣고 어이없어하는 ‘춘향’의 심리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과 느낌표 등으로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06 **서술형** (가)에 쓰인 ‘씩’은 ‘몽룡’이 잔치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라)에 쓰인 ‘와장창’은 역졸들이 관아를 덮치면서 잔치 자리에 놓여 있던 그릇들이 깨지는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만화에 쓰이는 음성 상징어는 인물의 동작이나 외양,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체화함으로써 장면에서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07 (마)는 하나의 장면인데도 말풍선의 글자체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은 다른 말풍선의 글자체보다 굵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말을 강조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다.

08 (가)의 ‘변 사또’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로 ‘춘향’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춘향’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변 사또’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뿐, 새로운 모습이나 장면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서술자가 ‘변 사또’가 술주정을 하고 있다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에서는 ‘변 사또’가 술에 취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에서는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챈 ‘운봉’이 공방, 병방, 옥사정 등을 불러 주변을 단속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삭제하였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어사또’의 시를 들은 사람들이 살금살금 자리를 뜨는 모습을 추가하였다.

⑤ (가)에서는 ‘어사또’의 시를 들은 ‘운봉’과 ‘변 사또’의 반응만 나타나고 있지만, (나)에서는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사또’의 시에 놀라서 옆의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09 **서술형** (가)는 고전 소설이고, (나)는 만화이다. 만화는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 또한 소설의 내용을 만화로 재구성하면서 생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추해 보는 재미도 있다. 이처럼 같은 작품도 갈래가 달라지면 표현만이 아니라 그 감상 과정도 달라진다.

평가 기준	확인 ☒
갈래적 특성을 바탕으로 만화의 특성이 작품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썼다.	☐

10 ‘어사또’의 시를 들은 ‘운봉’은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고는, 주변을 단속하기 시작한다. 이는 ‘운봉’이 ‘어사또’가 지은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는 시의 뜻을 이해하고, ‘어사또’의 신분이 범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1 ㉠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며, ㉡은 ‘갈 길이 멀다’라는 관용 표현이다. 이와 같은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내용을 인상 깊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은 속담, ㉡은 관용 표현이다.

② 속담은 대체로 문장 형태로 쓰이는 반면에, 관용 표현은 주로 구나 절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속담이 관용 표현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길다.

③ 속담이나 관용 표현은 모두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다.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한 것은 명언이다.

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속담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는 관용 표현과 비슷하지만, 속담에 쓰인 낱말 본연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12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갈 길이 멀어서 누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남학생’의 말을 고려할 때,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을 활용한 ‘파김치가 됐네.’가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다.

오답인 이유 ① ‘입이 쓰다’는 ‘어떤 일이나 말 따위가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발이 묶이다’는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귀가 따갑다’는 ‘소리가 날카롭고 커서 듣기에 괴롭다.’ 혹은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⑤ ‘머리를 굽히다’는 ‘굴복하거나 저자세를 보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13 〈보기〉의 ‘선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을 자신의 공이 아닌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를 활용하여 ‘선수’를 겸손하다고 평가한 ②가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뜻과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의 속담이다.

③ ‘천 냥 빚도 말고 갚는다’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속담이다.

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속담이다.

14 서술형 <보기>의 대화 상황에서 학생들은 주말에 만나서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고만 있을 뿐,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물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의 속담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속담은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5 ‘ㄱ’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함을, ‘ㄷ’은 실천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로, 모두 도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ㄴ’과 ‘ㄹ’은 친구와 우정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는 말이다.

16 (가)에서 글쓴이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배워 온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글쓴이에게 해 주고 있을 뿐, 글쓴이가 자신의 아이에게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아이가 글쓴이에게 말한 토끼를 아껴 먹으려다 토끼가 썩어서 흠이 되어 못 먹게 된 여우 이야기, (나)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자린고비와 구두쇠 이야기 등을 통해 아끼는 태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의 첫 문장에서 글쓴이가 교실을 청결하게 정돈할 때 기분이 좋다고 말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④ (다)를 통해 글쓴이가 학생들에게 줄 고구마를 아침에 써서 학교에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⑤ (다)~(라)에서 글쓴이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며, 모든 것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17 ㉠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아끼다 똥 된다’라는 속담을 재구성한 표현이다. 글쓴이는 읽는 이에게 익숙한 속담을 재구성하여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가)에서 제시한 여우와 관련된 우화는 ‘아끼다 똥 된다’는 속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글쓴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지는 않다.

18 서술형 이 글은 속담과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보기>에 제시된 뜻풀이와 글의 문맥으로 보아 ㉡에는 ‘배꼽을 쥐다’, ㉢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다’라는 관용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썼다.	☐
㉢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썼다.	☐

19 (가)에서 ‘춘향’은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 꿈이 깰까 염려로다.’라고 말하며 어사가 되어 돌아온 ‘몽룡’과 재회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의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끝까지 ‘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춘향’이 ‘몽룡’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의 ‘춘향’은 ‘변 사또’가 기력이며 권세도 흠잡을 곳이 없고 호걸은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⑤ (나)의 ‘춘향’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몽룡’에 대한 절개를 저버리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절개’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나)의 ‘춘향’이 남녀 관계에 대한 유교적 가치를 따르고자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나)의 ‘춘향’은 지조나 절개와 같은 정신적 가치보다 부귀영화와 같은 실리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신적 가치보다 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재의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 (나)의 작가는 (가)를 (나)와 같이 재구성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1 ㉠에서 ‘춘향’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높은 절벽’과 ‘높은 바위’, 눈이 와도 변하지 않는 ‘푸른 솔’과 ‘푸른 대’에 빗대어 ‘몽룡’에 대한 절개를 꺾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야청청’은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기에 알맞다.

오답인 이유 ① ‘간담상조’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는 뜻하는 말이다.

③ ‘명불허전’은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파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경거망동’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뜻하는 말이다.

⑤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22 ㉡는 문자 그대로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뜻한다. 반면에 <보기>의 밑줄 친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으로, ‘남을 땀땀이 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①
06 ⑤	07 ④	08 지진 발생 시 대처법	09 ③	
10 ①	11 ②	12 ①	13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려 하였다.	14 ⑤
				15 ⑤
16 ③	17 ④	18 ⑤	19 ①	20 사람
				들이 '어사또'의 정체를 짐작하여 놀란 상황임을 나타낸다.
21 등잔 밑이 어둡다	22 ①	23 ③	24 ③	
25 ①				

01 매체 자료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음성이나 문자 매체를 보완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자료를 말한다.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읽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매체 자료는 오히려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되므로 매체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③, ⑤ 매체를 활용한 글을 읽을 때에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에 사용된 여러 자료가 매체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02 제시된 공익 광고는 인물의 사진을 활용하고 있지만, 유명인을 등장시키고 있지 않다. 얼굴의 일부만을 보여 주어 특정 대상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누구든지 스마트폰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⑤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여 공익 광고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라는 문구 아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줄글의 형태로 자세히 전하고 있다.

④ 광고 문구의 내용을 사진으로 표현하여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 공익 광고는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사진으로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광고의 설득 전략

광고의 설득 전략

-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
-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
-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
- 웃음이나 감동을 유발하는 전략
-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



광고의 목적과 사용 매체 등에 적합한 설득 전략의 구사 여부에 따라 광고의 성패가 결정됨.

참고 자료

03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로,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를 말한다. 따라서 노안 환자 대부분이 젊은 세대라 할 수 없다. 글에서는 스마

트폰으로 인해 노안을 겪는 젊은 환자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스마트폰 노안은 눈 주변의 근육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어깨로 이어지는 신경에도 악영향을 주며, 거북목 증후군 및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스마트폰 노안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청소년, 즉 젊은 세대는 눈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니 스마트폰 노안의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가)의 그래프를 통해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스마트폰 노안은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4 (가)에서 노안과 관련하여 중학생이 말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만, 음성 자료가 아닌 문자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잘 보이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 (나)에서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을 '첫째는, 둘째는'과 같은 표지를 이용하여 열거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동영상 쉽게 게시할 수 있는 블로그의 특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맥락과 동영상의 출처, 거북목 증후군을 보여 주는 듯한 캡처 사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가)에서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한 그래프를 활용함으로써, 젊은 세대 역시 노안의 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05 강연에 사용할 매체 자료를 마련할 때, 듣는 이가 처음 접하는 자료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강연 장소와 시간, 듣는 이, 목적 등에 맞는 자료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강연 내용을 잘 뒷받침하는지, 강연 중 적절한 부분에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② 매체 자료는 강연의 내용과 관련 깊은 장면에 적절하게 들어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③ 매체 자료는 강연 내용을 타당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④ 사용하는 매체 자료가 발표 내용에 어울리고 듣는 이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⑤ 사용하고자 하는 매체 자료가 강연 장소와 시간, 듣는 이 등 상황 맥락에 적합해야 한다.

06 강연자는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강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피피티(PPT)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연의 주제와 내용을 집약적으로 안내할 수 있고, 청중의 흥미를 유도하여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강연 내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가)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 강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강연자의 전문 지식,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으로 확보될 수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강연 순서를 제시해 강연의 내용 및 흐름을 안내한다.
 ②, ④ 영화 포스터를 통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여, 강연 내용에 집중하도록 한다.
 ③ 강연의 중심 화제가 '지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07 강연 중에 사용할 매체 자료는 강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은 '지진'이라는 화제와 무관하다.

- 오답인 이유** ① '환태평양 조산대'를 언급하고 있는 (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②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고 있는 (다)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③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나)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⑤ 우리나라의 지진 피해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완자쌤의 풀이

강연자는 매체 자료를 보여 주기 전에, 특정한 동작('사진을 가리키며', '그림을 가리키며' 등)이나 안내하는 말(『살펴볼까요? 등』을 하고 있어. 이러한 강연자의 말과 동작을 살펴보면 강연자가 활용할 매체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지.

08 **서술형** (가)에 안내된 강연 순서에 따라 (나)에서는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다)에서는 지진 피해 사례를, (라)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제시되었으므로, (라) 뒤에 이어질 강연 내용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임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라) 뒤에 이어질 강연 내용이 '지진 발생 시 대처법'임을 제시하였다.	☐
4어절에 맞추어 썼다.	☐

09 (나)에 '지층에 작용하는 큰 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대륙의 이동이나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등에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에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에 지진의 강도에 따라 피해가 다르다고만 나와 있을 뿐, 강한 지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다.
 ⑤ (라)에 언급된 대형 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지진을 다룬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 (가)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의 문제를 다룬 카드 뉴스이다. 글쓴이는 이 카드 뉴스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 사이버 불링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11 카드 뉴스는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는 형식이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인 이유** ①, ③ 카드 뉴스는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로, 누리 소통망(SNS)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④, ⑤ 카드 뉴스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제시한 뉴스로, 일반적으로 화면을 옆으로 밀어 보는 방식으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12 (나)의 강연자는 "만약 지금 당장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며 청중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후, 청중에게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 오답인 이유** **다.** 청중의 질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지진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르. 강연자는 공간별로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경험한 일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13 **서술형** ①의 그림에서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그 아래 괴로워하는 사람을 표현하여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려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의도임을 밝혔다.	☐



완자쌤의 풀이

①에서 시각화된 손가락 모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 손가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주목해 보.

14 맥락상 ㉠의 표에는 강연자가 앞서 언급한 장소에 따른 지진 대처법을 정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강연자는 "대피한 다음에는 전신주나 자판기 등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물 근처에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는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5 (나)는 (가)의 주제와 배경, 사건의 흐름, 주인공 및 등장인물의 성격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현 방식만을 달리하여 재구성하였다. 줄거로 이루어진 소설에 비해 (나)의 만화는 시각적 요소가 강조되며 등장인물의 표정과 행동, 시공간을 나타내는 그림, 대사와 생각을 나타낸 말풍선, 그리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줄거로 구성된다.

16 (가)의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내가 쳐라.'는 '본관 사또'를 혼내 주겠다는 '어사또'의 다짐이기는 하나, 자신의 죄를 '본관 사또'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은 아니다.

- 오답인 이유** ①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를 이용한 언어유희에서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②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 담긴 '어사또'의 시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④ '어사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걸인으로 위장하여 '본관 사또'의 잔치판에 끼어들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흥미를 더하고 있다.
- ⑤ (가)는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판소리계 소설

참고 자료

개념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
특징	-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과 산문이 혼합된 문체가 나타난다. - 한문투의 언어와 평민층의 속어 및 재담 등이 섞여 있음. - 삶의 애환에서 오는 비장함과 구수한 해학, 부정된 것에 대한 풍자 등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잘 보여 줌.

17 시각 매체로서 만화의 연출적 특성 중 하나는 소리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다. 소리에는 음색이 있어 같은 소리라도 크기, 강약, 빠르기, 깊이 등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만화에서는 주로 보통의 대화에서는 둥근 모양의 형태를, 화가 나가거나 큰 소리를 지를 때는 날카롭고 비죽비죽 튀어나온 형태를, 기쁘거나 들뜬 상태일 때는 양털 구름처럼 둥글둥글한 형태로 말 칸을 표현한다.

18 <보기>는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다. ㉠의 '어찌 아니 통분하랴'는 다른 수령의 다과상과 '어사또'의 초라한 상을 비교하며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드러낸 표현이다.

19 ㉡는 대구와 은유를 통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한 시이다. 따라서 가혹한 정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한자 성어 '가림주구(苛斂誅求,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와 그 의미가 통한다.

오답인 이유 ② 등화가친(燈火可親): 등불을 가까이할 만하다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졸음을 이르는 말.

③ 난형난제(難兄難弟):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개과천선(改過遷善):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이르는 말.

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

20 서술형 ㉠은 주위 사람들이 '어사또'의 시를 듣고 놀란 상황을 말풍선 안의 느낌표로 통해 시각화하여,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채고 놀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드러냄을 썼다.	☐
'~ 상황임을 나타낸다.'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21 서술형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활용한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도 몰랐네요.'의 의미를 좀 더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2 <보기>에서 '딸'은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식물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딸'에게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를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우물에 가 송넵 찾는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조언해 줄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②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 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보기>는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만화에서는 '파김치가 되다(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 '갈 길이 멀다'(1)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 (2)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많이 남아 있다.', '나 몰라라 하다(어떤 일에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간섭하지도 아니하다.)'라는 3개의 관용 표현이 사용되었다.

24 만화 속 남학생이 한 말 중 '갈 길이 멀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반면 ③에 쓰인 '갈 길이 멀다'는 낱말 그대로 '가야 하는 길이 멀다'라는 뜻이다.



원자샘의 풀이

'갈 길이 멀다'가 관용적 표현으로 쓰였는지, 낱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쓰였는지 구분해 봐.

25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은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내용의 표현이다.

오답인 이유 ② 시간에 관한 표현으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속성을 바탕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우정에 관한 표현으로, 자신이 먼저 완전한 친구가 될 것을 권하고 있다.

④ 사랑에 관한 표현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삶의 방향이나 가치 등이 서로 일치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

⑤ 사랑에 관한 표현으로, 인생에서 사랑이 주는 기쁨과 그 가치를 담고 있다.



- 01 ⑤** **02 ③** **03**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고,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04 ⑤**
- 05 ⑤** **06 ⑤** **07** 사진과 그림을 합성하여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자로 가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을 그 위에 제시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08 ②** **09 ⑤** **10 ④** **11 ④** **12** 전달하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13 ④** **14 ②** **15 ②** **16 ②**
- 17 ③** **18 ④** **19 ⑤** **20 ①**은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은 낱말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는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1 ③**
- 22 ⑤** **23** • 속담: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 그 의미: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24 ⑤** **25 ①**

01 (나)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노안을 겪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제시해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의 공익 광고는 인상 깊은 광고 문구와 시각 자료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을 뿐, 전문적인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사진과,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한 글을 통해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잘 보이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림을 제시하여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문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스마트폰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시하여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④ (가)는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이며, (나)와 (다)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알려 주는 블로그 글이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생산자가 읽는 이에게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02 <보기>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고위험과 잠재적 위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나)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기>를 활용하여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는 광고문이므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에서는 특정 연령을 지목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을 보여주는 <보기>를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신중 노안’을 겪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보기>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노안 환자 증가율을 보여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④, ⑤ (다)에서는 젊은 세대에 많이 발생하는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보기>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비교하여 드러낼 뿐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과는 거리가 먼 자료이다.



완자쌤의 풀이

우선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 다음 그 내용이나 정보가 지문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 <보기>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나타내는 자료로, 청소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나)를 보면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라는 정보가 드러나므로 <보기>가 (나)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03 **서술형** (가)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구의 내용을 사진으로 표현하여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가)는 강한 인상을 주는 사진과 광고 문구로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였음을 썼다.	☐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썼다.	☐
광고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썼다.	☐

04 (나)에서는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노안 증세가 나타나고, (다)에서는 스마트폰 노안은 합병증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다)를 통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스마트폰 노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학생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인 이유 ① (나)~(다)에서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다)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다)를 통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스마트폰 노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치료법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④ (나)~(다)에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 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05 제시된 자료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제시한 카드 뉴스로, 누리 소통망(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매체이다.

06 (가)는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고는 있지만, 사이버 불링 전문가의 발언을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대학생 ○○(25) 씨는 누리 소통망(SNS)에 남긴 글이 논란이 돼 사이버 불링을 당했습니다.'와 같이 사례를 제시하여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경찰청 통계', '2016년'과 같이 자료의 출처를 밝혀 읽는 이가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만 4천 건'과 같이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컴퓨터 자판을 치는 사람의 손 사진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이라는 뉴스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7 **서술형** ①에서는 사진과 그림을 합성하였으며, 상자로 얼굴을 가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①에서 사진과 그림을 합성하였음을 썼다.	☐
①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상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과,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을 제시하였음을 썼다.	☐
①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음을 썼다.	☐

카드 뉴스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

참고 자료

글	- 두세 문장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함. -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줌.	→	내용을 압축하여 핵심을 강조하고, 읽는 이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기려 함.
그림	- 특정 장면을 확대함. - 그림으로 상황을 묘사함.	→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려 함.

08 ㉠에서 '키아라 나스티의 일침을 되새겨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읽는 이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내용으로 사이버 불링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으세요.'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③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으세요.'라는 문구에서 글자의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읽는 이에게 인

상을 강하게 남기려 하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검정색 배경은 사이버 불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얀색 배경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색을 대비하고 있다.

⑤ 뒷 배경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인물을 제시하여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09 이 글은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설명하는 강연문이다. 이 강연에서 지진 피해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는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 '지진 피해 사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 발생 시 대처법'과 같은 지진과 관련된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라)에서 지진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듣는 이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영상, (나)의 사진, (다)의 그림, (라)의 표와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여 듣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그럼 다음 영상을 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이렇게 무서운 지진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듣는 이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다음에 설명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10 (라)에서는 실내에 있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하고 방석,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은 강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 해일과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지진이 해일과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지진은 대륙의 이동이나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등에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③, ⑤ (다)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쉬운 지운 지역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였다. 최근에도 이 지역에 있는 일본 구마모토 현과 남미 에라도르 등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11 강연자는 ㉠에 대해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쉬운 지역을 붉은 띠로 나타낸 지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을 통해 지진 발생 횟수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인 이유 ①, ② ㉠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이는 강연 중에 제시되어 분위기를 환기할 뿐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③ ㉠은 지진 발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이를 통해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한다.

⑤ ㉡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특히 건물 안에 있을 경우와 건물 밖에 있을 경우의 지진 대처법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매체 자료의 종류와 특성

참고 자료

표, 그래프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줌.
그림, 사진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줌.
동영상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보여 줌.

12  그림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을 <보기>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자쌤의 풀이

이 문항에서는 매체 자료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해야 해. 글을 그림으로 전달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렴.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로서 그림의 특성을 썼다.	☐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였을 경우의 장점을 썼다.	☐

13 「춘향전」은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고전 소설이다. 지은이를 알 수 없고 이본(異本)이 많은 작품으로,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춘향전」은 자유연애 사상과 인간 평등사상을 고취한 반봉건적 문학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조선 후기 서민의 풍속과 당대 사회에 싹트고 있던 근대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② 「춘향전」은 판소리 특유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다. (가)와 (다)에서 언어유희가 나타나며, (다)의 허둥대며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③ 「춘향전」은 판소리게 소설로 문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⑤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찌 일일이 말로 하겠는가.」,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 것인가.」, 「위의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으랴.」 등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14 (나)의 느낌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사또」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놀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어사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몽룡」은 개다리소반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각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상을 발로 차고 있다. 따라서 「어사또」가 통분한 것은 다른 수령들의 다과상과 달리 자신의 상차림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어사출두에 놀란 「본관 사또」는 명석에 숨어 덜덜 떨며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

④ 「춘향」은 「어사또」의 수청 요구에 「내려오는 사또마다 모두 명관이

로구나.」라고 「어사또」를 비꼬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춘향」이 새로 온 「어사또」마저 수청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어이가 없어함을 알 수 있다.

⑤ (마)의 「구경 왔던 남원 고을 백성들도 얼싸구 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한 데서 마을 사람들이 「춘향」이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나)~(라)는 소설 「춘향전」을 재구성한 만화이다. 만화는 그림, 말풍선, 줄글을 기본 요소로 이야기를 구성하며, 내용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16 「춘향전」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치는 죽음을 무릅쓰고 상대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 하는 「정절」이다. 「효심」은 현대에도 유의미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춘향전」과 관련이 없다.



완자쌤의 풀이

「춘향전」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작품이야. 「춘향전」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공존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지고 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지. 인간 평등 사상과 같은 이면적 주제는 전통적으로 계승할 가치가 있단다.

17 (나)의 시는 「본관 사또」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의 고통을 대비하여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질타하는 것으로, 재미있게 꾸민 말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인 언어유희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인 이유 ①, ②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많은 백성의 피요,」 「옥그릇의 아름다운 안주는 많은 백성의 기름이라.」에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무엇(원관님)은 무엇(보조 관님)이다」 형태의 비유 표현인 은유법 또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사법을 통해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몽룡」의 시는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양반과 백성이 서로 다를 것이 없다는 평등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몽룡」의 시는 「암행어사 출두」라는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18 (다)에서는 역졸과 서리를 피하려는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을 한 칸 안에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와장창!」, 「덜덜!」, 「휘!」, 「땡!」과 같이 의성어의 크기와 서체를 달리하여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야!」라는 글씨의 크기를 키워 상황을 강조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잡는 서리·역졸들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암행어사 출두 이후 거적에 숨어 벌벌 떨고 몽둥이에 맞아 아파하는 「본관 사또」의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⑤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글씨를 날카롭고 비죽비죽 튀어나온 형태의 말풍선을 활용하여 말의 느낌을 살려 표현하고 있다.

19 (라)에서 '춘향'은 '어사또'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높은 바위', '푸른 나무'는 '춘향'의 절개를 나타내며, '바람'과 '눈'은 '춘향'이 겪는 시련을 의미한다.

20  ㉠은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의 발음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은 '바람 들 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의 문장에서 '바람'과 '문', '목'과 '물'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때 ㉠과 ㉡은 모두 언어유희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썼다.	☐
㉡이 문장에서 낱말의 위치를 바꾸어 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썼다.	☐
㉠과 ㉡이 모두 언어유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썼다.	☐



완자쌤의 풀이

언어유희는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비슷한 음운을 사용하거나 문장 안에서 단어의 배치를 바꾸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21 (가)는 여러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나)는 길을 가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약도를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어울린다.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⑤ '우물에 가 송충 찾는다'라는 속담은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22 (다)에서 '딸'은 휴대 전화를 찾다가 '아버지'가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해 주자 책상 위를 살펴보고 휴대 전화를 찾았다. '눈을 크게 뜨다'라는 관용 표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딸'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배꼽을 쥐다'라는 관용 표현은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에서 '아버지'는 '딸'을 보며 웃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머리를 맞대다'라는 관용 표현은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휴대 전화가 책상 위에 있음을 알려 주고 있지 '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손을 내밀다'라는 관용 표현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에서 '딸'은 스스로 휴대폰을 찾고 있으며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귀 밖으로 듣다'라는 관용 표현은 '남의 말을 성의 있게 듣지 않고 듣는 듯 마는 듯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에서 '딸'은 책상 위에 휴대 전화가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완자쌤의 풀이

이 문항은 (다)에 제시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문제이다. 먼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지를 판단해 본 후, 관용 표현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좋을 거야.

23  (라)에서 '선수'는 최고 기록 경신을 칭찬하는 '기자'의 말에 겸손한 태도로 대답을 하고 있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은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겸손한 '선수'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라)의 '선수'의 말하기 태도에 어울리는 속담을 바르게 썼다.	☐
(라)의 '선수'의 말하기 태도에 어울리는 속담의 의미를 바르게 썼다.	☐

24 ㉠~㉣은 모두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인 관용 표현으로,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해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된다.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상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25 (바)의 ㉢은 친구를 얻으려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상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오답인 이유 ② ㉡과 ㉢ 모두 격언이나 명언이다. 제시된 설명은 속담을 가리킨다.

③ 제시된 설명은 관용 표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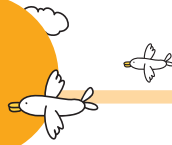
④ ㉢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 상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라는 의미이다.

⑤ ㉡과 ㉢은 명언이다.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은 명언을 가리키므로 ㉢의 설명은 맞다. 그러나 ㉡의 설명은 속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친해





(1)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알짜 요약정리

● 02~03쪽

- 1 일가친척 2 정신적 3 연민 4 꽃
- 5 세속의 때



어휘 시험

04~05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당숙 |
| 6 형국 | 7 해빙 | 8 초입 | 9 ㉠ | 10 ㉡ |
| 11 ㉢ | 12 시효 | 13 간수 | 14 언성 | 15 기미 |
| 16 남세 | 17 췌기 | 18 농치고 | 19 부득불 | 20 지그시 |

1 '갈취하다'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다.'라는 뜻이다. '불량배들이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분개하다'는 '몹시 분하게 여기다.'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오만불손한 그의 말에 모두 분개하였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유야무야'는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이라는 뜻이다.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돌아치다'는 '나대며 여기저기 다니다.'라는 뜻이다. '그 수다쟁이는 온 동네를 돌아치며 그 일에 대해 소문을 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아버지의 사촌 형제로 오촌이 되는 관계.'는 '당숙'이며 '종숙'이라고도 한다. '시숙'은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6 '어떤 일이 벌어진 형편이나 국면.'은 '형국'이라고 한다. '포획'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이라는 뜻이다.

7 '얼음이 녹아 풀림, 서로 대립 중이던 세력 사이의 긴장이 완화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해빙'이다. '결빙'은 '물이 얼.'이라는 뜻이다.

8 '골목이나 문 등에 들어가는 어귀.'를 가리키는 말은 '초입'이다. '단초'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즉 실마리.'라는 뜻이다.

9 '어린이이용의 마지막하고 등근 밥상.'은 '도리밥상'이라 한다. '교자상'은 '음식을 차려 놓는 사각형의 큰 상.'을 가리킨다.

다. '종지'는 '간장·고추장 등을 담아 상에 놓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을 가리키며, '쟁반'은 '운두가 얇고 동글납작하거나 네모난 그릇으로, 음식 그릇을 받쳐 드는 데 쓰는 물건.'을 가리킨다.

10 '아주 가까운 거리.'는 '지척'이라 한다. '지름길'은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을 '농로'는 '농사에 이용되는 길.'을, '우사'는 '마소를 기르는 곳.'을 가리킨다.

11 '오리무중'은 '오 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실직고'는 '사실 그대로 고함.'의 뜻으로 '이실고지'라고도 한다.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이라는 뜻이다. '안절부절'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가리킨다.

12 약속한 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시효'가 들어가야 한다. '시효'는 '일정한 법규에 따라 생기는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시키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13 생일 선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간수'가 들어가야 한다. '간수'는 '물건 따위를 잘 거두어 보호하거나 보관함.'이라는 뜻이다.

14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언성'이 들어가야 한다. '언성'은 '말하는 목소리.'라는 뜻이다.

15 밤이 늦어도 그녀가 떠날 눈치가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기미'가 들어가야 한다. '기미'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야릇한 분위기.'라는 뜻이다.

16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를 뜻하는 말은 '남세스럽다'이다. '남우세스럽다'로 표기하기도 한다.

17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는 물건.'을 뜻하는 말은 '췌기'이다. 여기서 '사개'는 '상자 따위의 모퉁이를 끼워 맞추기 위하여 서로 맞물리는 끝을 들쭉날쭉하게 파낸 부분. 또는 그런 짜임새.'를 뜻하는 말이다. '췌기'는 '췌기를 박다'와 같은 관용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췌기를 박다'는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다.'라는 뜻이다.

18 '어떤 행동이나 말 등을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를 뜻하는 말의 올바른 표기는 '농치다'이다.

19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나 마지못하여.'를 뜻하는 말의 올바른 표기는 '부득불'이다.

20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이나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을 뜻하는 말의 올바른 표기는 ‘지그시’이다. ‘지긋이’는 ‘그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 / 아이는 나이답지 않게 어른들 옆에 지긋이 앉아서 이야기가 끝나길 기다렸다.’와 같이,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 참을성 있게 끈지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꼭지 시험

06~07쪽

- 1 × 2 ○ 3 ○ 4 일가 5 간첩
6 편지 7 불편해함.(답답해함.) 8 아저씨의 존재
9 미안함 10 아저씨의 말투를 닮아감.
11 눈물을 흘림. 12 ① 13 ③

1 말하는 이는 이야기를 읽는 이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이다. 즉 말하는 이는 작가가 설정한 인물로, 작품 속의 세계를 전달한다. 따라서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작가가 아니라, 작가가 내세운 대리인이다.

2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열여섯 살의 청소년인 ‘한희창’이다.

3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일가라는 아저씨가 집에 찾아온 일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열일곱 살이 된 ‘나’는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이는 ‘나’가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이다.

4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아 들었던 ‘나’의 기분은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불쾌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바뀌었다.

5 ‘아저씨’가 북한식 사투리를 사용하자, 나는 ‘아저씨’를 간첩이라 생각하였다.

6 ‘아저씨’가 신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미옥’의 편지만을 생각하며 ‘아저씨’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7 ‘나’는 ‘아저씨’가 온 이후로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나 자유롭지 못해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아저씨’가 예의범절을 따져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8 ‘엄마’와 ‘아버지’가 다투게 된 표면적 원인은 ‘미옥’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갈취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이면에 ‘아저씨’의 존재가 ‘엄마’와 ‘아버지’가 다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9 ‘아저씨’는 ‘아버지’께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 자신 때문이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10 ‘나’의 가족들이 ‘아저씨’의 독특한 말투인 “……도 차암.”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것은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저씨’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11 ‘아저씨’가 떠난 후 ‘나’는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다.

12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였다. ②는 1인칭 관찰자 시점, ③은 3인칭 관찰자 시점, ④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13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꼭지 시험

07쪽

- 1 꽃 2 대화 3 ○ 4 × 5 ○
6 ③ 7 ④

1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이는 ‘잡초’라 여기며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민지’는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부여하였다.

2 이 시는 “잘 잤니.”, “그게 뭘테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와 같이 ‘민지’와 말하는 이의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3 이 시에는 어른인 말하는 이와 어린아이인 ‘민지’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민지’가 아니라 어른인 ‘나’이다.

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잡초도 ‘꽃’이라고 말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보면서, 세속의 때가 묻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6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에서 이 시가 말하는 이의 일상적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강원도 어느 골의 모습을 향토적으로 그려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하는 이는 ‘민지’와 달리 세속의 때가 묻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7 말하는 이가 ‘민지’에게 “그건 꽃이 아니라 잡초야.”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고,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알짜 시험



08~11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 아버지와 엄마(어머니), ㉡: 편지 갈취, ㉢: 아저씨의 존재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 일 년 전의 '나'는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 현재의 '나'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렸다. 11 ⑤

01 '엄마'가 중국에서 찾아온 친척인 '아저씨'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엄마'는 '아저씨'를 부담스러워하고 '아저씨'의 방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나'는 '아저씨'가 계속 자신의 집에 머물자 불편해하고,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저씨'를 '형님'으로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으며, '나'에게 '아저씨'를 불편함 없이 잘 모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02 '아저씨'는 "일가가 좋긴 좋구만이, 침 보는 데도 고저 피가 확 땀기는 거이,"라며 일가를 만난 것을 기뻐하지만, '나'는 일가라는 '아저씨'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나)에서 '나'는 '아저씨'와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바야흐로 혈육 상봉의 감격적인 순간인가? 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어 줘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나'는 '아저씨'가 "어데로 갑네?"처럼 북한식 사투리를 사용하자, '아저씨'를 간첩으로 여겨 무서워하였다.

②, ④ (라)에서 '나'는 '아저씨'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다.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나 자유롭지 못해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아저씨'가 예의범절을 따져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였다.

⑤ (라)와 (마)로 보아, '아저씨'는 일꾼처럼 분주하게 일하고 밥을 달라고 하는 등 넉살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 그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03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꾸밈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소설의 말하는 이인 '나'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가)의 '나는 편지를 뜯어보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밤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에서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말하는 이는 '나'(한창희)이다.

② 말하는 이는 작품 속 주인공이다.

③ 소설에서 '말하는 이'란 이야기를 읽는 이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를 말하며, '보는 이'란 특정 대상이나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는 존재를 말한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와 보는 이는 '나'로 같다.

④ '나'는 우리 집에 찾아온 일가라는 '아저씨'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점의 개념과 종류

시점은 소설에서 서술자가 있는 위치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 소설에서 시점은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서술자의 위치	시점의 종류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로 등장함.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서술자 = '나' =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의 서술자 = '나' = 관찰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함.	3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 = 작가 =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 = 작가 = 신적인 존재

04 (나)에는 '아저씨'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느라 꼼짝도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나'의 가족들은 '아저씨'의 이야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저씨'는 오랜만에 일가를 만난 반가움에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소에게 먹이를 주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05 **서술형** (다)에 나타난 갈등은 '아버지'와 '엄마'의 외적 갈등이다.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가져간 것을 두고 '아버지'가 '갈취'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갈등이 촉발된 것이나, '나'는 이 밑바닥의 감정에는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아버지'와 '엄마'라고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를 정확하게 썼다.	☐
두 사람이 갈등하는 표면적 이유를 찾아 썼다.	☐
두 사람이 갈등하는 근본적 이유를 찾아 썼다.	☐

06 '어머니의 가출'은 '아저씨'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다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답인 이유 ①, ⑤ (가)에서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저씨'가 미안해하는 이유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가)와 (나)로 보아,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저씨'는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새벽차를 타고 '나'의 집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그래도 엄마가 돌아왔으니, 행복한 아침인 것은 틀림없었다.'로 보아 '나'는 엄마가 집에 돌아오자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이 소설은 청소년인 '나'의 시각에서 일가 '아저씨'와 관련된 사건을 그려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전달하고 있다.

08 ㉢에는 '아버지'가 "……도 차암."과 같은 '아저씨'의 독특한 말투를 따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의 가족들이 '아저'

씨'의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모습을 통해 '아저씨'와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으며, '아저씨'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09 (가)와 (나)의 보거나 말하는 이는 모두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가)의 말하는 이는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이었으나 아저씨와의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등 정신적 성장을 한다. (나)의 말하는 이는 잡초도 '꽃'이라고 말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닌 '민지'를 보면서,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한다.



완자샘의 풀이

(가)에서 작가는 보거나 말하는 이를 왜 청소년으로 설정했을까? 작가는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보거나 말하는 이를 설정한단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이 작품의 '나'는 아직 판단이 미숙한 사춘기 청소년이야. 이런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또 '나'가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난 후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

10 **서술형** 일 년 전의 '나'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이는 '나'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옥'을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고,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나'가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일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를 정확하게 썼다.	☐
눈물을 흘린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
'나'가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

11 이 시에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나'의 소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민지'를 만나 세상의 때가 묻어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오답인 이유** ① 깊은 산골에 사는 '민지'를 만난 '나'의 일상적인 경험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② '민지'를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따뜻한 시선이 이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③ '민지'와 '나'가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옮겨 적어 시의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민지'는 풀들을 보고 꽃이라고 말하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어른인 '나'는 풀을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

(2) 공감하며 듣기



알짜 요약정리

● 12쪽

- ① 상대 ② 소극적 ③ 적극적 ④ 입장과 처지



어휘 시험

13쪽

- 1 ㉠ 2 ㉡ 3 ㉢ 4 ㉣
 5 헛바람 들지 6 풀 죽어 7 맞장구칠 8 ①
 9 ② 10 공감

1 '분석'은 '엮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이라는 뜻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2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수용'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라는 뜻이다. '근대 문명의 수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4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견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헛바람 들다'는 '허황된 일에 공연하게 들뜬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6 '풀이 죽다'는 '활기나 기세가 꺾이다.'라는 뜻이다.

7 '맞장구치다'는 '남의 말에 서로 호응하거나 동의하다.'라는 뜻이다.

8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하는 말은 '관점'이다. '가치'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목적'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나아가는 방향.'을 가리킨다. '생각'은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또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9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말은 '일화'이다. '우화'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쳐 풍자나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말한다.

‘동화’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런 문예 작품.’을 말한다. ‘미화’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10 ‘동감’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한다. ‘공감’과 비슷한 말로 ‘동감’이 있는데, ‘동감’은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 또는 그 생각.’이라는 뜻이다.

꼭지 시험

14~15쪽

- | | | | |
|------|-------|--|---------------------------------|
| 1 ○ | 2 × | 3 ○ | 4 × |
| 5 이해 | 6 소극적 | 7 적극적 | 8 ① |
| 9 ③ | 10 ② | 11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급하게 오느라고 그랬구나. / 배가 많이 고프겠다. |
| | | 13 친구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 |

1 공감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기에 대화 과정에서 서로에게 믿음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2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3 공감적 듣기는 상대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공감적 듣기를 한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적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5 공감적 듣기의 목적은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다.

6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는 눈 맞추기, 고개 끄덕이기, 적절하게 맞장구치기 등이 있으며, 이는 상대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7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8 상대의 처지나 감정을 헤아리며 듣는 태도를 ‘공감적 듣기’라고 하며, ‘비판적 듣기’는 상대의 말이 그럴 듯 하지, 믿을

만한지 따져 가며 듣는 것을 말한다. ‘분석적 듣기’는 문자 그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부분으로 쪼개서 각 부분을 서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9 공감하며 듣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개 끄덕이기, 눈 마주치기, 맞장구치기, 상대의 말을 요약하기 등이 있다.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 아니다.

10 공감적 듣기는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11 ‘친구’는 ‘나’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감적 듣기를 실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친구’와 ‘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상대의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우호적인 태도로 말해야 한다.

12 급하게 오느라 밥을 못 먹고 온, 친구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헤아려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재’는 “급하게 오느라 그랬구나.”나 “배가 많이 고프겠다.”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란 상대의 상황에서 감정을 입입하여 심리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청자는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뜻을 명료화하기 위한 반응이나 화자에 대한 협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13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들어야 한다.

알짜 시험

16~17쪽

- | | | | | |
|------|--|------|------|------|
| 01 ② | 02 ⑤ | 03 ② | 04 ① | 05 ④ |
| 06 ④ | 07 @: ‘도현’이 내가 준 음료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해서라고 생각함. ⑥: ‘도현’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쑥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깨달음. | | | |

01 공감적 듣기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공감적 듣기란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를 말한다.

02 <보기>는 듣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생'의 물음에 '형'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동생'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있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자쌤의 풀이

<보기>는 공감적 듣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야. 동생이 어떤 점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자. 동생이 말을 꺼냈는데도 형은 고개도 들지 않고 딴짓을 했으며,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한 점을 파악할 수 있겠지?

03 '황희 정승'에게 찾아온 두 사람의 처지는 다르다. 두 사람 모두 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동일하나 처음 온 사람은 아내가 아이를 낳은 상황이고, 다음 사람은 개가 새끼를 낳은 상황이다.

오답인 이유 ① '황희 정승'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③ '남자 1'은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라고 묻고 있고, '남자 2'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라고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남자 1'은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고 있고, '남자 2'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④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말하였으므로 공감적 듣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황희 정승'은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고려하였기에 두 사람에게 다르게 대답한 것이다.

04 '윤하'는 속상해하는 '민재'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않고, 자신의 기분까지 우울해진다고 비난하듯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화제를 돌려 '민재'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윤하'는 '민재'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민재'의 상황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했더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05 밥도 못 먹고 뛰어온 친구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 "급하게 오느라고 그랬구나. 배가 많이 고프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감적 듣기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인 이유 ① '수현'은 '명진'이 왜 힘든지 친구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② '딸'은 '엄마'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듣기 싫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오빠'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

⑤ '재현'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비난하듯 말하고 있다.

06 ㉠에서 '선생님'은 질문을 통해 '민정'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을뿐,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은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는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다.

오답인 이유 ① ㉠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 중 눈 마주치기를 사용하고 있다.

②, ⑤ ㉢과 ㉡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 중 맞장구치기를 사용하고 있다.

③ ㉡은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 중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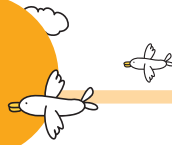
공감적 듣기의 방법과 효과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는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가 있다. 먼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에는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기, 상대의 말에 맞장구치기, 상대가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을 사용하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다.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에는 "네 말은라는 말이구나."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기가 있다. 적극적 들어 주기를 통해 상대가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07 **서술형**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하기 전 '도현'이 자신이 준 음료수를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한 후, '도현'의 성격을 생각해 보며 '도현'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쑥스러워서였음을 깨달았다.

평가 기준	확인 ☒
'선생님'과 대화하기 전, '민정'의 생각(자신을 싫어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함)을 정확하게 썼다.	☐
'선생님'과 대화한 후, '민정'의 생각 변화('도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쑥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음을 깨달음)을 정확하게 썼다.	☐



(1) 한글의 창제 원리



알짜 요약정리

● 18~19쪽

- 1 애민 2 이 3 가획 4 사람 5 합성
- 6 음절 7 입력 속도



어휘 시험

20~21쪽

- | | | | | |
|-------|-------|-------|-------|-------|
| 1 ㉠ | 2 ㉡ | 3 ㉢ | 4 ㉣ | 5 창제 |
| 6 표기 | 7 반발 | 8 조합 | 9 ㉤ | 10 ㉥ |
| 11 ㉦ | 12 배포 | 13 계열 | 14 구성 | 15 특성 |
| 16 자주 | 17 애민 | 18 실용 | 19 가획 | 20 체계 |
| 21 ㉧ | | | | |

- 1 '군주'는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2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이라는 뜻이다.
- 3 '상형'은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이라는 뜻이다.
- 4 '자긍심'은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 5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창제'이다.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이라는 뜻이다.
- 6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언어를 표시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표기'이다. '표현'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이라는 뜻이다.
- 7 '어떤 상태나 행동 따위에 대하여 거스리고 반항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반발'이다. '반대'는 '두 사물이 모양, 위치, 방향, 순서 따위에서 등지거나 서로 맞섬.'이라는 뜻이다.
- 8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조합'이다. '화합'은 '화목하게 어울림.'이라는 뜻이다.
- 9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보급'이다. '수급'은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음.'이라는 뜻이고, '배급'은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공급'은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이라는 뜻이다.

10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한계'이다. '제한'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뜻이고, '제약'은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정'은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또는 그런 한도.'라는 뜻이다.

11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도리'이다.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는 뜻이고,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12 빈칸에 '배포'가 들어가야 한다. '배포'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다.

13 빈칸에 '계열'이 들어가야 한다. '계열'은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점이 있어서 한 갈래로 이어지는 계통이나 조직.'이라는 뜻이다.

14 빈칸에 '구성'이 들어가야 한다. '구성'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 이론 결과.'라는 뜻이다.

15 빈칸에 '특성'이 들어가야 한다. '특성'은 '일정한 사물에만 있는 특수한 성질.'이라는 뜻이다.

16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을 뜻하는 단어는 '자주'이다. '자주 민족의 긍지를 살린다.'와 같이 사용한다.

17 '백성을 사랑함.'을 뜻하는 단어는 '애민'이다. '애민 정책으로 민심을 수습하다.'와 같이 사용한다.

18 '실제로 씀. 또는 실질적인 쓸모.'를 뜻하는 단어는 '실용'이다. '이 발명품은 실용 가치가 뛰어나다.'와 같이 사용한다.

19 '원글자에 획을 더함.'을 뜻하는 단어는 '가획'이다.

20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뜻하는 단어는 '체계'이다.

21 제시된 문장에서 '알다'는 '겉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다.'라는 뜻이다. ㉠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에 비해 ㉢과 ㉣은 '수준이 낮거나 정도가 약하다.', ㉡은 '생각이 일정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꼭지 시험

22~23쪽

- 1 ○ 2 × 3 ○ 4 × 5 ㉔
 6 ㉓ 7 ㉑ 8 ., —, | 9 합성 10 모아쓰
 기 11 | 12 ㅁ 13 ㅼ 14 나
 15 ① 16 ② 17 ③ 18 문자, 소리
 19 • 자음자: ㄱ(상형), ㅈ(가획) • 모음자: ㅏ(합성), ㅣ(상형)

1 한글이 창제되기 전 백성들은 한자를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고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2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 신하 중 일부는 중국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였다. 또한 백성이 글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였다.

3 한글은 'ㄱ, ㄴ, ㅁ' 등의 자음자와 'ㅏ, ㅑ, ㅣ' 등의 모음자로 구성되어 있다.

4 한글 자음의 기본 다섯 글자인 'ㄱ, ㄴ, ㅁ, ㅅ, ㅇ'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므로 가획의 원리가 아니라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다.

5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나는 모양을 본떠 만든 어금닛소리이다.

6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혓소리이다.

7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입술소리이다.

8 한글 모음자의 기본 글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ㅇ',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이다.

9 한글의 모음자는 기본자 'ㅇ'과 'ㅡ'의 합성으로 'ㅗ, ㅑ'를, 'ㅇ'과 'ㅣ'의 합성으로 'ㅓ, ㅕ'를 만들었는데 이를 초출자라고 한다. 초출자 'ㅗ, ㅓ, ㅑ, ㅕ'에 'ㅇ'을 다시 합성하여 'ㅛ, ㅜ, ㅠ, ㅡ'를 만들었는데 이를 재출자라고 한다.

10 한글의 글자는 음소 단위로 만들었지만, 적을 때에는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쓴다. 사람의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에는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소리 나는 원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11 모음의 기본 글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ㅇ'을,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

12 'ㅁ, ㅂ, ㅅ, ㅈ'은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13 'ㄱ, ㄴ, ㅁ, ㅅ, ㅈ'과 'ㅼ, ㅽ, ㅿ'와 같은 글자는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14 'ㅏ'는 모음자 'ㅗ'와 모음자 'ㅑ'를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15 '세종 대왕'은 중국의 말과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 대왕'은 우리말에 맞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을 만들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을 통해 한글의 창제 정신인 자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6 'ㄱ'은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 'ㅈ'은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 'ㅊ'은 'ㅊ'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므로 가획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에 비해 'ㅁ'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상형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17 'ㅈ'은 'ㅅ'에 획을 두 번 더하여 만든 글자로, 'ㅅ'과 'ㅈ'보다 소리가 더 세다. 반면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지는 않는다.

18 로마자와 달리 한글의 모음자는 한 가지 소리만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유리하다.

19 'ㄱ'과 'ㅈ'은 자음, 'ㅏ'와 'ㅑ'는 모음에 해당한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며, 'ㅈ'은 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ㄱ'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ㅅ'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며, 'ㅓ'는 'ㅣ'와 'ㅇ'을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ㅣ'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ㅓ'는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알짜 시험



24~27쪽

- 01 ② 02 ② 03 ① 04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 05 ② 06 ④ 07 ⑤
 08 ④ 09 ③ 10 ⑥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쓴 것이고, ⑥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쓴 것이다. ⑥와 같은 모아쓰기 방식은 단어와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읽기가 편하다. 11 ⑤ 12 ④

01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한자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 한자의 글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글에는 한글의 글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오답인 이유 ①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가난한 일반 백성은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와 시간이 없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정인지, 최항, 신숙주' 등의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중국의 반발을 염려하고, 백성이 글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그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하 중 일부가 한글 창제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02 두 번째 문단에서 '학생 2'가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글자를 만든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글자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③ 가난한 일반 백성은 운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낼 수 없었다.

④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썼다.

⑤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았다.

03 '세종 대왕'은 백성이 나라는 이루는 바탕이라고 생각하여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고 지혜로워져야 나라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세종 대왕'은 글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04 **서술형** ㉔는 한글의 창제 정신 중 실용 정신을 가리킨다. 이 글의 여덟 번째 문단에서 '세종 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익혀 실생활에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점에서 한글의 실용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가 한글의 창제 정신 중 실용 정신과 관련됨을 파악하였다.	☐
실용 정신과 관련된 한글의 특성을 이 글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

05 (나)를 통해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음의 기본자는 'ㆍ, ㅡ, ㅣ'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ㆍ'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

06 'ㅏ'는 자음의 기본자인 'ㄴ'에 획을 두 번 더하여 만든 글자이고, 'ㅑ'는 자음의 기본자인 'ㄴ'에 획을 한 번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07 <보기>에 제시된 자음자들은 모두 이체자이다. (다)에서 이 글자들은 각각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글자들과 달리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인 이유 ① 'ㅇ, ㅏ'는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ㄹ'은 현재 사용되는 글자이다.

②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 'ㄴ'에서 가획하여 만든 글자는 'ㄹ'만 해당한다.

③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ㄱ'으로 'ㅇ, ㄹ, ㅏ'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ㅇ', 'ㄹ', 'ㅏ'가 아니라 'ㆍ', 'ㅡ', 'ㅣ'이다.

08 'ㅑ, ㅓ'는 'ㆍ'와 'ㅡ'의 합성으로, 'ㅕ, ㅗ'는 'ㆍ'와 'ㅣ'의 합성으로 만든 초출자이다. 'ㅕ, ㅗ, ㅛ, ㅛ'는 'ㅑ, ㅓ, ㅕ, ㅗ'에 'ㆍ'를 다시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09 'ㅕ'는 'ㅑ'에 'ㅣ'를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오답인 이유 ① 'ㅓ'는 'ㆍ'와 'ㅣ'를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다.

② 'ㅕ'는 'ㅑ'에 'ㅣ'를 다시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④ 'ㅕ'는 자음자 둘을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⑤ 'ㅕ'는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10 **서술형** ㉔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표기한 모아쓰기 방식이고, ㉔는 글자를 자음자와 모음자, 즉 음소 단위로 풀어서 표기한 방식이다. ㉔는 한눈에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㉔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장을 읽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와 ㉔의 표기 방식에 드러나는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
모아쓰기 방식의 장점을 바르게 제시하였다.	☐

11 한글이 하나의 글자에 많은 뜻을 담는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나)를 통해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 유리한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학생 1'의 말을 통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가)에서 '학생 2'의 말을 통해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를 통해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로 만든 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 (나)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한글의 모음자가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보기>에 제시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한글의 모음자 'ㅏ'는 모두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지만, 로마자의 모음자 'a'는 경우에 따라 '아, 어, 애, 에이' 등 다양하게 발음된다. 따라서 (나)와 <보기>를 통해 한글 모음은 거의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는 반면, 로마자의 모음은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올바른 발음과 표기



알짜 요약정리

● 28~29쪽

- 1 ㄷ 2 여덟 3 세 4 아니 5 되어
6 무르피 7 어떡해



어휘 시험

30~31쪽

- 1 ㉞ 2 ㉟ 3 ㊱ 4 ㊲ 5 허용
6 표준 7 보완 8 ㉓ 9 ㉔ 10 ㉕
11 땀기 12 협의 13 외곬 14 표준 15 마치고
16 반듯이 17 부치다 18 달혀서 19 훑다 20 훑다
21 었다

1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뜻이다. '도덕적 규범을 따른다.'와 같이 사용한다.

2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뜻이다. '그의 행동은 원칙에서 어긋났다.'와 같이 사용한다.

3 '교양'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는 뜻이다.

4 '합리성'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이라는 뜻이다.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와 같이 사용한다.

5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허용'이다. '수용'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라는 뜻이다.

6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표준'이다. '표본'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라는 뜻이다.

7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보완'이다. '보강'은 '보태거나 채워서 본디보다 더 튼튼하게 함.'이라는 뜻이다.

8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들어맞음.'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일치'이다. '동일'은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음.'이라는 뜻을,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이라는 뜻을, '합치'는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9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맞히다'이다.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라는 뜻을,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라는 뜻을, '맞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0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은 '유의'이다. '유념'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함.'이라는 뜻을, '각인'은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됨.'이라는 뜻을, '각성'은 '깨달아 앎.'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1 '경계를 지어 놓은 논밭의 구획.'이라는 뜻의 '땀기'가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12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이라는 뜻의 '협의'가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13 '단 한 곳으로만 트인 길.'이라는 뜻의 '외곬'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14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라는 뜻의 '표준'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15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라는 뜻의 '마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으로, '맞다'의 사동사이다.

16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의 '반듯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이다.

17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라는 뜻의 '부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붙이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다.

18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가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다.'라는 뜻의 '달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다치다'는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라는 뜻이다.

19 '일정한 범위를 한쪽에서 시작하여 죽 더듬거나 살피다.'라는 뜻을 지닌 '훑었다'가 들어가야 하고 기본 형태는 '훑다'이다.

20 '혀가 물체의 길면에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훑으며'가 들어가야 하고 기본 형태는 '훑다'이다.

21 '일정한 분량이나 액수 위에 얼마 정도 더 덧붙이다.'라는 뜻을 지닌 '엮어'가 들어가야 하고 기본 형태는 '엮다'이다.

꼭지 시험

32~33쪽

- 1 × 2 ○ 3 × 4 ○
 5 ㄱ, ㄴ, ㄷ, ㄹ, ㅁ, ㅂ, ㅇ 6 ㄷ 7 어말, 자음
 8 ㅣ 9 무리 막따 10 베풀 아름다운 무늬가 일따
 11 절은 남자가 사랑을 읊조린다 12 ㉓ 13 ㉓
 14 나아 → 날아 15 안았다 → 았았다
 16 뒀다 → 뒸다 17 비출, 빗

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이므로 지역에 따라 규범이 다를 수 없다.

2 발음을 잘못할 경우 상대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3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우리말을 적을 때에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한글 맞춤법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우리말에서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6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ㅅ, ㅆ, ㅈ, ㅊ, ㅌ’은 대표음인 [ㄷ]으로 소리 난다.

7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소리 나거나,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소리 난다.

8 이중 모음인 ‘-니’는 [ㄴ]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그중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ㄴ]으로 발음한다.

9 ‘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하였으므로 ‘물’이 [무리]로 발음해야 한다. 자음 앞에 온 겹받침 ‘ㅍ’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소리 나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해야 한다.

10 자음을 첫소리로 하는 음절의 ‘-니’는 [ㄴ]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무늬’는 [무니]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받침소리인 ‘ㅆ’은 대표음 [ㄷ]으로 소리 나므로 ‘있다’는 [읷따]로 발음해야 한다.

11 ‘절은’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였으므로 겹받침 중 뒤에 오는 ‘ㄷ’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절믄]으로 발음해야 한다. ‘읷-’의 겹받침은 자음 앞에서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되므로 ‘읷조린다’는 [읷조린다]로 발음해야 한다.

12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이므로 ‘하얀[하얀]’이 이에 해당한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길읷[기읷]’, ‘곶다개[곶따개]’, ‘이름이[이르미]’가 이에 해당한다.

13 ‘무릎’을 ‘무릍’으로 고쳐야 한다. ‘무릍’은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발음되어 [무릅]과 같이 발음하지만, 표기는 ‘무릍’으로 해야 한다.

14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의 올바른 표기는 ‘낳다’이다.

15 ‘안았다’의 자리에 ‘아니하였다’가 올 수 있으므로 ‘았았다’로 표기해야 한다.

16 ‘뒀다’의 자리에 ‘되였다’가 올 수 있으므로 ‘되였다’의 준말인 ‘뒸다’로 표기해야 한다.

17 <보기>의 그림에서 남학생은 ‘빗읷’을 잘못 발음하고 있다. ‘빗’이라는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받침의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비출]이 맞는 발음이다. [비슬]이라고 발음할 경우에 상대방은 ‘빗읷’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게 된다.

알짜 시험

34~35쪽

- 01 ㉓ 02 ㉓ 03 ㉓ 04 [무르읷], ‘무릍’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하였으므로, 받침 ‘ㅍ’을 그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05 ㉓
 06 ㉓ 07 [읷조린다], [힌머리개] 08 ㉓
 09 ‘선호’가 발음이 같은 ‘달혀서’와 ‘다쳐서’를 헷갈려서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선호’가 쓴 내용 중 ‘다쳐서’를 ‘달혀서’로 고쳐 써야 한다.
 10 ㉓ 11 ㉓ 12 ㉓ 13 ㉓

01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이 밖의 받침은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02 앞은 [읷]으로 소리 나므로 받침소리의 발음이 ‘ㅂ’이다. ㉓ ~ ㉓의 단어는 모두 받침소리의 발음이 ‘ㄷ’이다.

03 ‘맑다’는 [막따]로 발음한다. 받침이 ‘ㅍ’인 경우에는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예 맑고, 맑게 등)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완자샘의 풀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오는 겹받침의 경우 발음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 겹받침은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ㄷ, ㄱ, ㄴ, ㄹ’이란다. ‘ㄷ, ㄱ’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고, ‘ㄴ, ㄹ’은 환경에 따라 첫 번째 받침 또는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혼동되지 않을 거야.

04 **서술형**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무릎’이라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한 것이므로 ‘무릎’의 받침 ‘ㅍ’은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되어 [무르프]로 발음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올바른 발음을 정확하게 선택했다.	☐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와 결합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05 ‘띄어쓰기’의 발음은 [떠어쓰기/떠여쓰기]이고, ‘희망’의 발음은 [히망]으로 모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 [ㄴ]로 발음되는 예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동의’는 [동의 / 동이]로, ‘회의’는 [회의 / 웨이]로 발음한다.
 ②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무늬’는 [무니]로 발음한다. ‘의사’는 [의사]로 발음한다.
 ③ ‘의리’는 [의:리]로, ‘의상’은 [의상]으로 발음한다.
 ④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항의’는 [항:의 / 항:이]로, ‘협의’는 [혀비 / 혀비]로 발음한다.

06 이중 모음 ‘ㄴ’을 발음할 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의[의의 / 의이]’를 [이의]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07 **서술형** ‘옳조리다’에서 겹받침 ‘ㅍ’은 두 번째 받침 ‘ㅍ’의 대표음인 [ㅍ]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옳조리다]가 맞는 발음이다. 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흰머리’는 [힌머리]로 발음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옳조리다’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흰머리’의 발음을 정확하게 썼다.	☐

08 ‘소리대로 적는’ 것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부를 마치다.’는 [공부를 마치다]로 발음하는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므로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알맞다.

오답인 이유 ① [무릎 단따]로 발음하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기를 건따]로 발음하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③ [꼬치 예쁘다]로 발음하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사니 푸르다]로 발음하므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09 **서술형**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제시된 대화에서 ‘선후’는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가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 ‘닫히다’를 소리 나는 대로 ‘다치다’로 표기하고 있다. ‘윤후’는 ‘선후’가 잘못 쓴 ‘다쳐서’를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 ‘다치다’로 이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쳐서’를 ‘닫혀서’로 올바르게 고쳤다.	☐
‘닫히다’와 ‘다치다’의 발음이 동일하여 헷갈릴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10 ‘아니하-’의 준말인 ‘않-’이 들어가야 하므로 ㉠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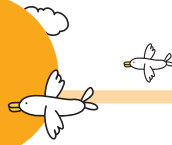
오답인 이유 ① ‘아니’의 준말이므로 ‘안’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되어’로 풀 수 있는 말이므로 ‘돼’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아니하-’의 준말이므로 ‘않았다’로 표기해야 한다.
 ④ ‘되어’로 풀 수 없는 말이므로 ‘된다며’로 표기해야 한다.

11 ㉠에는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저나, 전병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부치다’의 활용형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서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붙이다’의 활용형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지닌 ‘반듯이’가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12 받침 ‘ㅎ’은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오면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낱아’는 [나아]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3 한글 맞춤법에 따라 ‘-(으)ㄴ게’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일어날게’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오답인 이유 ①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③ ‘있다가’는 ‘있다’의 어간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이다.
 ④ ‘붙이니’는 ‘붙을 일으켜 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붙이다’의 활용형이다.
 ⑤ ‘어떻게’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라는 뜻을 지닌 ‘어떻다’의 활용형이다.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알짜 요약정리

● 36~37쪽

- 1 시각 2 의문문(또는 문장) 3 관심과 흥미
- 4 과의존 5 신뢰도 6 청소년 7 모양



어휘 시험

38~39쪽

- | | | | |
|-----------|-----------|------|-------|
| 1 ㉠ | 2 ㉡ | 3 ㉢ | 4 ㉣ |
| 5 생산자 | 6 자각 | 7 한창 | 8 증후군 |
| 9 ○ | 10 × | 11 ○ | 12 × |
| 13 노안(老顔) | 14 노안(老眼) | 15 ㉡ | 16 ㉠ |
| 17 습관 | 18 혜택 | | |

1 '노화'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노화 현상', '피부의 노화와 같이 쓸 수 있다.

2 '범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뜻하는 말로, '같은 범주에 속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3 '잠재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잠재적 능력'과 같이 쓸 수 있다.

4 '생로병사'는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을 뜻하는 말로, '그 사람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와 같이 쓸 수 있다.

5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생산자'이다.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6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을 뜻하는 말은 '자각'이다. '지각'은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말이다.

7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를 뜻하는 말은 '한창'이다.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는 말이다.

8 '몇 가지 증후가 늘 함께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단일하지 아니한 병적인 증상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증후군'이다. '합병증'은 '어떤 질병에 겹쳐 일어나는 다른 질병.'을 뜻하는 말이다.

9 '의도'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을 뜻하는 말로,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문맥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이 적절하다.

10 '형체'는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를 뜻하는 말로,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는 문맥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장에서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뜻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왜곡하다'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역사를 그릇되게 주장하는 무리들의 의견에 반박한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이 적절하다.

12 '검사하다'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낮고 못함을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문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이 문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를 뜻하는 '성찰하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노안(老顔)'이란 '노쇠한 얼굴. 또는 노인의 얼굴.'을 뜻하는 말이다.

14 '노안(老眼)'이란 '늙어 시력이 나빠짐. 또는 그런 눈.'을 뜻하는 말이다.

15 제시된 문장은 선생님의 말씀이 나에게 따끔한 충고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침 한 대라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이르는 말.'인 '일침'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신조'는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을,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을,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한다.

16 제시된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는 '부정부패'와 대등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병통(깊이 뿌리박힌 잘못이나 결점.)과 폐단(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병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병환'은 '병의 높임말.'을, '질병'은 '몸의 온갖 병.'을, '모욕'은 '깎보고 욕되게 함.'을 뜻한다.

17 예로 제시된 문장은 절약하는 행위가 저절로 몸에 익혀졌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

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뜻하는 ‘습관’이 들어가야 한다.

18 예로 제시된 문장은 스마트폰이 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하는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

꼭지 시험

40~41쪽

- | | | | |
|------------|-----------|-----------|------|
| 1 × | 2 × | 3 ○ | 4 ○ |
| 5 ○ | 6 의문문, 중독 | 7 젊은 세대 | 8 인용 |
| 9 신뢰도 | 10 동영상 자료 | 11 자기 점검표 | |
| 12 스마트폰 노안 | 13 블로그 | | |
| 14 사이버 불링 | 15 카드 뉴스 | 16 ④ | 17 ① |
| 18 ② | 19 ④ | | |

1 인터넷 매체 중 하나인 블로그에는 문자나 언어 표현, 사진 자료를 활용한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 및 음악과 같은 청각 자료,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 등으로 표현된 내용도 올릴 수 있다.

2 일반적인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로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를 말하지만, ‘스마트폰 노안’은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어 노안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3 매체는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 매체가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그렇게 표현한 의도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블로그’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 사이트를 가리킨다. 블로그는 누구나 쉽게 글쓰기가 올린 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댓글과 같은 방식으로 글쓰기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인쇄 매체는 어휘나 문장 표현,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영상 매체나 인터넷 매체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비롯하여 청각 자료나 동영상 자료 등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6 광고문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에서는 형태가 비슷한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7 이 글은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스마트폰 노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글쓰기가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젊은 세대를 예상 독자로 설정하여 글을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8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의 글쓴이는 “노안이요? 나 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거 말이에요? 전 겨우 중학생인데요!”라는 중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화제를 끌어 내고 있다.

9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의 글쓴이는 의학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하여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10 인터넷 매체나 인쇄 매체는 모두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매체는 인쇄 매체와 달리 동영상 자료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1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의 글쓴이는 ‘나도 스마트폰 노안일까?’라는 부분에서 ‘검사 표’를 제시하여 읽는 이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12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의 글쓴이는 스마트폰 노안 환자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로 한창나이라는 점, 스마트폰 노안으로 인한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13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는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살린 글이다.

14 ‘사이버 불링’이란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15 ‘카드 뉴스’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표현하여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뉴스를 말한다.

16 카드 뉴스란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뉴스이다. 스크롤바를 내리며 읽어야 하는 장문의 기사 대신,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는 형식이다. 화면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것이 특징으로,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카드 뉴스는 누리 소통망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 적절해서 카드 뉴스를 경쟁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17 카드 '6'에서 경찰청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18 이 뉴스에서는 사이버 불링의 예로, 악의적인 댓글 달기, 신상 털기, 메신저 감옥, 가상 공간에서의 따돌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19 이 뉴스는 글자 모양이나 굵기, 크기 등에 변화를 주거나 특정 장면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두 세 문장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가 쉽고 편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알짜 시험



42~43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를 제작하여, 젊은 층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01 (나)에 제시된 그래프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세대별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그래프를 통해 연도별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02 (나)~(다)의 글쓴이는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노안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글은 젊은 세대에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노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은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눈이 나빠진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4 '키아라'가 누리 소통망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이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다. 따라서 ⑤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인 이유 ① '키아라'의 사례나 경찰청 통계, 대학생 ○○(25)씨의 사례 등을 통해, 사이버 불링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카드 뉴스에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사이버 불링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이버 불링을 장난이나 놀이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③ '키아라 나스티'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을 두루마리 휴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였다.

④ 이 카드 뉴스를 보면서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다.

05 카드 7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표현한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카드 뉴스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으세요」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

표현 방법	의도
- 두 세 문장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함. -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줌.	내용을 압축하여 핵심을 강조하고, 읽는 이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기려 함.
- 특정 장면을 확대함. - 사례의 실제 인물 사진을 제시함. - 그림으로 상황을 묘사함.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려 함.

06 **서술형** <보기>를 참고할 때, 카드 뉴스는 젊은 세대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세대가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 뉴스로 제작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주로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의 문제와 그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카드 뉴스' 매체가 지닌 특징을 언급하였다.	☐
글쓴이가 이 매체를 활용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

(2) 매체 자료의 효과



알짜 요약정리

● 44~45쪽

- ① 동영상 ② 주제 ③ 지진 피해 ④ 지진대
⑤ 목적 ⑥ 그래프



어휘 시험

46~47쪽

1 개념	2 대피	3 지진	4 퇴적물
5 ③	6 ②	7 ④	8 붕괴했다
9 환기하기	10 대처하여	11 터전	12 안전지대
13 여파	14 강연	15 ①	16 ④

1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말은 '개념'이다. '상념'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뜻하는 말이다.

2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함.'을 뜻하는 말은 '대피'이다. '도피'는 '도망하여 몸을 피함.'을 뜻하는 말이다.

3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을 뜻하는 말은 '지진'이다. '여진'은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을 뜻하는 말이다.

4 '암석의 파편이나 생물의 유해 따위가 물, 빙하, 바람, 중력 따위의 작용으로 운반되어 땅 표면에 쌓인 물질.'을 뜻하는 말은 '퇴적물'이다. '침전물'은 '액체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물질.'을 뜻하는 말이다.

5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뜻하는 말은 '기반'으로, '판소리는 전승되는 설화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와 같이 활용된다. '기준'은 '기준이 되는 표준.'을, '초반'은 '운동 경기나 바둑, 장기 따위에서 승부의 처음 단계.'를, '근본'은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을 뜻한다.

6 '알갱이의 크기·색·성분 따위가 서로 달라서 위아래의 퇴적암과 구분되는 퇴적암체.'를 뜻하는 말은 '지층'으로, '이 지역의 지층은 상당히 큰 경사를 이루고 있다.'와 같이 활용된다. '바위'는 '부피가 매우 큰 돌.'을, '암석'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단층'은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갈라져 어긋나는 현상. 또는 그런 지형.'을 뜻한다.

7 '해저의 지각 변동이나 해상의 기상 변화에 의하여 갑자기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 또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말은 '해일'로, '그의 집은 해일에 휩쓸려 물에 잠기고 말았다.'와 같이 활용된다. '파도'는 '바다에 이는 물결.'을, '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을 뜻한다. '해수'는 '바다에 괴어 있는 짙물.'을 뜻한다.

8 제시된 문장은 지진 때문에 고속도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무너지고 깨어지다.'를 뜻하는 '붕괴하다'를 활용하여 '붕괴했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9 제시된 문장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표를 펼쳤다는 뜻이므로,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를 뜻하는 '환기하다'를 활용하여 '환기하기'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제시된 문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를 뜻하는 '대처하다'를 활용하여 '대처하여'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두 문장에는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또는 일의 토대.'를 뜻하는 '터전'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12 제시된 두 문장에는 '어떤 재해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지대.'를 뜻하는 '안전지대'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13 제시된 두 문장에는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남아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여파'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14 제시된 두 문장에는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함.'을 뜻하는 '강연'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15 제시된 문장은 그의 판단으로 위기를 해결했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낱말인 '현명하다'는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다.'라는 뜻을 알 수 있다.

16 제시된 문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전기나 가스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낱말인 '차단'은 '액체나 기체 따위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뜻을 알 수 있다.



문지 시험

48~49쪽

1 ㉠	2 ㉡	3 ㉢	4 지진
5 영화 포스터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 '동영상' 자료는 상황이나 사건의 경과, 대상의 움직임 등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 자료보다 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다.

2 '그림이나 사진' 자료는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듣는 이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3 ‘표나 그래프’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준다.

4 이 강연은 지진의 발생 원인과 그 피해 사례를 먼저 살펴본 후,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5 이 강연은 ‘처음’ 부분에 영화 포스터를, ‘가운데’ 부분에 동영상 자료와 지도 및 사진 자료, 도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강연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6 이 강연자는 지진 피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뒤틀리면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해일과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이 강연자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설명한 부분에서 ‘환태평양 조산대’를 가리켜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이 강연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예를 들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9 이 강연자가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설명한 부분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에 큰 힘이 계속 작용하면,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지층이 결국 끊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0 이 강연자는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설명하면서, 건물 안에 있을 때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1 이 강연자는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설명하면서, 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전신주, 자판기, 벽돌담 등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물 근처에서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2 이 강연자는 대륙의 이동이나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등에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이 화산 활동으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이 강연자는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 주는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14 이 강연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대피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제시된 그래프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 및 전망을 나타낸 것으로,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그래프는 대상의 변화 양상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게 해 준다.

16 제시된 사진은 숲에 버려진 쓰레기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은 실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도 있으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한 화면에 담아낼 수도 있다.

17 제시된 그림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으로,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듣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알짜 시험

50~51쪽

01 ⑤ **02** ⑤ **03** 사진,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한다. **04** ② **05** ⑤ **06**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전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01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바로 강연자에게 물어볼 경우, 강의의 흐름이 끊기거나 다른 사람이 강의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강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길 경우에는 잘 정리해 놓았다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나 강의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02 이 강연자는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 동영상 자료나 지진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진의 발생 빈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강연자는 (가)에서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함께 보자고 하면서, 이 강연의 주제인 ‘지진’에 대하여 듣는 이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가)에서 강연자는 자신의 딸이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를 본 뒤 지진에 대하여 걱정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듣는 이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다. 강연자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앞으로 강연하고자 하는 내용에 듣는 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나)에서 강연자는 ‘여기에 큰 힘이 계속 작용하면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지층은 결국 끊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라고 지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듣는 이가 지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④ (나)에서 강연자가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지진의 발생 원인을 듣는 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03 서술형 (다)에 제시된 매체 자료는 '사진'으로, 지진이 일어난 지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듣는 이는 실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보면서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의 종류를 정확하게 썼다.	☐
활용된 매체 자료의 효과를 밝혀 썼다.	☐

04 (가)에서 강연자가 보여 준 세계의 지진대가 나타난 지도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지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의 고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강연자의 설명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특별히 지정하기는 어렵다.

오답반영 이유 ① (나)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내용을 통해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에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05 (나)에 제시된 표는 장소에 따른 지진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강연자는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여 보여 줌으로써, 듣는 이가 다시 한번 강연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각 상황에 적합한 대처법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표를 <보기>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면, 글로 이해하는 것보다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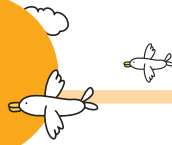
완자쌤의 풀이

같은 내용을 글로 이해하는 것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글로 이해하는 것은 글에 담긴 뜻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림에 제시된 시각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 물론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 글이나 그림의 수준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보를 습득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단다.

06 서술형 (가)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불의 고리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년에 발생한 경주의 지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강연자가 ㉠과 같이 말한 이유를 밝혀 썼다.	☐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하였다.	☐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알자 요약정리

● 52~53쪽

- ① 사랑 ② 판소리 ③ 암행어사 ④ 권선징악(勸善懲惡)
⑤ 칸 ⑥ 절개 또는 지조



어휘 시험

54~55쪽

- 1 ㉠ 2 ㉡ 3 ㉠ 4 ㉠ 5 사리사욕
6 전형적 7 절개 8 용수 9 ㉡ 10 ㉣
11 ㉠ 12 ㉢ 13 녹의홍상 14 산천초목
15 백년해로 16 봉고파직 17 일편단심 18 오매불망
19 (1) 뵈어요 / 뵈요 (2) 모시러 갔다 (3) 드렸다 (4) 여쭙라

1 '심산'은 '마음속으로 하는 궁리나 계획.'을 뜻하는 말로, '윤국이는 지난봄에 일본으로 건너가 무슨 심산인지 농과를 택하여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것처럼 활용된다.

2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핀, 또는 그런 직무.'를 뜻하는 말로, '감찰은 편파 수사 여부에 대하여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것처럼 활용된다.

3 '남루'는 '납아 해진 옷.'을 뜻하는 말로, '남루를 걸치다.'와 같이 사용되거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와 함께 쓰여 '그는 오랫동안 고생하였지만, 옷차림이 남루하지는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것처럼 활용된다.

4 '통분'은 '원통하고 분함.'을 뜻하는 말로, '그는 끓어오르는 통분을 참지 못하였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것처럼 활용된다.

5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뜻하는 말은 '사리사욕(私利私慾)'이다. '부정부패(不正腐敗)'는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을 뜻하는 말이다.

6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말은 '전형적'이다. '진취적'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7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끈끈한 태도.'를 뜻하는 말은 '절개'이다.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8 '죄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씌우는 둥근 통 같은 기구.'를 뜻하는 말은 '용수'이다. '당건'은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를 뜻하는 말이다.

9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주로 쓰이는 '금수'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금전'은 '금으로 만든 돈.'을, '호걸'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풍모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작금'은 '어제와 오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0 문맥상 선생님이 학교에 간 첫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을 뜻하는 말인 '부임'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전입'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옮.'을, '임관'은 '관직에 임명됨.'을, '상임'은 '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음.'을 뜻하는 말이다.

11 문맥상 '고(高)'자와 '고(膏)'자를 바탕으로 시를 짓는 상황이므로 '한시의 운으로 다는 글자.'를 뜻하는 말인 '운자'가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점자'는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 장애인용 문자.'를, '한자'는 '중국의 글자.'를, '첨자'는 '소리의 차이나 변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덧붙이는 소문자.'를 뜻하는 말이다.

12 문맥상 백성을 잘 보살피는 사또를 칭송하는 문장이므로, 빈칸에 '명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를 뜻하는 한자 성어는 '녹의홍상(綠衣紅裳)'이다.

14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산천초목(山川草木)'이다.

15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백년해로(百年偕老)'이다.

16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봉고파직(封庫罷職)'이다.

17 '일편단심(一片丹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18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전전긍긍(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말이다.

19 우리말에서는 말하는 이가 서술의 주체나 객체 및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 여쭙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보다'의 높임 표현은 '뵈다'이며(1), '데리러 가다'의 높임 표현은 '모시러 가다'이다(2). 또한 '주다'의 높임 표현은 '드리다'이며(3), '묻다'의 높임 표현은 '여쭙다'이다(4).



완자뽕의 풀이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보자고 할 때, '뵈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뵈요'는 틀린 표현이야. '뵈다'는 '보이다'의 준말이고, '-요'는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야. 그렇기 때문에 '뵈다'는 '보이요'라는 표현이 되어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이다'라는 말에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미인 '-어'가 붙고, 이 말을 다시 높여서 '보이어요'로 써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보이어요'를 줄여 쓰면 '뵈어요'가 되고, 이를 다시 줄여서 '뵈요'가 되는 것이란다.



꼭지 시험

56쪽

- 1 판소리 2 암행어사 3 편집자적 논평 4 ○
5 × 6 ○ 7 × 8 ① 9 ③

1 소설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공방 불러 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 …… 형방 불러 서류 단속, 사령 불러 숙직 단속, ……” 같은 운문체와, 율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을 기술하는 산문체가 함께 나타나 있다.

2 ‘몽룡’은 서울에서 장원급제를 한 뒤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벌하기 위해 남원으로 내려왔다.

3 소설 「춘향전」에는 “어사도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와 같이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직접 서술하는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4 기생의 딸인 ‘춘향’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분이 높은 ‘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는 진취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5 ‘변학도’는 아둔하고 술에 취해서 ‘몽룡’이 지은 시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반면에, ‘운봉’은 ‘몽룡’의 시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는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다.

6 ‘변학도’는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수청을 거절하자 ‘춘향’을 옥에 가두는 등의 횡포를 부린다.

7 ‘춘향’이 수청을 거부한 이유는 ‘몽룡’에 대한 지고지순한 마음 때문이지, ‘몽룡’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8 ‘몽룡’이 지은 시는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뜻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적절하다.

9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라는 ‘변학도’의 말은 낱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즉 언어유희 표현을 활용하여 ‘변학도’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꼭지 시험

57쪽

- 1 ○ 2 ○ 3 × 4 ○ 5 ②
6 ④

1 만화의 기본 구성 요소는 ‘글’과 ‘그림’으로, 만화 「춘향전」도 마찬가지로 ‘글’과 ‘그림’을 중심으로 인물과 배경, 주요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2 ‘몽룡’의 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느낌표(!)로 표현하여 그 심리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몽룡’이 ‘춘향’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자, 이 말을 들은 ‘춘향’의 심리를 느낌표와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3 만화 「춘향전」에 사용된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은 사람들이 이 큰 소리로 말하거나 함성 등을 표현할 때 쓰였다.

4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쓰인 하늘만 그려 넣은 칸은 암행어사 출두 상황이 일단락되고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진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5 원작에서는 암행어사인 ‘몽룡’의 부하들(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장면으로 서술되었지만, 만화 「춘향전」에서는 ‘몽룡’이 직접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장면으로 표현되었다.

오답인 이유 ① 원작에는 ‘몽룡’의 시를 들은 ‘운봉’이 공방을 비롯한 구실아치들을 불러 주변을 단속하는 반면에, 만화 「춘향전」에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운봉’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만 그려 넣었다.

③ 원작과 만화 「춘향전」 모두 ‘춘향’이 수청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원작과 만화 「춘향전」 모두 ‘변학도’가 ‘몽룡’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6 ‘씩’, ‘쭉’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정지된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의 모습을 구체화함으로써,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1 ④ 2 ② 3 ③

1 국악 「이몽룡아」는 크게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인 ‘아니리’ 부분과 ‘춘향’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노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작에서 ‘춘향’은 ‘몽룡’이 비록 걸인 모습으로 돌아왔더라도 그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저버리지 않은 반면에, 국악 「이몽룡아」의 ‘춘향’은 상경인이 되어 돌아온 ‘몽룡’의 모습에 실망하여, ‘변 사또’의 수청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다.

3 고전 소설 「춘향전」은 영화, 드라마, 만화,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춘향전」이 계속 재구성되어 창작되는 이유는, 「춘향전」이 시대를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알짜 시험



58~61쪽

- 01 ⑤ 02 ② 03 역졸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니 산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04 ⑤ 05 ⑤ 06 ②
07 ① 08 ③ 09 ⑤ 10 ③
11 <보기>에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운봉’이 ‘몽룡’의 정체를 눈치채고는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여 주변을 단속하는 모습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나)에서는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몽룡’의 시에 대해 수군거리다가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12 ③ 13 ② 14 팔자 한번 고쳐 보려 15 ⑤

01 걸인 모습을 하고 있는 ‘몽룡’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변학도’는 ‘몽룡’에게 술 한잔 먹여 보내자는 ‘운봉’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는 ‘몽룡’을 소홀하게 대접하였다. 또한 ‘변학도’는 아둔하고 술에 취하여 ‘몽룡’이 지은 시에 담긴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몽룡’의 정체 또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변학도’가 ‘몽룡’의 정체를 의심하여 일부러 ‘몽룡’을 소홀히 대접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몽룡’이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랏줄은 네가 저라.’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변학도’를 벌할 생각으로 잔치 자리에 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변학도’가 “운봉 생각대로 하지요마는…….”이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리면서 마지못해 허락한 데에서, ‘운봉’의 의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운봉’은 ‘몽룡’이 지은 시를 듣고는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운봉’은 ‘몽룡’의 시에서 ‘몽룡’의 정체를 눈

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역졸들’은 사방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면서 ‘어사또’의 위의를 드러내고 있다.

02 [A]는 ‘몽룡’이 지은 시로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을 뿐,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이 시는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로 흥청망청 잔치를 즐기고 있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③ ‘금 술잔의 좋은 술’을 ‘수많은 사람의 피’에 빗대어 표현한 것과 같이 은유의 방법으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있다.

④ 앞부분은 탐관오리의 사치스러운 삶이, 뒷부분은 백성들의 고통이 대비되어 나타나 있다.

⑤ 이 시를 들은 ‘운봉’이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는 데에서, 이 시가 극적 전환을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서술형 ✎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다)에서는 ‘역졸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니 산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라는 부분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 문장을 (다)에서 찾아 정확하게 썼다.	☐

04 ㉠에는 음식 ‘갈비’와 사람 몸에 있는 ‘갈비’의 발음이 같은 데에서 착안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발음의 유사성에서 착안한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다. ㉡는 ‘개잘랑’의 ‘양’과 ‘개다리소반’의 ‘반’의 발음이 ‘양반’과 비슷한 데에서 착안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오답인 이유 ①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대구 표현을 활용하여 ‘남군’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의인법을 활용하여 봄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완자쌍의 풀이

언어유희는 말을 재미있게 꾸며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야. 언어유희에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 유사 음운을 반복한 것, 언어 도치에 의한 것,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 등이 있어.

05 이 글은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던 판소리를 소설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양반 계층의 작가가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인 이유 ①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자유연애주의적 가치관 등 당시의 민중에서 싹트고 성장하던 의식이 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과 당시의 부정부패를 풍자하는 미의식이 드러난다.

③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운문체와 산문체가 동시에 드러난다.

④ 이 글에는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찌 일일이 말로 하겠는가.'와 같이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드러낸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고 있다.

06 ㉠은 자신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하는 '어사또'의 말에 어이없어하는 '춘향'이, '변학도'와 마찬가지로 '어사또' 또한 부정부패한 관리임을 질책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말한 것이다.

07 ㉡는 암행어사 출두에 놀란 '변학도'가 도망쳐 숨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변학도'의 횡포를 나타낸 표현은 아니다.

08 이 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횡포와 가렴주구를 일삼던 '변학도'가 벌을 받고, 곳곳하게 절개를 지켜 낸 '춘향'이 '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이처럼 이 글은 권선징악적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9 (마)에서 하늘만 그려 넣은 칸은 암행어사 출두로 어수선했던 상황이 정리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이다.

10 ㉢은 '몽룡'의 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느낌표로 나타낸 것으로, '몽룡'의 시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1 **서술형** <보기>의 원작에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운봉'의 반응만 나타나고 있지만, (나)에서는 잔치 자리에 모여 있던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와 <보기>의 차이점('몽룡'의 시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포함하여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식을 지켜 썼다.	☐

12 노랫말에서 '춘향'은 상결인이 되어 돌아온 '몽룡'에게 실망한 마음만 드러내고 있을 뿐, '몽룡'을 만난 일 자체를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인 이유 ①, ④ '춘향'이 '상결인 되어 오니 이 원통 뉘 알리오'라고 노래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춘향'이 '변 사또 나리 나이가 흠잡을 곳 가히 없소'라고 노래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그때여 춘향이 본관 사또 수청을 거절하여 옥중에 있을 적에'라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13 '춘향'이 팔자를 고치기 위해 '몽룡'을 골랐다고 한 것이나 '이년 팔자 고쳐 보면 우리 모녀 남은 인생 부귀영화 누릴 듯 하니'라고 노래한 부분에서 '춘향'이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4 **서술형** 노랫말로 보아 '춘향'이 모진 고통 속에서도 '몽룡'을 기다린 것은, '몽룡'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몽룡'에 대한 사랑이 아닌, '몽룡'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몽룡'을 기다린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춘향'이 '몽룡'을 기다린 까닭이 드러난 구절을 글에서 찾아 썼다.	☐
4여절로 제시하였다.	☐

15 이 노랫말에 나타난 '춘향'은 절개와 같은 정신적 가치보다 부귀영화나 신분 상승과 같은 실리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 노랫말의 작사가는 원작에 나타난 '춘향'의 가치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관인지 고민해 보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인 이유 ① 원작과 이 노랫말 모두 '변학도'가 '춘향'을 욕에 가두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로 보아 작사가가 '변학도'가 '춘향'을 욕에 가둔 이유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작이나 이 노랫말 모두 '춘향'이 '몽룡'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③ 이 노랫말에 '몽룡'이 상결인이 되어 돌아온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춘향'의 어머니는 이 노랫말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알짜 요약정리

● 62~63쪽

- 1 조상 2 승능 3 관습적 4 비유적 5 격언
6 명언 7 배꼽



어휘 시험

64~65쪽

- 1 ㉠ 2 ㉡ 3 ㉢ 4 ㉣ 5 경신
6 구두쇠 7 증정하다 8 자포자기 9 외양간 10 승능
11 가랑비 12 비 13 이끼 14 ㉠, 벼 이삭은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 15 ㉢, 시작이 반이다
16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17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18 ㉠,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듯이 19 ㉠, 아까다 똥 될 수 있다
20 (1) ○ (2) × 21 (1) × (2) ○

1 '자반'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을 뜻하는 말이다.

2 '핀잔'은 '맞대어 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3 '자ړ고비'는 '다랗을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말이다.

4 '하룻강아지'는 '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강아지.'를 뜻하는 말이다.

5 '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트림.'을 뜻하는 말은 '경신'이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6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말은 '구두쇠'이다. '개척자'는 '거친 땅을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7 '어떤 물건 따위를 성의 표시나 축하 인사로 주다.'라는 뜻을 지닌 말은 '증정하다'이다. '배려하다'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쓰다.'라는 뜻을 지닌다.

8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은 '자포자기'이다.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뜻하는 말이다.

9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10 '우물에 가 송늬 찾는다'라는 속담은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은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3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라는 속담은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이다.

14 겸손하지 못한 상대를 탓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자신의 실력도 모르고 함부로 도전하는 상대를 비꼬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여러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지 못한 채 회의가 흐지부지되었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잘 알고 있는 길일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과 반대의 뜻을 지닌 말을 하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아끼다 똥 된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1)의 '발이 넓다'는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인 반면에 (2)의 '발이 넓다'는 '날말 그대로 발이 크다'는 뜻으로 쓰였다.

21 (1)의 '손이 크다'는 '날말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에 (2)의 '손이 크다'는 '썸썸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꼭지 시험** 66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속담은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조상들의 지혜나 교훈, 풍자가 담긴 쉽고 짧은 말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가치관 등이 잘 담겨 있는 말이다.

2 격언이란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로, 주로 삶의 올바른 이치나 도덕률, 행동 규범 등을 강조한다.

3 명언이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로, 대체로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을 가리킨다.

4 관용 표현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5 격언이란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담고 있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거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6 속담은 하나의 문장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담을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매우 간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다.

7 속담은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어, 표면에 드러난 의미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8 관용 표현은 두 개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낱말 본래의 뜻과 전혀 다른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을 가리킨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다의어'이다.



완자쌤의 풀이

'다의어'란 두 개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는 낱말을 말해, 예를 들어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걸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지렛다리'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단다.

9 가까운 곳에 두고도 못 찾았다는 뜻이므로,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뜻으로 쓰이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하루 종일 체험 학습을 하여 피곤하다는 뜻이므로,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라는 뜻의 '파김치가 되다'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입에 거미줄 치다'는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굶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의사들이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의 '입(을) 모으다'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는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으로, '민호'와 '혜민'이 오랫동안 감정싸움을 하였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아져 누구보다도 친해진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꼭지 시험

67쪽

1 국어 선생님 2 재구성 3 결핍 4 ×
5 ○ 6 × 7 × 8 ○ 9 ④
10 ③

1 “국어 책 학습 활동에 ……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없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글쓴이의 직업이 ‘국어 선생님’임을 알 수 있다.

2 이 글의 제목인 「아끼다 똥 될지라도」는 ‘아끼다 똥 된다’라는 속담을 재구성한 표현이다.

3 글쓴이는 아이들이 너무 풍족하게 지내다보니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결핍이 없는 곳에는 풍요함도 자리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다.

4 중학생 시절 글쓴이는 세 가지의 색 볼펜을 증정받았는데, 이 색 볼펜을 아껴 쓰기 위해 친구들에게도 함부로 빌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만 조그맣게 그려 넣을 때 썼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글쓴이가 어렸을 적에 색 볼펜을 마음껏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우리 선생님이 알려 주셨어. …… 그게 ‘아끼다 똥 된다.’야.”라고 글쓴이의 아이가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6 글쓴이가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가져간 것은 찢 감자가 아니라 찢 고구마이다.

7 글쓴이가 “교실을 청결하게 정돈할 때 기분이 참 좋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청소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8 “그날 우리 식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끼다 똥 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글쓴이가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9 이 글에는 ‘아끼다 똥 된다’라는 속담과 관련된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만 언급되고 있을 뿐, 그때와 요즘 시대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10 이 글에는 ‘배꼽을 쥐다’, ‘침(을) 삼키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등 다양한 관용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빈칸을 채우다’는 낱말의 뜻 그대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운다는 뜻을 나타낼 뿐 관용 표현은 아니다.

알짜 시험



68~69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④ 07 ⑤ 08 ① 09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01 관용 표현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된다.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한 덩어리로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표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02 <보기>의 상황에서 ‘딸’은 어제 토마토를 심었는데도 아직 토마토 열매가 열리지 않았으며 ‘엄마’에게 묻고 있다. 이처럼 조금만 태도를 보이는 ‘딸’에게 조언할 때에는,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할 하라는 말이다.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3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서로 무심하게 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소 닭 보듯’이란 속담은 적절하지 않다. 사이가 매우 나빠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해칠 기회만 찾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개 고양이 보듯’이란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는 속담은 일을 분별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리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라는 속담은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라는 속담은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이다.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4 ㉠~㉣은 모두 두 개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낱말 그대로의 뜻이 아닌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이다. 반면에 ㉤은 관용 표현이 아니라 낱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인 표현이다.

05 만화에서 ‘여우’는 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높아서 안 닿는다며 포기하고 만다. 이런 ‘여우’의 태도를 나타내기에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자포자기’가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말이다.

②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을 뜻하는 말이다.

④ ‘감탄고토(甘香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뜻하는 말이다.

06 (라)에서 글쓴이가 ‘비 오는 날에는 교실 뒤에 우산을 영화처럼 펼쳐 놓는다.’라고 한 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한 것일 뿐, 글쓴이가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오답인 이유 ① (나)를 통해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홍보용으로 준 세가지 색의 볼펜을 증정받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를 통해 글쓴이가 아이들을 위해 고무마를 써서 학교에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③ (가)를 통해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곰팡이가 핀 쥐포를 물에 씻은 다음 기름에 튀겨 먹었던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와 (라)를 통해 글쓴이는 아이들이 조금은 부족함을 느낄 때 대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은 곰팡이에 핀 쥐포를 물에 씻은 다음 기름에 튀겨서 먹은 것이 정말 맛있었다는 뜻으로, 음식이 아주 맛있음을 이르는 말인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속담이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식은 죽 먹기’는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을 이르는 관용 표현이다.

② ‘울며 겨자 먹기’는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먹을 때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는 비록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밥을 먹을 때에는 때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08 ㉢는 ‘음식 파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입을 다물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던 말을 그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09 **서술형** 글쓴이는 ‘아끼다 똥 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풍족하여 물건의 귀중함을 잘 모른다며 요즘 아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아끼다 똥 될지라도’ 아이들이 모든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길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형식을 지켜 썼다.	☐